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03-08

도서관

통권 제386호 | 2012

ISSUE

저널을 통해 본 독서진흥운동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SN 1011-2073

도서관

통권 제 386 호
2012

ISSUE

저널을 통해 본 독서진흥운동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차례

Ⅰ ISSUE 저널을 통해 본 독서진흥운동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역사와 의미 | 6
윤세민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남성들은 무엇을 읽어왔을까? : '독서구락부'에서 '느낌표' 까지 | 37
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신문을 통해 본 여성 독서의 변화상 : 독서 계몽 대상자에서 독서 선도 주체로 | 59
윤금선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어린이책을 권장하는 사회 | 94
정병규 출판도시문화재단

학생 저널《학원(學園)》과 독서 진흥운동 | 112
박몽구 한양대학교 교수, 시인

Ⅱ 2012년 도서관 기획대담

독서운동의 현재와 미래 | 134
사회 : **윤세민** 교수
패널 : **안찬수** 사무처장, **한상수** 이사장, **한윤옥** 교수

Ⅲ 2012년도 연구현황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154
국립중앙도서관 | 15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61
국립장애인도서관 | 162

ISSUE "저널을 통해 본 독서진흥운동"

I

01 _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역사와 의미 · 006

02 _ 대한민국 남성들은 무엇을 읽어왔을까? : '독서구락부'에서 '느낌표' 까지 · 037

03 _ 신문을 통해 본 여성 독서의 변화상 : 독서 계몽 대상자에서 독서 선도 주체로 · 059

04 _ 어린이책을 권장하는 사회 · 094

05 _ 학생 저널《학원(學園)》과 독서 진흥운동 · 112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역사와 의미

윤 세 민 Yun, Se-min
경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언론학박사),
문화평론가, 출판학회 방송학회 언론학회 이사.
yunsm@kic.ac.kr

01

출판은 인류의 미디어 중 가장 오래된 매체로서 인류 문화와 지식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출판은 생산 양식이고, 그 소비 양식은 독서다, 즉 독서를 통해 비로소 출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류 문화와 지식이 확장돼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산업과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찬란한 인쇄문화를 꽃피웠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는 우리 출판과 독서운동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떤 흐름을 견지해 왔는지, 또 우리 출판과 독서운동이 각 시대별 역사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총론 성격으로 미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개화기부터 2010년대인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대 순으로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우리의 근대화를 이끈 개화기 출판과 독서운동

한국사에서의 근대는 일반적으로 1863년 고종의 즉위와 흥선 대원군의 집권부터 시작한다. 이 시기의 한국은 한반도를 노리는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끈질긴 간섭과 침투 속에 조선 왕조가 서서히 스러져가는 불운의 시기였다.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의 특별 행정 구역으로 들어가며 국권을 강탈당하고 만다. 이 시기의 출판과 독서운동은 스스로 국운 회복과 민족정신의 부활 운동을 견인하는

도구로, 또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개화의 선봉 역할을 하였다.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와 일본의 신문화를 받아들여 사회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개화운동세력은 출판과 독서운동을 개화사상 전파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개화세력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기를 맞이한 다양한 세력들이 국민 계몽과 사상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서적 출판과 신문 발간 등에 그리고 독서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 751년)과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 1377년)을 생산해 낸 '출판 대국'이었다. 실히 근대 이전의 우리나라 출판은 일찍부터 꽃피워 온 인쇄문화에 힘입어 활발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출판 · 인쇄문화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봉건적 계급사회 속에서 출판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왕실과 양반 계층에만 한정되어, 출판문화의 보급 ·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까지 발달하였던 우리의 출판 · 인쇄문화는 그대로 계승 ·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식 인쇄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근대적인 출판문화는 1880년대에 신식 인쇄기계와 납활자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새로운 문물제도에 따르는 신문이나 도서들을 출판하기 위해 정부는 인쇄에 필요한 기계와 연활자를 일본에서 수입해 1883년(고종 20년)에 최초의 근대식 인쇄출판기관인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였다. 이 해 10월 1일, 여기서 창간 발행한 『한성순보(漢城旬報)』가 한국 최초의 신문이자 최초의 근대식 인쇄물로 평가되고 있다.

1884년에는 최초의 근대식 민간 인쇄출판사로 관민 합작회사 형태를 띤 광인사(廣印社公所)가 설립돼, 『충효경집주합벽』『농정신편』『농정촬요』『고환당집』 등이 출판되었다. 이 중 『농정촬요』는 근대 출판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주목을 받았다. 또한 1985년에는 서울 정동에 천주교 인쇄소인 성서활판소가, 또 배재학당 내에 인쇄소 겸 출판사인 삼문사가 설립돼 각각 천주교와 개신교 관련 서적들을 활발히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갑오개혁 이후에 학부(學部) 편집국에서 독자적으로 목활자를 만들어 학생용 각종 교과서들을 인쇄, 발행하였다.

개화기의 신문화 형성과 사회 계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1890년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서점과 인쇄소들이었다. 당시는 아직 인쇄 · 출판 · 판매가 분화되지 않은 채, 인쇄소가 직접 도서를 발행하거나 서점이 출판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보성관, 탑인사, 휘문관, 동문관, 보문사 등은 인쇄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출판사였다. 이밖에 황성신문사, 대한매일신문사 등 신문사에서도 역사물과 신소설류를 많이 출판했다.[1]

(1)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 1998, p.54

이 시기에 출판되고 많이 팔린 책은 서구 관련서적, 교과용 도서, 기독교 서적, 신소설과 문학도서, 사전과 자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태서신사〉, 〈월남망국사〉, 〈화성돈전〉, 〈자전석요〉 등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태서신사〉는 서구사정, 최신문화 등을 소개한 책으로 '학부편집국'에서 발행하였는데 소년 최남선에게도 근대의식을 불어넣은 책으로 순한문서와 순한글서 2종이 존재했다. 특히 옥편 〈자전석요〉(지석영 편, 회동서관 발행, 1909)는 초판 5천부, 20여 쇄, 약 10만부 정도가 판매되었다는 분석도 있어서 당시 신식 출판이 우리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당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종교 서적의 출판은 선교 사업이라는 목적 외에도 이 땅의 개화 운동과 근대 출판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1905년부터는 일제의 침략 앞에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 계몽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여 후일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당시 의병운동과 함께 민족운동의 양대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애국계몽운동의 구체적 방법의 일환으로, 다시 말해 민중 계몽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출판과 독서운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근대 개화기의 출판과 독서운동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몰려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개화파 등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국민 계몽'이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즉 당시의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해 내고자 한결같이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개화사상, 자강의식 등을 출판과 독서운동을 통해 고취시켰던 것이다.

漢城旬報
統理衙門博文局

그림1. 1883년(고종 20년) 10월 1일 창간 발행한 『한성순보(漢城旬報)』. 한국 최초의 신문이자 최초의 근대식 인쇄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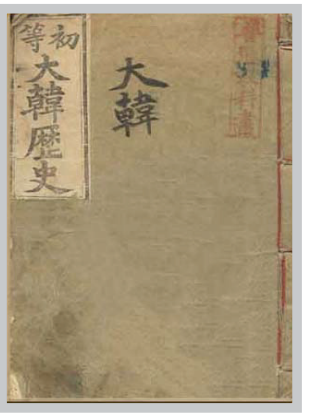

初等大韓歷史
大韓

그림2. 개화기의 교과서 – 『대한역사』

2. 일제 탄압 속 국권회복 차원의 출판과 독서운동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은 이 땅에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고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강제적으로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은 시기로서, 제1기인 무단통치 시기, 제2기인 민족분열통치 시기(소위 문화통치), 제3기인 민족말살통치 시기로 나뉜다.

막 움트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 출판은 한일합방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함께 시작된 일제의 무단통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이때로부터 일제는 원고의 사전 검열과 출판 후의 납본 검열이라는 이중의 엄격한 검열 제도를 실시하며, 우리의 말과 글을 그리고 출판을 탄압해 나갔다.

1910년 10월에는 한국인 저작의 각급 학교 교과서를 모두 몰수하였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도서 가운데서도 책이름에 '대한'이 들어간 것은 한일합방과 함께 모두 금서 처분을 내렸다.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언론과 출판을 더욱 옥죄었다. 이 때 19개 항에 걸친 내규를 정하여 언론에 대한 탄압을 행하면서, 도서도 역시 이 내규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1936년에는 이 내규를 더 강도 높게 고쳐 보다 광범위한 언론 검열 표준을 만들었다. 1938년에는 중등학교의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여 우리말 사용을 억압하더니, 1943년에는 출판사업령을 공포하여 아예 한국어 출판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나라와 함께 출판도 식민지화되고 말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근대화된 우리 출판의 저력은 꾸준히 국권회복운동 차원의 출판활동을 전개해 갔다. 다수의 지식인들이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고자 출판업과 독서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일제의 계속되는 탄압과 검열 속에서도 꾸준히 서적을 발간하고 독서운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민족문화 형성과 국민계몽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이 무렵부터 인쇄와 출판 및 서점이 점차 분화되기 시작했고, 전문 인쇄소도 다수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는 개화기 때부터 활동해 온 박문서관, 회동서관, 신문관, 이문당, 덕흥서림, 동양서림 외에 조선도서주식회사, 한성도서주식회사와 같은 기업화된 출판사까지 탄생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족적 문인과 학자들을 발굴 · 육성하고, 문학 · 교양 · 학술 서적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출판사업을 전개했다. 1930년대에는 편집과 장정 체계도 많은 진전을 보이며 양장본까지 등장하였다. 1938년에는 '조선문고'

'박문문고' 등의 문고판을 발행하면서 도서의 대량 보급과 대중화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런 결과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최현배의 『우리말본』, 양주동의 『조선고시가연구』 등 우리의 얼을 되살리는 수작들이 출간되었고, 『흙』 『상록수』 『탈출기』 『임꺽정』 『현대조선문학전집』 『신선문학전집』 같은 민족적 문학 작품들도 출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해외에서 발간된 한글 서적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해방 후의 출판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독서 경향을 살펴보면, 당시의 베스트셀러로는 1910년대 초에 나온 최찬식의 『추월색』이 시초이다. 이 소설은 한국 · 중국 · 일본을 무대로 남녀의 3각 애정을 다룬 신소설이다. 이어서 1917년 회동서관에서 출판한 이광수의 『무정』을 끝으로 신소설기는 막을 내린다. 또한 이 무렵 출간된 조일제의 『장한몽(長恨夢)』은 일본 소설 『금색야챠』를 번안한 것인데 심순애와 이수일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줄거리는 '사랑이냐 돈이냐'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2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광수의 『이차돈의 사』(1925)와 홍명희의 『임꺽정전』(1928~1929) 등이 조선일보에 연재되어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에는 신문 연재소설의 성숙기를 맞아 베스트셀러가 쏟아져 나왔다. 김동인의 『젊은 그들』(동아일보, 1930), 『운현궁의 봄』(조선일보, 1933), 현진건의 『무영탑』(동아일보, 1937), 박종화의 『금삼의 피』(동아일보, 1935), 이광수의 『원효대사』(매일신보, 1942) 이태준의 『왕자호동』(매일신보, 1942) 등이 연재될 때부터 인기를 끌어 내내 잘 팔리는 책이 됐다. 백철은 이 시기에 역사소설이 유행한 데 대해 "그 암흑한 현실과 정면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문학적 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 소설들은 대체로 사실주의보다 유미주의적 태도로 일관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실주의의적 계열의 작품들로는, 염상섭의 삼대(조선일보, 1931), 이광수의 흙(동아일보, 1932), 유정(조선일보, 1933), 심훈의 상록수(동아일보, 1935), 채만식의 탁류(조선일보, 1937) 등도 당시로서는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했으며, 현진건의 적도(동아일보, 1933), 이기영의 고향(조선일보, 1933) 등도 주목되는 작품이었다.

이 시기의 특이한 현상은 최남선의 『고사통』 『조선역사』, 노산 이은상의 『무상(無常)』 등 비소설류가 많이 읽혔다는 점이다. 『고사통』은 한국문학사를 정리한 책인데, 이들 역사물이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민족의식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춘원의 소설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무정, 흙, 사랑 등의 소설을 누르고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은 『춘원서간문집』이었다.

1935년 이후 신문의 상업주의적 속성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문 연재소설들도 점차 통속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 인기를 모은 것이 김말봉의 『밀림』(동아일보, 1935), 『찔레꽃』(조선일보, 1937)과 김내성의 탐정소설, 그리고 『마도의 향불』(동아일보, 1932~1933)로 대표되는 방인근의 통속소설 등이었다. 백철은 이 시기 통속소설의 유행에 대해, 통속소설은 '신문의 상업주의를 배경으로 1935년 이후에 등장' 했으며, '이 시대의 현실이 그처럼 암울해서 그 전과 같이 경향적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통속소설로 흐리게 된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

이처럼 일제 강점기의 베스트셀러들은 일정하게 시대정신과 민족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 정신을 우리 민족은 독서를 통해 견지했던 것이다.

이 시기는 개화기와 달리 근대적인 독서 개념이 본격화 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1920~30년대는 도서관 설립을 통하여 독서운동이 확산되었던 때이다. 도서관은 일반인들에게 독서 권장, 도서 대출, 도서 선택 지도 등을 통해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언론에서는 매 일정 시기마다 각 도서관 열람자 수를 남녀 비율, 연령별 · 직업별로 제시해주고 있으며, 독서 분야의 순위를 통해 당대 독서경향을 파악하게 했다.

그런데 근대적인 독서의 시작은 당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문식성의 신장과도 무관치 않다. 이 시기는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의 문자 보급 운동 및 농촌 계몽의 브나로드 운동 등 한글 보급 운동은 문맹 타파와 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언론사에서는 한글운동뿐만 아니라 '독서구락부'를 통한 독서운동도 펼쳤다는 사실이다. 독서구락부 운동은 한글 보급 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1920년대 초부터 한글운동이 정착화되고 문식성이 신장된 3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1920~30년대는 한글 보급 운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문식성 신장이라는 토대 아래 도서관 및 언론사의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3)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출판과 독서운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권회복 운동으로 집약된다. 일제의 가혹한 압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우리 한민족 전체의 절절한 염원은, 이 시대 출판과 독서운동의 목적이었으며 소명이었다.(4) 즉 일제 탄압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 온 출판과 독서운동을 통해 식민지적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 인식과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며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pp.160~164 참조.

(3) 윤금선, 『우리 책읽기의 역사 1』, 도서출판 월인, 2009, pp.13-15 참조.

(4) 이중한 · 이두영 · 양문길 · 양평, 『우리출판 100년』, 현암사, 2001, p.58쪽 참조.

그림3. 『소년』 창간호의 표지

그림4,5.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 · 사진) 선생과 그의 저서 『우리말본』

3. 해방과 전쟁의 와중에서 건국에 동참했던 출판과 독서운동

8 · 15 해방으로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통치라는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사회 발전이란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키우게 되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다시 되찾은 출판계는 36년 간 막혔던 눈과 귀를 열게 하고자 저마다 민족문화의 재건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의욕에 불탔다.

일제 강점기 말에 강제로 출판 활동을 중지해야만 했던 정음사, 영창서관, 한성도서주식회사, 박문서관, 삼중당, 덕흥서림 등은 묵은 지형의 먼지를 털어냈다. 고려문화사, 을유문화사, 백양당, 아문각, 백민문화사, 공업문화사 등도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지방에서도 출판사의 창업이 줄을 이었다. 대구에서는 현암사, 계몽사, 대양문화사 등이 특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뜻 있는 지식인들이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해방된 조국의 건국 사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판사의 간판을 붙이기 시작했다.[5]

그러나 이 많은 출판사들이 정상적인 출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36년간의 식민지배 후유증이 제대로 치유될 새도 없이 의욕만 앞선 채 물밀듯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출판 여건을 살펴보면 활자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출판 자재 특히 용지 부족이 심각할 정도였다. 또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쇄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도 어려웠다. 그밖에 한글 맞춤법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편집과 장정, 인쇄나

(5) 이중한 외, 위의 책, pp.93~94..

제본 실력도 떨어져 출판 제작이나 도서 판매가 지지부진하였다.

이렇게 해방 공간과 미군정 하에서 과잉 의욕 속에 혼란을 겪던 출판계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과서와 학습 참고서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함께 재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출판계는 다시 공백기로 접어들었다.

공산군이 수도 서울을 장악하자 출판 활동은 일시에 마비되었다. 출판사들은 자재, 재고 도서와 지형마저 포기하고 숨어 지내야만 했다. 대부분의 서적은 몰수 또는 폐기되었고, 인쇄 시설과 용지 등 출판 자재는 남김없이 압수당했다. 결국 교과서를 주로 출판했던 출판사들은 대구에서, 일반 도서 출판사들은 부산에서 각각 피난 보따리를 풀어야 했다. 자연스럽게 출판물의 제작은 대구가, 판매는 부산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던 피난 시절, 출판계의 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문교부가 출판사들에게 국정 교과서의 발행을 위촉한 것이었다. 1951년 9월의 신학기를 앞두고 교과서 수요가 급증하자 문교부는 10여개 출판사에 각각 1억 원의 융자 혜택까지 주어, 출판계는 교과서와 참고서 발행에 열중하며 잠시나마 전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출판산업은 전쟁 중에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했다.

해방기와 1950년대 전쟁기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정국이 불안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독서계는 해방 전에 비하면 오히려 저조한 현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서울의 국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의 도서관은 그 명맥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지방의 경우는 존재했던 도서관마저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었으니 당대 우리 독서계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도서관은 매년 '독서주간'을 실시하였는데, 전쟁기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4년 11월 24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독서주간 설정 목적은 도서관의 중요성과 독서의 필요성을 널리 계몽하고 이를 장려하는 데 있다. 국립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도서관 무료 공개뿐 아니라 도서 전시회, 가두선전, 방송을 통한 선전과 드라마,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 독서주간은 주로 매년 9월 말에서 10월, 혹은 10월 말에서 11월 즈음에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독서운동에 비해 도서관의 수와 설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었다.[6] 이렇게 도서관과 도서시설 및 장서 부족 현상은 마침내

(6) 윤금선, 앞의 책, pp.140~150 참조.

'도서관법 제정' '학교도서관법' 등의 제안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편 당대에는 농촌 독서운동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에게 농촌 도서관 운동은 도시에 국한되었던 독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이는 일제 강점기에 도서관 운동과 '독서구락부' 운동이 병행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당대의 신문에는 독서 관련 보도와 도서관 통계 자료가 자주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반 독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당대는 문학 중심의 독서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여성 독서자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독서를 촉구하고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대보다 아동 독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여성과 학생의 독서지도가 두드러지고 일반인을 위한 도서 선택과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가 제공되었다.(7)

그림 6.
해방 직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교과서.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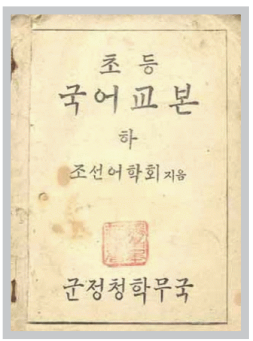


그림 8. 해방 직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한 『초등 국어교본』

4. 1960년대 – 경제개발과 교양의 시대 연 출판과 독서운동

1960년대의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는 출판과 독서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1960년대의 출판은 1950년대부터 이어 온 교과서와 학습참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서서히

(7) 윤금선, 위의 책, pp.192~193 참조

산업화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5 · 16 쿠테타로 새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출협 500여 회원사 중 출간 실적이 없고 규정을 어긴 출판사 253개사를 등록 취소하였다. 문교부는 "출판 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출판문화를 보호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개정된 출판등록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8) 그러면서 "출판의 자유는 계속 보장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정부의 간접통제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와 함께 문교부는 도서정가제 실시를 권장하고, 납본 업무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위임해 정확한 출판통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급격한 변화는 출판계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출판계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출판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영세출판업자가 대부분인 우리 출판계는 발전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다행히 출판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농가 소득 증대에 따른 우수한 인력배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국민 중 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했고, 정부는 문교예산을 증가시키며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여 국민 대중교육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중심의 당시 출판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열과 학생수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교육지원 등은 교과서가 출판산업의 핵심으로써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1960년대 출판계는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출판에 주력하는 한편, 교양도서 및 분야별 전문도서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기여할 기술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도서 개발에도 주력했다. 당연히 독서의 경향도 그러했다. 1960년대의 출판과 독서운동은 교육용 도서 개발 보급과 독서운동을 통해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력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교양의 시대'를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1960년대 초반은 3.15 부정선거와 4.19 학생의거의 여파로 출판물의 판매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한 · 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 문학의 번역출판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책이 베스트셀러로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五味川純平의 『인간의 조건』(이정윤 역) 3부작은 정향사에서 나와 출판사 하나를 완전히 소생시킬 정도로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한 정치 ·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1960년대는 많은 수필집이 쏟아져 나와 혼란한 사회 속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청량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령, 김형석 등의 수필집은 1960년대 내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9)

---

(8) 경향신문 1961.9.29.

(9) 이임자, 앞의 책, p.293.

소설로는 최인훈의 『광장』이 정향사에서 발행되어 한국 출판사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점하면서, 오래도록 널리 읽히는 책이 되었다. 또한 소설보다 더욱 소설적인 비극적 수기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허헌의 딸 허근욱의 『내가 설 땅은 어디냐』(신태양사)는 1959년 7월호부터 〈여원〉에 연재하던 것을 연재가 끝나자마자 바로 책으로 출간, 1주일 만에 초판 5,000부가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이듬해에는 영화화되었고, 몇 년 후에는 일어판과 영문판으로 번역되어 출판하기도 했다.

1960년대는 전후(戰後) 혼돈기를 지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문화적 ·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일고, 전 시대에 비하여 도서관 수, 장서 수 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공공도서관은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지식의 창고이자 공부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도서관 통계로 독서경향을 제시하여 독서지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독서주간'을 연중행사로 개최하여 도서관의 중요성과 독서의 필요성을 널리 계몽하고 이를 장려하였다.

1963년 10월에 8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도서관이 증설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법의 제정과 학교도서관의 증설은 그동안 도서관이 도서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위한 방으로 사용되던 병폐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도서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한편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설립도 활발했다. 국립도서관에서는 1960년대 초기부터 '어린이도서관'을 두고 각종 아동 서적을 비치해 두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동화를 들려주고, 때때로 읽고 난 책의 감상문을 심사하여 시상도 했다. 여기에 새싹회에서도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도서관 증설에 앞장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1960년대는 독서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대중적 매체에 독서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되고 독서 현상이나 독서교육 현상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이와 관련된 담론들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도서관 수가 증가하였고, 국민개독운동을 위한 도서관의 독서운동도 활발해졌으며, '마을문고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출판계나 각종 문화 단체들이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공교육 내에서도 독서교육 현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아동독서', '학습독서', '교과독서'의 개념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면서 중요한 담론이 된 시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 독서운동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일은 '마을문고'의 설치이다. 도시 편중의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도 말에 '마을문고'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독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엄대섭의 창안으로 시작된 마을문고는 사단법인 '마을문고진흥회'가 주관해서 전국 30호 이상의 마을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말하자면 특수한 도서관이었다. 이런 마을문고 운영이 효과를 보이자 1963년 언론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로서 본격화되었다. 마을문고는 196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1965년 4월 당시 전국의 마을문고는 2,691개가 설립되었고 도서 수는 180,200권, 독서회원 수는 78,039명에 다다랐다.[(10)] 한편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던 마을문고는 1968년도에 이르러 1만 개를 돌파하게 되었다.

마을문고 운동과 더불어 '독서의 습관화'를 위한 독후감 모집과 시상식의 거행 등 '책읽기 캠페인'이 지방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농촌에 책보내기 운동도 함께 펼쳐졌다. 결과적으로 마을문고 운동은 도서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독서운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밖에 1960년대 독서운동으로서 전국적인 독서운동이었던 '대저서 읽기 운동'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국민독서 운동', 생활독서위원회와 배영사의 '문고판생활 독서' 운동 등이 펼쳐졌다.

그림9. 1960년대에 정음사에서 펴낸 『셰익스피어 전집』

(10) 윤금선, 앞의 책, p.207. 일반인의 모금에 의해 세워진 마을문고 700여 개, 마을문고 형태로 정부보조로 이루어진 '보존문고'가 약 400개, 마을에서 자립으로 만든 '자립문고' 700여 개, 마을 독서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독서회 문고'가 600여 개 있었다.

5. 1970년대 –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속의 출판과 독서운동

1970년대의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이러한 경제 성장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었다. 또 한편으로는 소득의 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사회전반에 물질만능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상대적으로는 시민의 정신적 개발과 성숙을 보장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데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

출판계와 독서계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모색하게 된다.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서구매력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독서캠페인과 공공도서관의 증설로 독서 환경이 서서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독서환경 조성 노력도 출판 · 독서 시장의 성장에 한 몫을 했다.

1970년 당시 문화공보부는 이 해를 '출판진흥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1972년에는 '세계 도서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독서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이 해는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해였다. 그해 8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 · 공포되고, 1973년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출판계에서도 출판진흥에 대한 기대가 자못 컸다. 이 무렵 정부는 '양서출판의 지원'과 '국민독서추진운동'이란 두 가지 목표 아래 출판진흥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획만 거창하게 세웠고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경제성장 이면의 정치적 혼란 속에 1970년대의 출판은 문고 출판의 가능성과 단행본 출판의 활성화, 전집 출판의 새로운 모색 등을 통해 '장식품으로서의 출판', '신분 상징으로서의 책'에서 벗어나 당시의 학문적 · 문화적 수준을 수용하는 '문화의 그릇'과 같은 기능을 감당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대중도서로의 변화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의 성장과 사회적 문화 유형이 변모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판의 흐름이 이전의 교양과 농업 위주의 출판에서 사회과학 출판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1970년대의 출판산업은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일에 앞장섰다.

1970년대의 독서 경향을 보면,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소외된 약자의 자괴감과 고통을 그리는 문학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다. 산업화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9년에 13만권이나 팔렸으며,[11] 『별들의 고향』은 산업화가 낳은 비운의 여인을 주인공으로

(11) 『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1980, p.53.

한 책으로 발간된 해 7만부가 팔려나갔고, 이후 3년간 40만권이 판매되었으며 영화화되어 더욱 인기가 있었다.

1970년대의 또다른 독서 경향은 여성문제 서적의 붐으로, 1975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 출판된 루 살로메의 일대기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는 1년이 안 돼 22판 7만여 권이 팔렸고, 1978년 이사도라 던컨의 자서전 『이사도라, 이사도라』와 『맨발의 이사도라』는 5~6판을 찍어내며 4만여 권이 팔리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1979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임국희예요』가 되었다. 이 책은 당시 라디오 인기 프로였던 "임국희예요"를 활자화 한 것으로 1978년 12월에 출간돼 1년만에 판매부수가 79만 부에 이르렀다.(12)

한편 1970년대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과 외국의 베스트셀러가 활발히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당시 인기를 얻은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에릭 시걸의 『올리버 스토리』 등은 30만부가 넘는 판매부수를 올렸고, 서독작가 미카엘 엔데의 『모모』는 발매 1년여 만에 12판이 발행되면서, '성인동화'라는 독특한 영역을 형성하기도 했다.(13)

이렇게 1970년대는 그 이전의 출판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황금만능주의 사회풍토를 비판하는 출판물이 1970년대를 관통하며 인기를 얻었고, 여성 독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킨 출판물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품 속에 산업사회에 나타난 성 풍속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위 호스티스 문학 계열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970년대에는 사회상을 깊이 있게 다룬 도서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한층 두터워진 독자층과 함께 출판업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육당국의 학교 독서교육정착을 위한 노력은 197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1971년 문교부는 전국 각급학교 학생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좋은책 읽기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 초 · 중 · 고교 학생들로 하여금 한달에 3권 이상의 양서를 의무적으로 읽고 독후감을 학교에 써내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의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낸 독후감을 특별활동

(12) 윤금선, 『우리 책읽기의 역사 2』, 월인, 2009, p.51.

(13) 이임자, 앞의 책, 1998, pp.334~335.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발표케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책의 내용을 알게 하고 독후감의 성과를 성적에 반영하였다.(14)

1970년대 중 후반기에는 서울시 교육당국에 의해 초 · 중 · 고등학생의 독서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교 독서 체제가 추진되었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우량도서 20권씩을 선장하여 1주 1시간씩 일제히 독서시간을 갖게 하여 독서를 정규교과 활동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1970년대의 학교 교육에서의 독서정책은 입시교육에 바쁜 중 · 고등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었으며, 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6년에는 '어린이 독서헌장'이 제정되어 선포되기도 하였다.

도서의 소비와 국민독서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은 1967년 이후 별반 증가를 보이지 못하다가, 문교부가 추진한 시 · 구 · 군당 1개의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에 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난 1972년부터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서울시립종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경기도립도서관, 광주의 전일도서관 등이 이동도서관 운영을 시작하여, 독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소공동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이 남산 어린이회관 자리로 옮겨 보다 넓은 공간에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76년에는 종로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이전 교사를 도서관으로 개축하여 정독도서관이라고 명명하여 개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증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서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었다. 1979년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도서관 1개, 국회도서관 1개, 공공도서관 118개, 대학도서관 177개, 특수도서관 165개, 학교도서관 4,416개에 그치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공공도서관 1,140,090권을 포함하여 총 27,144,255권이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도 공공도서관 1,032명을 포함하여 총 7,67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록 1970년대 도서관의 수와 인원, 보유장서가 꾸준히 늘어나기는 했어도 선진국의 도서관 현황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이 독서문화의 확산과 도서소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독서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도서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서전시회의 지방 개최가 시작되었다. 1973년에는 부산일보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부산에서

(14) 조선일보, 1970.7.14

도서전시회를 개최하여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의 독자들에게 각광을 받았으며, 1976년부터는 전남일보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광주에서 도서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도서전시회의 지방 개최는 전국적인 독자개발 및 독서층 저변확대라는 측면은 물론이고,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서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도 싹트기 시작했다. 출판계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 도서관협회와 함께 어린이 독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일깨우고, 좋은 책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실천사업으로, 매년 5월 1~7일을 '어린이 독서주간'으로 제정하였다.(15)

또한 잠재 독자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기 시작해, 1979년 3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창립 32주년을 기념하여 월간의 신간 안내소식지인 『오늘의 신간』을 창간하여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도 출판 · 독서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매체인 〈독서신문〉이 1970년 11월에 창간되어 양서소개와 독서 지도를 보다 신속히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독서신문〉의 창간으로 독서인구의 개발, 독서광고의 일원화, 중 · 고등학교 학생의 독서지도 활동에 많은 힘이 실리게 되었다.

1970년대는 학생 · 교사 · 직장인 · 출판인들이 양서를 읽고자 하는 〈양서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양서읽기운동'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연구모임, 저자와의 대화, 세미나, 악서추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또 매주 『양서소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양서 소개에 힘썼다.(16)

그림10. 1970년대, 공공도서관 열람실 모습

그림11. 1970년대, 이동도서관 모습

(15)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 p.149.

(16) 중앙일보, 1979.4.14.

6. 1980년대 – 대중 속으로 파고든 출판과 독서운동

1980년대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군사독재정권이 민간정부로 교체된 시기다.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야기된 압수와 구금, 출판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대항하여 출판자유의 쟁취와 출판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출판인들의 투쟁은 출판활동의 차원을 넘는 민주화운동,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제 역할을 못하던 언론을 대신해서 왜곡된 정치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바로 잡는 민주화 운동의 본산지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이것이 향후 민주정부와 민주사회를 탄생시키는 큰 밑거름이 된 것은 당시 우리 출판의 자랑이기도 하다.

1980년대는 대중도서를 수용할 만큼 독자들의 교양과 지적수준이 높아졌다. 한글세대가 전면에 들어서므로써 1980년대 출판계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1980년대 출판은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출판 수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책의 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었는데 책의 판형이 다양해졌고 컬러화와 대형화의 추세가 나타났다.

1980년대의 독서 경향을 보면, 사회과학 서적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문학에서도 민중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또한 산업화의 각박한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집의 인기가 뜨거워진 것도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학분야에서는 사회성 짙은 작품과 흥미성이 높은 작품이 동시에 인기를 얻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동철의 『어둠의 자식』과 김홍신의 『인간시장』,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등 이었다.

한편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이문열 작가는 1987년 『사람의 아들』을 비롯하여, 『레테의 연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3편의 소설을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문열의 작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년간 소설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던 역사소설, 단학소설 등이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1980년대는 우리 출판역사상 '시'가 가장 독자의 사랑을 받은 시기,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한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시들은 인간의 상실과 결핍에 대한 내면의 치유를 노래하며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이 시기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인으로는 이해인 수녀가 있다. 이해인의 시는 1984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내 혼에 불을 놓아』, 『민들레의 영토』 등 무려 3권의 시집이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에 위치하며, 1980년대에 모두 500만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과 함께 1980년대 최고 인기를 얻었던 시인으로는 도종환이 있다. 도종환의 시집 『홀로서기』는 발간된 지 1년 만에 시집 최초로 100만부가 판매됐고, 『접시꽃 당신』은 발간 1년만에 30만부가, 누계 판매로는 100만부가 넘는 판매량을 보였다. 또한,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은 1988년 시집으로서는 드물게 영화로 제작되어 23만 관객을 모으며 그해 한국영화 흥행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980년대는 여성 세계 명상을 주제로 한 에세이집이 인기를 얻은 시기이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이시형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는 소시민들에게 어필하며 1980년대 내내 180만부가 팔렸고, 이시형 박사의 또 다른 책인 『자신있게 사는 여성』은 페미니즘 담론을 본격화하면서 100만부 이상이 팔리기도 했다. 이어령의 『축소 지향의 일본인』은 일본에서 먼저 발간되어 5개월 만에 10만부가 판매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17) 1989년에는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던 김우중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발간되어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 초판 2만부가 이틀 만에 다 팔리고, 한국 출판역사상 처음으로 6개월도 되지 않아 10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는 우리 출판의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밀리언셀러가 등장한 시기이며, 원작소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출판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1980년대를 거치면서 독자층이 증가하고 대형 베스트셀러가 늘어나면서 한국출판산업은 본격적으로 산업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인기 작품의 저자층도 기존의 작가에서 대기업 회장, 성직자, 시인, 전문가 층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80년대 초 정부는 '국민독서생활화'를 추진했고, 1982년 9월에는 문교부가 각급학교의 독서생활화를 지도할 총 2,858종의 〈학생 독서지도 도서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도서목록에는 초 · 중 · 고별 권장도서가 예시되어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의 책을 읽혀야 할 것인가를 안내해 주고 있었다.(18) 이렇게 1980년대 초반에 학교독서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독서환경은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학교 독서환경의 열악성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인 입시 경쟁 교육에 큰 원인이

(17)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네이버캐스트〉, 오늘의 문학, 1982년 베스트셀러.

(18)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1983, p.81.

있다. 중 · 고등학교는 여전히 입시교육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독서를 위한 장소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습실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 현실이 학교 도서관의 독서 환경 및 장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1988년도에 논술시험이 없어지게 되자, 학교 독서지도 시간을 폐지하는 등 독서교육이 소홀해지는 현상이 더욱 확산됐다.(19)

1980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123개가 되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인구 수 3,744만명을 고려해 볼 때, 1관당 서비스해야 할 인구수가 317,364명에 이르는 것이다. 아직도 선진국은 말할 것 없이, 개발도상국에서 출판문화가 앞선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숫자였다.(20) 1984년에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합하여 144개에 불과하며, 인구 26만7천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87년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던 공공도서관의 숫자도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20개관,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36개관이 늘어나게 되었다.

1982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인을 위한 독서 생활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독서자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7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교양도서 27권을 발표하기도 했다.(21) 1980년대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은 〈어린이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 방학 중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어린이 독서교실'은 인기를 얻어 접수 창구에서 전날부터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밤을 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22)

또한 1980년대부터 공공도서관은 주부들을 위한 각종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일례로 1981년 남산도서관은 '강남독서회', '남부독서회', '상상독서회' 등의 주부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1984년 한국학생도서관은 '주부도서실'을 마련하여 주부독서강좌나 주부독서회 등을 운영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방송사들의 도서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3년에 MBC와 KBS,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대형도서전을 개최했다. 먼저 MBC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19) 윤금선, 앞의 논문, p. 527.

(20)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1981, p.99.

(21) 김두식, 「한국출판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88. pp.78~81.

(22)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p.160.

함께 〈제26회 전국도서전시회〉을 공동개최하여, 역대 최대규모의 도서전이 되는데 일조했다.[23] 그리고 도서전을 측면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독서 기획 시리즈를 잇달아 방송하기도 했다. 같은 해 KBS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 〈'83 전국도서 시장〉을 개설하여, 2만 5천여 종의 책을 전시하고, 자사의 아침방송 〈스튜디오 830(제1TV)〉, 〈상쾌한 아침입니다(제2TV)〉 등에 독서와 연계된 방송내용을 내보냈다.[24]

이런 일련의 TV 매체의 도서전 개최 및 독서프로그램 방영은 당시 책을 가까이하고 도서의 구매를 촉진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도 다양한 독서진흥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1984년부터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이 시작되어, 매달 10종의 청소년 도서를 선정하여 각기 300권씩 도서관, 근로공단 지방문화원, 청소년관련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이달의 청소년도서는 각계의 권위자가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의 독서생활화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 함양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YMCA나 흥사단 등 민간단체에서는 일반인들의 효율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84년에 신간 소개 및 서평전문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의 책(계간)』을 창간하여, 전국 중 · 고등학교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1980년대는 언론사의 독서캠페인이 눈에 띠게 두드려졌다. 특히 TV를 통한 일반인 및 청소년 독서특강, 독서토론, 독서진단, 도서전시회 및 독서 캠페인 방송이 늘어나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그리고 신간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본격적인 독서평론활동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신문에서 독서와 출판 관련 란이 고정화된 것도 1980년대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1980년대는 각종 독서클럽 붐이 일었다. 일반인, 학생, 공단 근로자들의 독서클럽 등 다양한 계층의 독서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독서클럽의 활동에는 당시 지명도가 높은 문인인 시인 구상, 소설가 이청준 등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공단 근로자들의 독서클럽이 활성화되었다. 구로공단 및 광명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 근로자 사이에 독서모임이 활발했는데, 일례로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근로자들은 '무지개 독서클럽'을 조직하고 매주 독서회를 개최했다.

(23)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1984, pp.93~94.

(24) 중앙일보, 1983.9.29.

이외에도 1980년대 초에는 좀처럼 책을 대하기 쉽지 않은 직장인과 주부들 대상의 '독서학교'나 '독서클럽'을 통한 책읽기가 활발했다. 당시 독서회는 수강생을 모집하여 독서지도를 하는 '독서학교'와 끼리끼리 모여 책을 읽고 느낌을 주고받는 '독서클럽'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런 독서단체를 통해 독서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대학가의 '북카페' 운동도 주목된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며 책도 읽고 독서토론도 벌이는 '북카페(Book Cafe)' 운동은 성균관대, 홍익대, 신촌, 동국대, 한성대 등 대학가 중심에서 시작되어 지방의 부산, 광주, 청주, 수원 등으로 확산되었다.(25)

문화단체의 독서운동도 1980년대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주부교실중앙회는 '모자독서서클'을 조직하여 운영했고,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부 청소년 독서상담원'을 모집하여 활동케 했다. 또한 일선교사 등의 모임인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언론에 비친 어린이사회』라는 책을 펴내는 등 어린이 독서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서울 YMCA는 '청소년교실'을 열고 독서를 통한 인격지도 및 독서 연구 활동을 펼쳐 나갔다.(26)

특히 어린이도서연구회는 부모나 교사들이 자녀 및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양서 목록을 어린이 전문 서점과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교육 강연회, 글쓰기 강좌, 어린이 문학 강좌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27)

그림12. 1980년대의 베스트셀러 김홍신의 『인간시장』

(25) 윤금선, 앞의 책, pp.92~94.

(26) 윤금선, 「1980년대 전반기 독서운동 사례와 독서경향 분석」, 『독서연구』 19호, 한국독서학회, 2008, pp.266~267.

(27) 중앙일보, 1995.9.5와 1996.6.20.

7. 1990년대 – 사회 · 경제 · 문화의 변화에 대응해 간 출판과 독서운동

1990년대는 1980년대 못지않게 사회 · 경제 · 문화면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그만큼 1990년대는 출판의 경향과 유형이 크게 변화된 시기였다. 우선 독서의 목적이 이전의 교양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바뀐 점이다. 독자들이 책을 통해 추구해 왔던 독서의 정신적 ·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고, 정보 입수 및 오락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 40대보다는 20~30대가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 증가, 컴퓨터 게임의 확산, 케이블 TV방송의 등장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책을 멀리하는 풍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초반의 독서체계는 경제 에세이, 기업 경영이나 미래 정보사회 진단서, 환경 문제를 쉽게 풀어쓴 경제 · 과학 교양도서의 인기가 크게 오르면서,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이념도서는 갑자기 힘을 잃고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마침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붕괴는 이념도서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그 대신에 컴퓨터, 어학, 증권, 재테크, 건강 및 취미 · 오락에 관련된 실용서의 강세는 육아, 요리, 태교, 성생활 등 여성용 실용서로 그 영역을 넓혀 가면서 시장을 주도하였다. 그 내용도 초기의 입문서 수준에서 점차 각 분야의 매니아를 노리는 세분화 · 전문화의 단계로 다양하게 심화 · 발전해 나갔다.

1990년대의 독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1990년 초반은 역사소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명의 허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책으로 100만권 이상이 팔렸으며,[28] 뒤이어 『소설 토정비결』과 『소설 목민심서』도 출간되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소설 동의보감』은 1991년 〈드라마 동의보감〉으로 제작되어(MBC 방영) 큰 감동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설 목민심서』는 2000년 〈드라마 목민심서〉로 제작되어 KBS2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또한 대입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인문학분야의 책들이 주목을 받는 현상도 나타났다. 위기철이 지은 『반갑다 논리』시리즈는 1년만에 200만부가 팔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도 우리 문화와 유적지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며 1 · 2권을 합쳐 200만부 이상이 판매됐다.

---

(28) 동아일보, 1991.11.27

에세이물은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명상류의 작품이 인기를 얻었는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 앞에 놓아 주고 싶은 책"이라는 카피를 달고 서점에 등장하여 3년만에 100만부 판매를 달성하였다. 소설분야에서는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룬 이청준의 『서편제』가 1993년 한국 영화 최초 100만 관객동원이라는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최고의 소설로 부각되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김한길의 『여자의 남자』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화로 인해 끊임없이 화제가 되면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은 번역소설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영화로도 제작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출간 후 2년반 남짓한 기간에 70만부 가량이 팔렸고, 『좀머씨 이야기』는 1996년말까지 70여만부가 판매되기도 했다. 국내작가의 소설로는 핵개발을 주도했던 과학자의 죽음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스토리로 만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200만부 이상 팔렸으며, 컴퓨터 통신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책으로 다시 출간한 『퇴마록』도 60만부 이상 팔린 화제작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이 인기를 얻었다. 잭 켄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인간적인 소통, 나눔, 베품 등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30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도 삶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출판물로 인기를 얻었다. 또한 『오체불만족』은 지독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자의 인생관을 잘 그려내며 하루에 1만부 이상씩 판매되기도 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는 실직과 병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애절한 가족사랑을 그려 IMF 구제 금융으로 잔뜩 움추려진 독자의 마음을 녹이는 책으로 주목받으며 200만부 가까이 팔렸다.

1990년대는 페미니즘 계열의 출판물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전여옥의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이주향의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등이 높은 판매량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으로 교육 정책이 바뀐다. 1992년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경향이 바뀌게 되어, 언어영역의 경우 특정과목에 편중하지 않고, 교과서 밖에서도 폭넓게 출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교과서에만 얽매이지 않고, 문학, 사회, 과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평소 두루 읽어 폭넓은 교양을 쌓아야 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고교들이 자율학습을 이용하여 주 1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29]

(29) 동아일보, 1992.10.30.

또한 1996년에 새로 시행된 고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에는 '독서' 과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독서 교과서의 서술 방향이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치우쳐 있어, 시대에 맞는 독서 교육이 자리잡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중고교 시절의 독서와 관련된 과목도 독서와 동떨어진 입시 점수를 더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한편 1987년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은 1991년 〈도서관진흥법〉, 1994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법안의 개정으로 문화부 내 도서관전담부서가 생기고, 지역사회 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도서관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고, 도서관계를 비롯해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30)

이러한 도서관 환경의 개선 노력 결과, 1998년 말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380개가 되었다. 그리고 1개의 공공도서관이 맡아야 할 봉사대상 인구도 평균 약 12만명으로 낮춰졌다. 이러한 성과는 1991년부터 549.5억원을 투입하여 185관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공공 도서관의 환경은 장서수와 관련예산에서 큰 변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 읽거나 공부하는 장소로만 이용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독서지도는 물론 주부,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의 필요성과 책 선정 방법 등의 강좌를 개설했으며, 한밭도서관은 어학 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사랑의 책 돌려보기 운동, 독서회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앞장섰다. 또한 대구 시립도서관은 향토 문인 자료 코너를 설치하기도 했다.(31)

1990년은 그동안 중단됐던 전국 규모의 도서전시회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서울도서전〉이란 이름으로 다시 열렸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90 서울 도서전〉은 잡지광장, 음향도서 코너, 전자출판 플라자 등 특별전시대를 마련하여

(30) 1991년에 개정된 '도서관진흥법'의 주요내용은 ① 도서관진흥책을 출판 · 어문 · 저작권 업무와 연계추진하고 ② 도서관이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③ 국립중앙도서관 기능을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확충하여 납본관리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등을 맡게 하고 ④ 공공도서관은 이동도서관 · 대출문고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봉사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92, p.95.

(31) 윤금선, 「1990년대 중후반기 독서대중화운동 연구」, 『우리어문연구』 32호, 우리어문학회, 2008, p.565.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32)

1993년에 열린 〈서울도서전〉은 '책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책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700여 국내 출판사와 300여 외국출판사가 333개의 부스를 설치해 30만 종의 책을 전시하였다. 한편 지방 독자를 위한 순회도서전도 열려 청주, 대전, 전주, 대구,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두 달 남짓 열렸다. 〈'93 서울 도서전〉은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만남, 외국 우수도서전 등의 특별전시를 마련했으며, 별도로 도서상품권 홍보관을 마련하여 새로운 독서인구도 창출하고 건전한 선물문화도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도서전〉은 1995년에 와서는 국제 도서전이란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1995년 5월 17~23일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에서 1000여개의 출판사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모두 25만권의 도서를 출품했고, 미국 · 영국 · 일본 등 20개국의 500여 출판사가 5만권의 해외도서를 전시하기도 했다.(33)

그리고 19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수년 동안 '독서 새물결운동'이 추진되었다. '독서 새물결운동'은 출판계 · 도서관계 · 독서운동 단체 · 청소년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첫째 독서환경 조성 사업, 둘째 독서방법 개발 및 독서정보 안내 사업, 셋째 독서생활화 사업, 넷째 독서공간 확보사업, 다섯째 청소년 독서진흥사업, 여섯째 책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사업 등 6개 중점 사업을 펼쳐 '책읽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자발적 독서운동이었다.(34)

'독서 새물결운동'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1995년에는 독서환경 조성사업, 독서생활화 사업, 독서공간확보사업, 청소년 독서진흥사업, 해외동포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 사업 등이 추진됐고, 1996년에는 〈독서새물결소식〉지 제작 · 배포, 독서대상 선발, 작은 문고에 책을 채우자, 국민독서실태조사 등을 전개했다. 또한, 1997년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 독서대상 선발, 해외동포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 작은 문고에 책을 세우자, 독서지도사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도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한 독서캠페인이 보다 확산되었다. 신문사는 독서소개 지면을 통해 다양한 독서 관련 기사를 제공하였고, 독후감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32)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1991, p.103.

(33)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p.429.

(34) 대한출판문화협회, 위의 책, p.218.

중앙일보는 1998년부터 매년 국민 모두가 읽을 만한 좋은 책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35] 방송에서도 신간 안내와 함께 서평을 곁들이고, 작가와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독서토론회를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방송국 자체에서 문학캠프를 열고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EBS는 위성 1TV에서 '즐거운 책읽기'와 '책이 있는 스튜디오' 등 학생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독서 정보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며, KBS1TV도 독서 전문 프로인 'TV책방', '책으로 만든 TV'에서 신간 소개, 작가와 화제작, 명사 독서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방영했다. 그런데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라디오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EBS-FM의 '책 나라 여행'과 '책과의 만남'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었고, SBS-FM의 '김영수의 책하고 놀자', KBS 1라디오의 '책마을 산책'과 2라디오의 '라디오 독서실'등이 성인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36]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생겨나기도 했다. 1991년에 탄생된 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의 '한우리 독서 문화대학'은 직장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회원을 모집하여 매달 필독서 2권씩을 읽고 독후감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는 독서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민간기업의 독서교육 및 독서장려 활동도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일례로 진로그룹은 '독서통신교육과정'이란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사의 필독서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업무활동에 반영하도록 했다.[37]

이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는 전 국민 독서생활화와 청소년 독서 정착을 위해 각종 독서상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독서운동추진위원회는 '독서대상'을 매년 실시하였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하철 독서마당도 개최되어 1999년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55개 역에 독서마당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얻었다.

각종 문화단체들도 독서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는 '독서토론대회'와 '고전 읽기 백일장'을 개최해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고전 읽기 운동을 다시금 일으켰으며, 동네 주부들이 서재나 거실을 개방하여 독서지도, 동화 구연 등을 하는 '동네 어린이 도서실' 붐도 이 당시 문화단체들에 의해 발의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38]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하이텔 주부 동호회 '좋은책 모임'에서도 회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35) 중앙일보, 1998.6.23.

(36) 한국일보, 1999.7.7.

(37) 세계일보, 1995.2.16

(38) 윤금선, 앞의 책, p.163과 동아일보, 1997.9.9.

외부강사의 강연회나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평소에 통신으로 좋은 책을 서로 소개하고 독후감을 나눴으며, "낱권의 좋은 책을 사보는 방향으로 책 문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했다.(39)

한편 1990년대 어린이를 위한 독서운동 단체로는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단체는 부모들이 앞장서서 동화책을 먼저 읽은 후, 좋은 책은 권장하고 나쁜 책은 가려내는 이색 모임으로서, 1980년대 초반 단체가 결성됐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또한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던 '어린이도서연구회'도 1990년대에 전국을 돌며 '어린이와 책' 문화 행사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국내 작가가 쓴 책을 읽도록 하는 행사, 독서강연회 등을 열었다.

독서캠프가 활성화된 것도 1990년대 중후반기의 독서운동이 갖는 특성이다. 독서캠프는 주로 여름방학 때 자연을 접하면서 학교수업에서 소홀했던 독서 및 독후감쓰기, 연극으로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는 야외 독서활동이다. 이런 캠프를 주최한 단체들을 보면, 어린이 도서연구회의 '숲속나라 동화캠프', 한우리 독서문화운동 본부의 '여름독서캠프' 등이 있었고, 전국의 지역도서관이나 어린 전문도서관, 아동도서 출판사 등도 여러 형태의 독서캠프를 개최하였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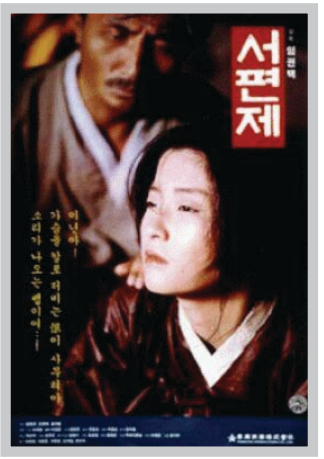


그림13. 이청준의 『서편제』가 1993년 한국 영화 최초 100만 관객동원이라는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최고의 소설로 부각되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39) 경향신문, 1998.7.23

(40) 윤금선, 앞의 논문, pp.557~558.

8. 2000~2010년대 – 디지털 환경 변화 속의 출판과 독서운동

디지털 시대인 2000년대를 맞아 출판계는 일대 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출판의 디지털화는 컴퓨터 조판과 편집, 전자출판, 온라인 서점, 이북(e-book), 스마트폰, 디지털 교과서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2011년 현재 급속한 스마트폰 열풍과 태블릿 PC 보급의 확산은 아직 본격적인 전자책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양질의 출판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와 다양한 디지털 독서 생태계 조성이 과제로 남지만 디지털 출판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르익게 하고 있다.

2000년대의 독서 경향을 살펴보면, 그 시작인 2000년부터 밀리언셀러가 네 종이나 등장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책벌레로 만든 '해리포터' 시리즈, 영어공부 패러다임을 크게 뒤바꿔 놓은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눈물겨운 부성애를 다룬 『가시고기』, 돈과 부자라는 말을 공론화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이 100만권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2001년에는 방송역사상 가장 많은 독서 붐을 일으킨 〈느낌표〉의 책 코너가 등장하면서 출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1월 10일 첫 전파를 탄 〈느낌표〉의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에 소개된 책들 중에서 『아홉살 인생』, 『괭이부리말 아이들』, 『봉순이 언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이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르며, 느낌표에서 방송되는 책들에 독자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기는 대중 소설이 득세했지만 본격소설은 전반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시고기』, 『국화꽃 향기』 등 이른바 대중소설이 밀리언셀러가 되었지만, 본격문학 진영에서는 『아주 오래된 농담』과 『한강』을 제외하고는 별 힘을 쓰지 못했다. 한 도매상의 경우 상위 베스트셀러 300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해졌고 출판 상업주의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마시멜로 이야기』, 『배려』 등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외치는 '성공우화', 극히 제한된 시간의 만남으로도 정신적 사랑의 극한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죽음 직전에 놓인 수백 명의 '육성'을 담아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수업』, 행복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와 사진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나만의 행복을 찾는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한 『행복한 이기주의자』, 뇌에 대한

인문서 『뇌의 기막힌 발견』, 『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 등의 자기만족서가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빈치 코드』, 『향수』 등의 영화 제작은 책의 판매부수를 크게 늘려 출판과 영상의 결합이 출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는데,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달콤한 나의 도시』, 『아내가 결혼했다』, 『뿌리 깊은 나무』 등도 소설과 영상이 결합한 예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강타한 2008년 가을 이후 미국발 자기계발서들이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소설이 출판시장을 휩쓸기 시작했다. 『엄마를 부탁해』, 『당신의 조각들』, 『눈먼 자들의 도시』, 『흐르는 강물처럼』, 『신』 등이 거의 한꺼번에 출간되어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모두 소설이 차지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연재한 소설 『개밥바라기별』과 『촐라체』가 화제가 되면서 여러 작가들이 대거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서점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어 『즐거운 나의 집』, 『연을 쫓은 아이』, 『리버보이』, 『완득이』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200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의 자율적 선발이 강화되자 다시 독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도 대학 입시 개선안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켜 대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피력하자 그 파장은 더욱 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 · 중 · 고교 추천도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기타 여러 관계 단체에서도 추천도서 목록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경우 강원대는 2001년도에 국내 대학 최초로 독서분야 인증제를 도입했다. 독서하지 않는 풍토를 쇄신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일정 수준의 책을 읽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다. 전북 만경여고 학생들은 3년 동안 최소 100권의 책을 읽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 구남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책읽기에 흥미를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독서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필독서는 '명예 독서교사'와 학생들이 뽑은 추천서들이었고 읽은 정도에 따라 1~3급의 독서인증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2000년대는 전대에 비하여 독서교육이 보다 다양하게, 또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풍토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이 보다 첨단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지식경영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도서관 정보화 추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특징이다. 이 덕분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정보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이 훨씬 줄게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 공간의 정보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도서 대출과

독서토론회, 각종 문화 강습반 등 소모임 활동을 유도하여 독서풍토를 형성하는 데 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한편 2003년도에 국회에서는 "국가는 각급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을 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도서 구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수와 예산 등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수는 1999년에 400개였던 것이 2000년에 420개로 늘어난 것을 바탕으로 10년간 306개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703개가 되었다. 공공도서관 운영예산도 1999년 약 1,642억2,602만원으로 집계된 이래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5,683억7,885만원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는 출판계와 서점들의 독서운동이 위축된 상황과는 달리, 매체운동은 비교적 활발했다. 특히 방송매체를 통한 독서프로그램이 활기를 띠었다. 먼저 2000년도에 KBS1 라디오의 '이주향의 책마을 산책'은 독서인구가 줄고 인문서적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이었다. EBS는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을 신설해 신간정보를 알려주고 매회 한 사람의 저자를 초청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꾸몄다.

이후 TV 독서프로그램이 연달아 방송되기 시작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KBS1의 'TV, 책을 말하다', MBC의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가 방영되었고, 2002년도에는 EBS '책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어 MBC의 '행복한 책읽기'가 가세했다. '책을 읽읍시다'에서 소개한 『괭이부리말 아이들』, 『봉순이 언니』는 방영 당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제치고 나란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책의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TV에서의 책 관련 프로그램은 책 시장 확대와 그 시장의 왜곡이라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지만 독서 대중화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신문 저널에서도 양서 추천 활동이 활발했는데, 일례로 중앙일보사는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좋은 책 100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독자에게는 양서를 소개하고 출판인에게는 출판 의욕을 북돋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외에 몇 가지 주목되는 독서운동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2002 메트로 북메세'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마침 월드컵 행사와 맞물려 외국인들에게 국내 출판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문화관광 상품이 되었다. 한편 2005년부터는 '와우북 페스티벌'이라는 책의 축제가 홍대 앞 길거리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독자가 저자를 만나고 다양한 책 관련 문화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서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또 군 병영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주는 '진중 도서관 건립 운동'이 펼쳐졌는데, 2003년까지 모두 14곳의 진중 도서관을 개관했다. 국방홍보원 국군방송에서도 주간 독서 프로그램 '책마을 사랑방'을 장병과 일반 청취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2000년대 독서운동의 전반적 경향을 보면, 먼저 도서관의 정보화사업은 이전 세대에 비해 보다 첨단화되었는데, 이러한 정보화 추진 사업들은 지식경영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정보 수요자의 시간과 노력이 훨씬 줄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 방송 매체 등에서도 독서 대중화에 앞장섰다. 학생 독서운동은 아동 대상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그러면서 아동 도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일어 수도권 곳곳에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서점들이 여러 개 운영되었다. 또 단체나 신문 저널, 인터넷 등에서도 학생 독서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도 했다. (41)

이상으로 우리 출판과 독서운동이 개화기부터 2010년대인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떤 흐름을 견지해 왔는지, 또 우리 출판과 독서운동이 각 시대별 역사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독서는 출판의 소비 양식으로서 출판의 생산적 결과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독서운동은 책을 읽는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운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판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책의 수요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림14. 최근 전자책 시장이 전용 단말기에 이어 스마트폰 등으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에따라 출판과 독서의 영역과 내용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림15. 독서운동은 책을 읽는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운다.

(41) 윤금선, 앞의 책, 282쪽.

대한민국 남성들은 무엇을 읽어왔을까?
– '독서구락부'에서 '느낌표'까지 –

채 석 용 Chae, Seok-yong
대전대학교 국어교양교육 교수
csylogos@dju.kr

02

1. 제대로 읽고 있는가?

독서에는 흐름이 있다. 자기가 읽는 책을 스스로 택했다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누군가의 권유, 혹은 강압에 의한 선택이거나,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수동적 선택이 대부분이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자. 당신 곁에 놓인 그 책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 당신의 곁에 놓이게 되었는가? 예스24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클릭한 결과이지 않은가? 수천 개의 리플이 달린 것만 믿고 무심코 카트에 담은 결과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런 흐름을 탓할 수만은 없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상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부족할 경우 자칫 독서는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내맡기는 자기 모멸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어떤 책을 읽었고 왜 그렇게 읽게 되었는지 되새겨본다. 그래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지금 우리의 독서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의 독서행태를 비판적으로 되새길 줄 알아야 자신에게 걸맞은 양서를 택할 시야를 확보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살펴본다.

전거는 저널, 특히 신문을 통해 확보했고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독서 경향을 더듬어보았다.

2. 일제강점기 남성들의 두 가지 독서 경향

일제강점기 조선인 남성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의 극복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근대화였다. 그런데 이 두 과업은 동시에 진행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다. 식민 지배의 극복을 중시하는 입장에선 일제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가 부정의 대상이었으며 근대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선 식민 지배가 일종의 필요악이었다. 식민 지배 극복이 위정척사(衛正斥邪) 세력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근대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결국 친일행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남성들의 독서 경향 역시 식민 지배 극복과 근대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대적 과업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식민 지배 극복을 최우선의 과업이라 간주한 부류와 근대화를 최우선의 과제라 간주한 부류의 독서 경향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1) 대도시 도서관 중심의 독서운동

먼저 살펴볼 것은 도서관 중심의 독서운동이다. 도서관은 경성, 인천, 평양,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서관 설립의 주체는 대부분 조선총독부 및 그 지배를 받는 지방 행정 당국이었다.
조선에 근대적 도서관이 설립된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朝鮮總督府圖書館), 경성부립도서관(京城府立圖書館)과 그 분관(分館), 철도도서관(鐵道圖書館),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 인천부립도서관(仁川府立圖書館),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 등의 도서관이 있었다. 평양에 세워진 인정도서관을 제외하면 모두 관립도서관이었으며 경성에 있는 도서관들은 모두 유료로 운영되었다.[1]

(1)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 운동 연구」,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2005년, 132쪽.

그림1. 조선총독부도서관 대출기록카드봉투
http://cafe.naver.com/antimaker/113623

도서관이 총독부에 의해 관리되었으므로 당시 남성들의 독서 경향 역시 총독부의 의도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독서 경향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문학 중심의 독서'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23년 5월 9일자 「인천의 독서 경향. 4월중 인천부립도서관의 상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문학과 어학 방면 독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아일보〉 1931년 1월 26일자 「독서경향 최고는 소설」이라는 제하의 기사 역시 "소설종류가 전체의 칠십 퍼센트란 압도적 다수"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도서관 이용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계층은 학생이었으며 학생 다음으로 도서관을 많이 찾은 직업군은 노동자들이었다.[(2)] 노동자들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그들에게 있어 최우선의 과제는 식민 지배 극복보다는 개인의 생존이었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밑거름이요 식민 지배를 근대화

(2) 〈조선일보〉 1928년 12월 24일자 「경성에서 본 독서계」.

과정으로 포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일꾼들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 도서관이 주도하는 독서운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일보〉 1937년 1월 16일자 〈독서연맹창립 사회교육과주재로〉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얼마나 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청구학회(靑丘學會)를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식민지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조선어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던 시점이었다. 일제는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고 1941년에는 그보다 더욱 강화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까지 공포함으로써 민족말살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그 사이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회원과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회원 등이 검거되었으며 급기야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림2. 조선어학회에서 펴낸 『조선어표준말 모음』
http://onhangeul.tistory.com/355

이러한 민족 말살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유독 도서관에서만큼은 독서운동을 장려했다는 것은 그만큼 독서운동이 민족 말살정책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임을 방증한다. 당시 도서관에서 조선인 남성들이 주로 읽은 책들이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사』, 이광수의 『사랑』, 김유정의 『동백꽃』, 박종화의 『금삼의 피』 등의 문학작품이었다는 사실[(3)]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대출 현황뿐만 아니라 도서의 판매 현황을 통해서도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3) 〈조선일보〉 1939년 4월 30일자 「도서관의 대출상태」.

있다. 〈조선일보〉 1936년 10월 29일자 「추야장(秋夜長). 등화(燈火) 밑에 독서」라는 제하의 기사는 "화서(和書: 일본서적)에 있어서는 수필(隨筆)이 단연 제일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시도한 문학 중심의 독서 풍토가 출판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총독부는 직접 '국책도서'를 지정해서 읽도록 유도하기도 했다.(4)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에는 독서 경향이 문학에서 점차 사학(史學) 및 자연과학으로 옮겨가는 추세였다. 〈동아일보〉 1939년 6월 11일자 「문학에서 사학으로」 제하의 기사와 〈동아일보〉 1940년 5월 5일자 「자연과학에 관심 대구도서관에 나타난 독서경향」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연과학에 관심, 대구도서관에 나타난 독서경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제일 우세한 것은 역시 문학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역시 일제의 식민정책과 양립 가능했다. 일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조선인들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상 분야 서적이었고 이들에 대한 독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었다.

요컨대 당시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들에게 있어 독서란 식민 지배의 극복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활동, 혹은 개인의 취미 생활이었으며 이러한 독서 경향은 문화식민정책을 펼치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강하다.

2) 농촌 중심의 '독서구락부 운동'

도서관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에서의 독서운동과 달리 농촌에서의 독서운동은 '독서구락부'라는 독서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독서구락부는 경성에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설립되었다. 1924년 개성(開成)의 봉곡(鳳谷) 지역에서 청년독서구락부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5) 마산과 전주 등지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다양한 독서구락부가 설립되었다.(6)

각 지역에서 결성된 독서회는 초기에는 주로 농촌 계몽과 과학 지식 함양 등 교양의 증진을

(4) 〈조선일보〉 1939년 6월 5일자 「문부성에서 도서추천 매일 위원회 열고」.

(5) 〈동아일보〉 1924년 1월 27일자 「봉곡청년열성」.

(6) 〈동아일보〉 1925년 1월 19일자 「독서회창립」, 〈동아일보〉 1925년 3월 16일자 「삼일독서구락부」.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사회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독서구락부도 있었으나[7] 중심은 독서 자체였으며 구체적인 사회활동으로까지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온건한 형태의 지역 독서운동 차원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 1925년 5월 13일자 「강경(江景)에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독서구락부가 결성된 이유에 대해 "과학연구(科學研究)가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온건한 형태로 순수한 독서 모임의 차원에서 결성되고 운영되어오던 독서구락부가 정치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1929년 발생한 광주학생운동 이후였다. 당시 광주학생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석천(張錫天)이 학생 세력을 규합하고 학생운동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조직이 바로 1929년 결성된 독서회였다.[8] 광주학생운동의 또 다른 주모자인 김현표(金顯杓) 역시 독서구락부를 중심으로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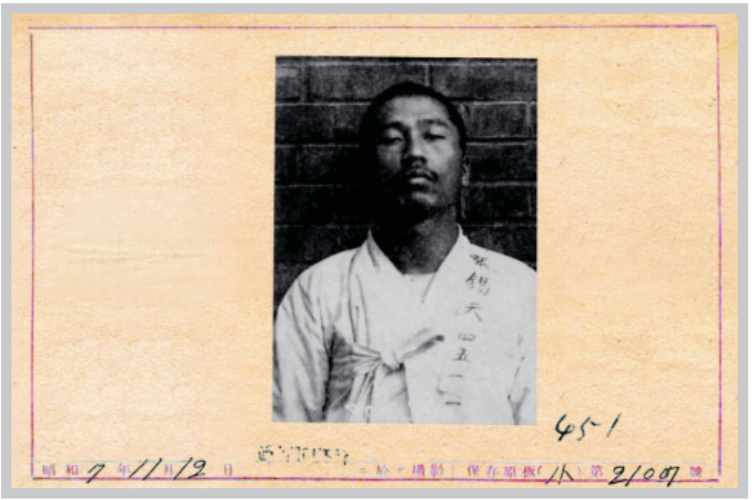


그림3. 광주학생운동의 중심인물 장석천
http://newswire.seoul.co.kr/newsRead.php?md=A02&tm=4&no=437343&cat=122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독서구락부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운동이 이론적 근거로 삼은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7) 윤금선, 앞의 논문, 158쪽.

(8) 〈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자 「소위독서회관계자(所謂讀書會關係者)는 장석천외백입칠명(張錫天外百卄七名)」.

(9) 〈동아일보〉 1936년 7월 3일자 「김현표공판(金顯杓公判) 이년반판결(二年半判決)」.

응징하는 최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독서구락부운동은 급기야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조선 총독부는 이들 단체를 강력하게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서적을 적색서적(赤色書籍)이라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동아일보〉 1932년 3월 1일자 「반제동맹(反帝同盟) 독서회발각(讀書會發覺) 각지(各地)로 검거망확대(檢擧網擴大)」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그들에게는 대개 비밀출판물인 적색서적이 발견되었으므로"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동아일보〉 1934년 6월 19일자 「반제(反帝) 적로재건(赤勞再建) 해주독서회공판(海州讀書會公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도 이들에 대한 탄압이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독서구락부 활동이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서운동은 그 중심에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있었으며 독서의 대상은 주로 문학작품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독서운동은 궁극적으로 근대적 식민지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반면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서운동은 독서구락부라는 자치조직이 그 중심에 있었다. 독서구락부는 문학보다는 사상의 개조를 추구하여 사회사상서적, 특히 사회주의 사상서를 주된 독서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단순한 독서 결사체에 머물지 않고 결국 정치적 결사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문학책을 주로 읽은 도시인들은 식민 지배체제를 용인하고 근대화에 매진하였고 사상서를 주로 읽은 농촌인들은 식민 지배체제에 격렬히 저항하였다.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사상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일제강점기 독서경향을 통해 새삼 확인한다.

3. 식민의 상흔과 극복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식민 지배를 청산했다. 오랜 염원을 성취함에 따라 성인 남성들의 독서 경향 역시 크게 변화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도시 남성들의 독서 경향이 크게 변화했으리라 여겨진다. 앞에서 우리는 식민 지배 시절 도시 남성들의 독서 경향을 '도서관 중심의 문학책 읽기'라 규정한 바 있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도시 남성들이 사상과 철학에 관심 갖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사상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식민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책도서까지 선정하였으며 식민 지배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도록 문학책 읽기만을 장려하였다. 도시의 남성들은 철저히 이런 문화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과연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도시의 남성들은 일제에 의해 유도된, 혹은 강요된 문학책 읽기 중심의 독서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첫째 물음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당시 농촌에서는 독서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사상서 읽기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서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은 농촌을 계몽하고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일제는 독서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식민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독서운동은 깊은 침체에 빠졌다.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독서구락부 탄압 정책에 따라 이후엔 독서구락부에 관한 기사 자체가 신문에서 사라졌다. 독서구락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가 추구했던 식민의 극복이 달성된 후 과연 농촌에서의 독서 경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것이 둘째 물음이다.

1) 깊고 깊은 식민의 상흔

해방 후 도시 남성들의 독서 경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다. 〈조선일보〉 1968년 8월 15일자에 실린 「20년을 지켜본 눈 서민은 증언한다. 독서경향-국립도서관 李宜瑛(이선영)씨」라는 제하의 기사가 그것이다. 당시 63세였던 이선영 씨는 식민 시절부터 당시까지 무려 37년째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했던 도서관의 산 증인이었다. 그는 해방 이후의 독서 경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 "시대는 바뀌어도 독서경향은 그대로."

그의 짤막한 증언에 해방 이후 성인 남성들의 독서 경향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증언은 해방 이후 도시 남성들의 독서 경향이 진일보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만큼 식민의 상흔은 깊고 깊었다.

그는 "건국 당시나, 자유당(自由黨) 때나, 4 · 19, 5 · 16 이후를 막론하고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어학과 문학 관계 서적들이며, 그 다음은 잡지나 사전류였다."[10]고 증언한다. 이선영 씨는 이러한 "이야기책" 중심의 독서 경향은 독서 발전 단계 가운데 초보 단계에 머무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보다 진일보한 "비소설류 독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1]

산知識으로消化되고있나?

國立圖書館의實態

	6月	7月	8月	9月
全書・雜誌	10,137	6,652	9,106	9,488
哲學・宗敎	1,598	1,438	1,549	1,233
歷史・地誌	2,356	3,358	4,264	2,952
語學・文學	7,800	9,258	10,353	7,513
美術・演藝	268	328	114	212
社會・敎育	677	669	821	948
政法・經濟	2,507	2,547	2,237	2,335
理學・醫學	3,153	2,745	3,109	2,809
工學・工業	488	696	598	486
産業・交通	388	444	448	318
計	29,372	28,075	32,593	28,294

西書	905	739	980	623
古典	828	1,967	2,939	1,420
新聞・雜誌	8,290	4,483	7,325	7,020
兒童圖書	3,985	6,070	5,573	4,390

그림4. 〈동아일보〉 1957년 10월 15일자 〈국립도서관의 실태〉에 관한 기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캡처)

당시 독서의 중요성과 문맹 퇴치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도서관이 활발히 건설되었고 이들 도서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독서운동이 전개되었다. 해방 이전 남한 지역의 도서관은 모두 41개에 불과했으나 1957년에는 113개, 1960년도에는 133개로 증가되었다.[12] 이들 도서관들은 '독서주간' 운동[13]을 실시함으로써 문맹 퇴치와 독서진흥 운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식민시대의 관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해방을 맞았지만 여전히 식민 시대와 마찬가지로 문학책 중심의 독서 경향에서 벗어나지

(10)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6년, 358쪽에서 재인용.

(11) 윤금선, 앞의 논문, 359쪽.

(12) 윤금선, 앞의 논문, 335쪽.

(13) 독서주간 운동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1956년 11월 19일자 「21일부터 독서주간(讀書週間)」 제하의 기사 등 수백 건의 기사들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아일보〉 1965년 7월 6일자 「현해탄(玄海灘)에 물결 높다. 한일협정조인(韓日協定調印) 뒤에 오는 것(8) 대중문화(大衆文化)의 침투(浸透)」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찾아온 어느 일본인(日本人)은 '이국(異國)에 온 것 같지 않다.'고 뇌까린 일이 있다. 주위(周圍)의 짙은 일본색(日本色)을 두고 한 말이다. 음식(飮食)에서 시작하여 언어(言語)까지 실제로 일인(日人)들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해방을 맞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일본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니 일본의 문화는 오히려 장려되었다. 기사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다.

> "적지 않은 수의 출판사(出版社)가 교과서(敎科書)와 일본대중소설(日本大衆小說)의 번역 간행으로 유지된다는 말이 있듯이 잘 팔리는 일본작품(日本作品)에 대한 매력은 더욱 격심한 경쟁만을 일으켜왔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행본(單行本)도 아닌 일간신문(日刊新聞)의 연재소설(連載小說)을, 연재 중에 상권(上卷)으로 번역하는 날쌘 솜씨까지 보여주고 있다. 조일신문(朝日新聞)의 현상당선소설(懸賞當選小說) 『빙점(氷點)』이 그것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베스트셀러에 끼어들었다."

일본에서조차 그 작품성이 의심 받는 『빙점』 같은 부류의 소설이 연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그 일부가 상권으로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에서 당시 독서 경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문학책 중심의 독서경향은 그대로였다. 이는 우리의 예상, 혹은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2) 도서관과 정부가 채우는 독서구락부의 빈자리

1930년대 중반 시행된 대대적인 독서구락부 탄압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독서운동은 깊은 침체에 빠졌다. 식민 지배 극복이라는 과제가 지워진 상황에서 농촌 스스로 계몽에 매진하고자 하는 동력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때 농촌독서운동의 빈자리를 매운 것은 도서관과 정부였다. 해방 이전엔 오로지 농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오던 농촌의 독서운동이 이제 도서관과 정부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전국이 하나로 도서관 중심의 독서운동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농촌의 독서운동은 〈농촌문고〉라는 소규모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동아일보〉 1956년 9월 16일자 「농촌문고(農村文庫)를 설치(設置)」라는 제하의 기사는 "배움에 굶주린 농어촌(農漁村)민의 문화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문고(農村文庫)〉가 전국의 모범 농촌에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십오일 문교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부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에 농촌문고 설치비로 총 삼천칠백만 환을 계상하여 전국의 모범농촌 약 일천육백 개 소를 골라 〈문고〉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와 농촌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독서 운동 경향을 보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변화이다. 바야흐로 독서운동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한 전국적 현상으로 통일되었다.

그림5. 1962년 문교부에서 간행한 〈농촌문고〉
http://www.kobay.co.kr/servlet/wsauction/item/itemView;jsessionid=DFKEMPPPLJJL?item.itemseq=12063XA5BEA

그러나 농촌의 독서운동은 문맹퇴치와 국어 보급 수준에 머물렀다. 문학책 읽기에 편중되었던 도시의 독서 경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게다가 도서관 역시 여전히 도시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농촌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경향신문〉 1969년 6월 28일자 「텅빈 마을문고에 책을 보내자」라는 제하의 기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 "도서관은 지혜의 샘. 따라서 책이 없는 도서관은 물 안 나는 샘처럼 의미가 없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 수없이 세워져 있는 〈마을문고〉란 농촌도서실이 바로 그런 상태. 도시에선 책이 생활의 장식품으로까지 남용되고 있는 판에 전국 농어촌의 말뿐인 〈마을문고〉엔 필요한 책, 유익한 책을 가릴 것 없이 책이 없어 목마르다."

식민 극복이라는 동력을 잃어버린 농어촌은 해방 후 본격적으로 도시의 뒤를 좇는 타율적 독서 경향 양태에 접어들었다. 이제 농어촌 지역엔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위대한 저항운동을 이끈 독서운동 단체가 설 자리가 없다. 도시가 문학책 읽기라는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잔재 속에 안주하는 사이 농촌은 아무런 개성 없이 오로지 도시와 정부가 베푸는 혜택만 바라보는 후진적 양태를 보이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시민혁명은 사상과 철학 중심의 독서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동아일보〉 1960년 5월 25일자 「사오월(四五月) 작품(作品)의 베스트들 상」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월혁명이 우리 지성계에 던진 충격을 설명하면서 그 여파로 『사상계(思想界)』, 『새벽』, 『세계(世界)』 등 격조 높은 종합잡지에 대한 구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잡지의 구독자는 대부분 성인 남성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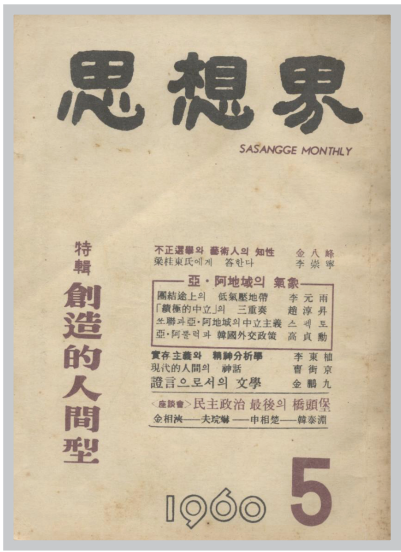


그림6. 〈사상계〉 1960년 5월호 표지
http://unsuk.kyunghee.ac.kr/history/db/mybooks/list.php?page=468

요약하면 이렇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성인 남성들의 독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사라졌다. 도시가 앞서나가고 농촌이 뒤따랐다. 그러나 여전히 문학책 읽기 중심의 식민 잔재는 청산되지 못하였고 그 사이 사상서적에 대한 희망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독서 경향이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쉽게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식민 청산의 의지를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 답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식민 부역자도 처벌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런 부역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어찌 독서 경향만은 식민 잔재를 청산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4.19혁명으로 독서 경향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터진 5.16 군사쿠데타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독서 경향을 다시금 일본의 식민 잔재로 퇴보하도록 이끌었다. 한 시대의 독서 경향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4. 유신과 군사정권 시절의 독서

1961년 5 · 16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2년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장기집권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민주 세력을 억압했다. 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탄압은 늘 성공적이었고 그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근대화와 산업화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979년 자신의 심복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궁정동 안가에서 권총으로 암살당한 박정희의 뒤를 이어 들어선 전두환 정권 역시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한 폭력적 군사정권이었다. 그들 역시 산업화의 성과를 내세워 시민들을 폭력으로 제어했다. 이처럼 군사정권은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유신정권 및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정권은 성인 남성들의 독서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으며 정권의 안위가 국정의 최대 목표일 수밖에 없었던 군사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무슨 책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군사정권의 폭력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세력에 의한 독서 경향의 진일보가 기대된다. 『사상계』를 발간했던 장준하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박정희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살았다. 박정희와 장준하의 대결은 독서경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의 독서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이 첫째 궁금증이다.

둘째, 아무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해도 자본주의가 무르익고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독서 경향 역시 정권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보편적 ·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변화했을 수 있다. 즉 정치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독서 경향이 정치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이 둘째 궁금증이다.

1)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적 독서

해방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독서의 중심은 문학책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이 증폭되었지만 여전히 대세는 문학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1972년 단행된 유신이다. 유신 이후 성인, 특히 그 가운데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에서 사회과학과 사상 · 역사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 〈동아일보〉 1973년 6월 13일자 「대학생(大學生)의 지적(知的) 고민, 독서(讀書)에도 반영. 고답소설(小說), 사회과학서(社會科學書) 관심」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선 당시 상황에 대해 "이청준(李淸俊) 씨의 「소문의 벽(壁)」, 「별을 보여드립니다」, 최인훈(崔仁勳) 씨의 「광장(廣場)」 등 어렵고 고답(高踏)한 소설도 상당히 번지고 있는데 이런 지식인소설(知識人小說)들은 현실(現實)의 고민과 상황에 대한 저항감의 한 반영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제가 남긴 식민의 상흔을 서서히 벗고 깊이 있는 내용의 문학작품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 "이 같은 젊은이의 지적(知的) 고민은 사회과학(社會科學)과 역사학(歷史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박종홍(朴鍾鴻) 박사의 『한국철학사(韓國哲學史)』, 이용희(李用熙) 교수의 『한국회서사(韓國繪書史)』, 대학원(大學院) 국사학과(國史學科) 학생들이 번역, 자비 출판한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기원(徐基源) 외 공저의 『한국(韓國)의 지성(知性)』, 프롬의 『희망(希望)의 철학(哲學)』, 갈브레이스의 『풍요한 사회(社會)』가 회자(膾炙)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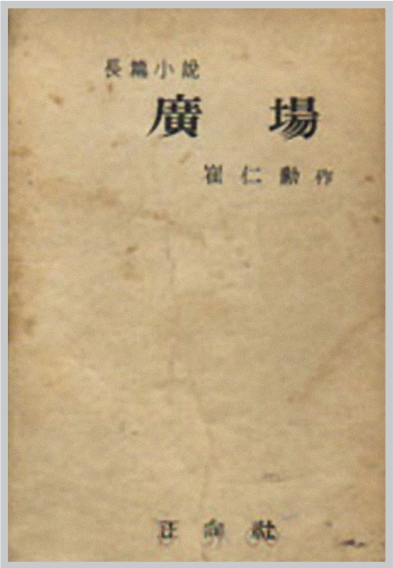


그림7. 최인훈의 〈광장〉 초판본 표지
http://www.ibuybook.co.kr/index.html?menu=view&uid=148271&category=68&category1=%BC%D2%BC%B3&category2=381

군사독재 정권은 국민들을 억압했지만 이런 억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역사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학생이 있었다. 그들은 감성적인 문학서 읽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시대를 변혁할 수 있는 사상에 관심을 돌렸다. 당시 출판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과 역사학 방면 서적들은 대학생과 지식층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읽혀졌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경향신문〉 1980년 2월 7일자 「인문(人文) · 사회(社會)과학 도서(圖書) 출판 활기(活氣)」라는 제하의 기사는 "지금까지 발간된 책 중에서 계속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문사회과학도서로는 74년에 초판을 낸 이후 3만 부를 판매한 『전환시대(轉換時代)의 논리(論理)』(리영희(李泳禧))를 비롯하여 4판까지 찍은 『한국민족주의(韓國民族主義)의 탐구(探究)』(송건호(宋建鎬))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문 · 사회과학에 대한 독자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밖에 위 기사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저서들로 소개된 것들에는 백낙청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과 송건호의 『한국현대사론』, 김용섭의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천관우의 『한국사의 재발견』, 진덕규의 『해방전후사의 인식』, 조동걸의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차기벽의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이기백의 『한국사의 방향』,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안병직과 신용하의 『한국근대사론』 등이 있다. 이들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인문 ·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저서들로서 당대의 독서 경향이 깊이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산이라 평가된다.

2) 독서운동의 다변화와 지식 습득의 다매체화

도서관 중심의 독서운동은 197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독서학교 운동', '악서추방운동(惡書追放運動)', '어린이 독서주간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도서관 이외에 출판계와 대형 서점에 의한 독서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양서 협동조합 운동', '고전 읽기 운동',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책 읽기 캠페인', '양서 읽기 운동' 등이 바로 출판계와 대형 서점 등에 의해 추진된 독서진흥 운동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독서진흥운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대폭 증설되고 관련 법규와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독서진흥운동 역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이 시기 추진된 독서진흥운동으로는 '국민독서생활화 운동', '독서클럽운동', '독서교실운동', '독서주간운동', '개가 및 관외대출운동', '순회문고운동', '자동차 이동도서관운동', '무지개 독서클럽운동', '한마음 독서클럽운동', '독서를 위한 어머니들의 선언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운동'[14] 등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독서진흥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을 모두 합쳐도 능가할 수 없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독서운동이 198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방송을 통한 독서운동이 그것이다. 방송은 매체의 특성상 그동안 독서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TV는 바보상자라 일컬어질 정도로 지식이 아닌 단순한 오락거리만을 제공해주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이 변화했다. 방송은 더 이상 독서의 적이 아닌 독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

〈경향신문〉 1983년 9월 27일자 「〈책은 마음의 고향〉 등 두 차례 380분 생방송(生放送) MBC 독서(讀書) 캠페인 호평(好評)」이란 제하의 기사는 이런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 "MBC TV가 18, 25일 두 차례에 걸쳐 벌였던 독서캠페인 〈책은 마음의 고향〉과 〈책은 마음의 선물〉 생중계는 영상매체인 TV가 활자매체인 책의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캠페인 방송으로는 최장시간인 3백80분이라는 기록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참뜻과 TV효과를 살린 유익한 프로로 시청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14) 윤금선, 「1980년대 전반기 독서운동 사례와 독서경향 분석」, 『독서연구』 (19), 한국독서학회, 2008.6.

MBC 讀書캠페인 好評

「책은 마음의고향」등 두차례 380분生放送

MBC TV가 18.25일 두차례에 걸쳐 벌였던 독서캠페인「책은 마음의 고향」과「책은 마음의 선물」생중계는 영상매체인 TV가 활자매체인 책의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캠페인방송으로는 최장시간인 3백80분이라는 기록이외에

방송街

MBC TV의 독서캠페인 프로에 각계각층서 많은격려와 도서가 기증됐다.

독서의 생활화 방안등 설득력있게 전개

시청자와 對談통해 책못읽는 理由밝혀

각계각층서 격려의전화…많은책보내와

도 공영방송의 참뜻과 TV효과를 살린 유익한 프로로 시청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MBC는 해마다 구호로만 외쳐오면 소극적 독서운동을 탈피하고 전국민의 독서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캠페인방송을 기획, 지난18일상오9시30분부터 2백분간「책은마음의고향」을 방송했다.첫 방송이 나가자 각계각층에서 격려의 전화와 기증도서가 답지하자 25일에는 책모으기캠페인프로

5가지로 집약했다.

시간부족, 입시준비, 과다한직장업무, 독서환경의미비, 비싼책값등이 그것. 이에 대해 趙龍衍 金南郁씨등 5명의 대담자들은「독서의 생활화」「부모의 독서지도」「독서환경및 시설투자개선」등의 대안책을 설득력있게 전개했다. 이들은 특히 독서를 취미로 생각하는 일반의 소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日本人의 독서열과 美國의 도

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의 책소개 프로인「아포스트로피」가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의 방송문화에 시사하는바가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MBC는 지방네트워크를연결, 근로자들의독서모습, 장서가 이야기, 문학서클순례등을화면에담는 기동성을 살려 자칫 도시시청자에게만 편중되기 쉬운진행을 전국 구석구석까지 넓혀 다원 방송의 효과를 십분발휘했다.

그림8. MBC의 독서캠페인 프로그램인 〈책은 마음의 고향〉에 대해 보도한 경향신문 1983년 9월 27일자 기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캡처)

이처럼 TV를 통한 독서진흥운동은 1980년대에 등장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바람직했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비롯한 인문 ·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열기와는 반대로 일반인들 사이에선 종교적 구원, 혹은 재미를 추구하는 독서가 주류를 형성했다.

〈동아일보〉 1982년 10월 11일자 「여성들 쉬운 책만 읽는다」는 제하의 기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편 요즘 남자들도 무게 있고 진지한 책을 많이 찾지 않는다. 직장인인 남성들이 문학코너에서 많이 찾는 것은 기업소설류, 『조용한 방 있습니다』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독자의 눈길을 끌고 김홍신의 『난장판』도 관심을 모으는 편"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스포츠와 섹스, 그리고 스크린으로 돌리고자 했던 위정자들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책을 국민들은 이른바 '3S정책'이라 명명하였다. 당시 정권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계몽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국민의 계몽은 곧 군사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방송매체를 통한 획기적인 독서진흥운동조차 결국 표피적이고 가벼운 독서만을 진흥시킨 결과를 빚은 이면에는 바로 이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TV는 독서진흥운동을 추진했으면서 동시에 3S 분야로 연일 국민들을 흥미 위주의 오락거리에만 관심을 갖도록 휘몰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단지 3S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S정책은 가벼운

읽을거리를 선호하게 된 당시 상황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국민들의 경향을 대변하는 결과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6년 거행된 아시안게임과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단순히 정권 차원의 행사가 아닌 거국적인 행사였으며 영화라는 매체의 발달 역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적 현상이었다. 요컨대 당시 3S에 대한 고조된 관심은 시대적 흐름이었으며 가벼운 읽을거리를 선호하게 된 독서경향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다.

그림9. 영화 〈별들의 고향〉 포스터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77B&articleno=1040&categoryId=0&regdt=20120915033436#ajax_history_home

이러한 가벼운 독서 경향과 더불어 당시의 독서 경향에 특이한 점은 베스트셀러 작품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활발하게 각색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 이르러 본격화하였다. 1974년 최인호 원작인 『별들의 고향』이 이장호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하였으며 1983년 11월 6일부터 시작된 MBC의 〈베스트셀러극장〉[15]은 당시 인기를 끈 작품들을 드라마로 제작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른바 문학과 예술의 다매체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15) http://ko.wikipedia.org/wiki/MBC_%EB%B2%A0%EC%8A%A4%ED%8A%B8%EA%B7%B9%EC%9E%A5

유신과 군사정권 시대의 독서경향은 이중적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고급 독서인구가 증가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TV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는 문화적 변화에 발맞추어 가벼운 읽을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시대였다.

5.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시대의 독서

1992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함으로써 길고 길었던 군사정권이 막을 내렸다. 비록 삼당합당이라는 기형적 체제를 통해 달성한 결과이지만 어찌 됐든 김영삼 정권은 합법적인 문민정권이었다.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독서는 깊이 있는 인문 · 사회과학 서적과 가벼운 읽을거리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후자가 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특히 고려해볼 측면이다. 이전까지의 독서는 주로 독서 자체만의 문제였고 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는 정치에 국한됐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독서 경향과 해방 이후의 독서 경향을 통해 이런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독서는 더 이상 정치에만 휘둘리는 영역에 있지 않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독서 역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받았다. 이른바 3S정책은 이런 변화된 양상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는 용어이다. 스포츠와 스크린, 섹스 등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함으로써 독서 경향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다.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비롯한 격조 높은 독서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시대적 흐름은 가벼운 읽을거리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과연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그 양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10. MBC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의 한 장면
Youtube에서 캡처

2001년 11월 첫 선을 보인 MBC의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이하 '느낌표') 프로그램은 전국을 독서 열풍으로 빠뜨렸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TV매체를 이용한 독서운동이 그 절정에 다다른 양상이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재치 있는 진행솜씨 덕분에 '느낌표'는 일약 스타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였고 '느낌표'에 소개된 도서는 즉각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영광을 연속적으로 누렸다. 급기야 몇몇 출판사가 '느낌표'에 자기네 도서를 선정시키도록 로비를 벌인다는 루머까지 떠돌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독서열풍에 빠뜨리게 했다는 점에서 '느낌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평가는 〈미디어오늘〉 2002년 1월 22일자 「MBC '느낌표' 박수 · 야유 한 몸에」라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느낌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독서행위를 특정 도서에 편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느낌표' 열풍은 독서 전반에 대한 열풍이 아닌 특정 도서만을 대상으로 한 열풍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효과가 우려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도서에 편중된 독서 경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를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를 획일화하고 경직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전개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는 전 세계를 표준화와 경쟁의 소용돌이로 휘몰고 있다. 자유로운 교역은 경쟁력 있는 상품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독식체제를 부추긴다. 경쟁력 있는 상품만 살아남고 그 제품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이 곧 세계화이며 그런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이념이 신자유주의이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추세는 더욱 위세를 떨친다. 경쟁력 없는 제품은 곧바로 도태되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이념이다.

'느낌표'는 비록 독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으나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대세에 독서 분야까지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고백의 의미를 가진다. 그 프로에 소개된 도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장된다. 이제 서점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이 아닌 단 하나의 베스트셀러만이 살아남는 정글이 되었다. '느낌표'는 바로 이런 서점의 정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6.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는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교양학부대학에서는 매 학기 〈혜화글쓰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독후감, 영화감상문, 시사평론,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글 솜씨를 겨룬다. 그런데 매 대회 때마다 독후감의 대상이 되는 단골손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난도가 지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다. 학생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 책을 평가한다. 젊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든가, 아픔을 극복할 지혜를 얻었다든가 하는 흔한 내용들로만 넘친다. 글을 읽는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당연히 당선작들 역시 배출하지 못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못지않게 독후감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리딩으로 리드하라』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0.1퍼센트의 인문고전 독서법'이라는 섬뜩한 부제를 단 이 책은 독서법에 관한 서적 가운데 역대 최고의 독보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이라는 나의 책은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요즘은 혜민스님의 작품들이 유행이라고 하니 아마도 이번 학기 독후감의 단골손님은 그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그림11.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표지
http://www.yes24.com/Cooperate/Naver/welcomeNaver.aspx?pageNo=3

그런데 이런 부류의 자기계발서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리딩으로 리드하라』처럼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서 찾고 타인을 이기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강조하는 부류다.

>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내 말대로 하라. 그러면 남을 이기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인문고전들조차 타인을 리드하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강요한다. 삶 자체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타인을 리드할 것인가가 이 책이 골몰하고 있는 목표이다. 제목 자체도 섬뜩하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제목에 가장 걸맞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독서광 히틀러와 스탈린이기 때문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부류의 책들은 이렇게 말한다.

> '삶이 힘겨운가?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그것은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얼른 자신을 챙겨라. 안 그러면 낙오한다.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에게 있다. 세상을 탓하는 당신은 못난이!'

우리는 앞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서구락부'운동의 열망과 좌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탐독했던 인문 · 사회과학서적들의 목록들도 되새겨보았다.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보편적 진실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책을 뒤졌던 소중한 역사이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서점에는 온갖 종류의 '남을 이기는 법을 전수하는 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무슨 무슨 습관들을 나열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습관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라 호통 치는 책들을 읽으면서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자기모멸적이며 몰개성적인 소피스트 시대의 독서가 난무하는 시절이다. 이것이 이 글의 슬픈 결론이다.

신문을 통해 본 여성 독서의 변화상*
– 독서 계몽 대상자에서 독서 선도 주체로

윤 금 선 Yeun, Keum-Sun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east124@dongduk.ac.kr

03

1. 여성교육, 여성독서

근대부터 여성은 아동과 함께 교육받아야 할 계몽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여성 교육에서 독서가 그 무엇보다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독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근대에 있어서 여성은 대부분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 가족의 주부로서 독서보다는 가정 살림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성이 독서를 할 만한 여가를 갖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그 양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여성 독자의 수가 급증해졌다.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남성은 산업 현장에서 자본을 벌어들이는 데 주력하게 되었고, 이제 가정의 주부들은 그 벌어들인 자본을 관리하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보다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이제 계몽 대상이 아니라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독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가 되면서 극대화되는데 독서 시장이 여성 독자에 의해서 좌우되기까지 했으며, 나아가 1980년대부터는 여성이 독서계를 이끄는 선도적인 입장으로까지 변모되었다. 이것은 전 시기에 비하여 고학력자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교육의 수혜 범위가 넓어진 데서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은 사회적인 리더격의 독서자가 된 것이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까지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보다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본론에서는 근현대에 이르는 여성 독서의 궤적을 추적하고, 향후 여성 독서의 방향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연구의 방법은 시대적 상황과 연계시킨 일종의 사회문화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독서 현상이 지배적으로 드러난 저널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2. 계몽 대상의 여성독서 : 일제강점기~1950년대

2.1. 교육 수혜자의 확산과 여성독서 활동

(1) 사회적인 독서운동의 양상

1920년대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도서관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독서 권장, 도서 대출, 도서 선택 지도 등 독서 대중화를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는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 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다. '독서구락부'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주로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펼쳐졌는데, 농촌 계몽을 목적으로 '노동야학회'를 설치하여 회원에게 서적과 잡지 등을 읽히고,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1) 한편 이 시기는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의 '문자 보급 운동' 및 농촌 계몽의 '브나로드 운동' 등 한글 보급 운동이 펼쳐진 시기이기도 하다. 일어가 '국어'의 위치를 담당하며 조선어 말살 정책이 강화되어 가던 시대에 두 신문사는 한글운동을 벌인 것이다. 민족의 80%가 문맹 상태에 있었던 시기에 두 신문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한글운동은 문맹 타파와 국어 보급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한글운동과 함께 '독서구락부' 운동도 후원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한글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1920년대 초부터 한글운동이 정착화되고 문식성이 신장된 3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2)

이렇듯 근대적인 의미의 한글운동과 독서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여성교육은 아동교육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근대계몽기부터

---

* 이 글은 '윤금선(2009), 국어교육연구 45'에 게재된 "근현대 여성 독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집필된 것임.

(1) 윤금선(2005),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 17, 161-164.

(2) 한국교열기자회(1998)『한국신문방송 말글백년사』, 한국프레스센터, 28.

시작되었다. 당시의 교육목표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특별한 고등 교육이 아닌 보통인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였다.[3] 그 결과 정부에서는 온 국민에 대한 교육 확대에 주력하게 되어 교육 대상이 일반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도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었고 학교에서의 직접적인 교육과 저널[4]을 통한 간접적인 교육이 병행되었다. 그런데 여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여성 독서가 그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한편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는 해방 정국의 혼란기, 전쟁기 등 시대적인 불안정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해방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8·15해방 이전 남한에만 존재했던 41개의 공공도서관이 전쟁 후에는 18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54년도에 20개가 되고, 57년도에는 113개, 58년에는 125개, 60년도에는 133개 등으로 증가하였다. 도서관의 독서운동은 전대와 같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특히 매년 독서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독서 장려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열람자 수에 상응하지 못하여 도서관 및 장서 부족 현상이 늘 논란거리였고, 이의 해결책으로 '도서관법제정', '학교도서관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5] 그런데 이러한 해방 이후의 상황에서 여성 독서계는 해방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조 현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2) 계몽 대상으로서 여성독서 활동

일제강점기에 여성 독자는 주로 여학생과 가정부인으로 구성되었다. 여학생은 학생 일반의 계층적 특징과 함께 여성 독자로서의 특징도 보유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가정부인'은 여학생과 깊은 관련을 맺은 존재로서 사회적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다. 즉 여기서 '가정부인'은 무학(無學)이며

그림1. 도서관의 여학생 (〈課外讀書〉, 《東亞日報》, 1931. 1. 26)

(3) 김봉희(1999),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20.

(4) 신문은 정규학교 교육의 범위를 확대시킨 사회교육의 한 분야이며, 사회교육 중에서도 가장 범주가 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김봉희, 앞의 책, 16 참조)

(5) 윤금선(2006),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74-375.

농촌의 가족노동 인구를 구성한 대다수 기층의 여성과 다른 존재들이다.(6)
당시 여성들의 독서를 촉구하는 소리들이 높았지만 1920년대 초반까지 여성 독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1920년대 초 당시 대상별 열람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성도서관의 독서성적을 들을것 같으면 제일 만키는 학생이오 그다음에는 보통학교에 단이는듯한어린이가 매월 평균 일천사백여명에 달한다 하며 (…) 남자는 매월 평균 육천사백여명에 달하나 여자로 말하면 한달에 뎨일 만흔것이이 십사명이오 그담에는 칠팔명에 불과하는데 그역시 책을 읽으러 오는것도 안이오 도서관이라는 것을 구경하려고 오는 이가 만흔듯함으로 부인셔적을 만들엇다가 이제는부인석에도 남자가 점령하게 되엿다 하더다
>
> 〈최근 경성도서관의 독서경향. 법률과 정치사회의 열람이 증가〉(《조선일보》, 1923. 12. 25)

> [2] 독서계절(讀書季節)을 당하야 일반의 독서상황이 엇더한가 하고보니 십월일일부터 동이십칠일까지이십사일간 조선인측 유일의 도서관인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의 독서개황은 열람인원(閱覽人員) 오천사백팔십육인으로 일일평균 이백이십두인인데 그중 남자 사천칠백륙십팔인 여자 육인 어린이 칠백이인이(…)그리고 최근의 독서경향(讀書傾向)에 대하야 경성도서관장 리범승(京城圖書館長李範昇)씨는 말하되 "녀자의 독서열은 아즉도 미약하고 수학지력(數學地歷) 등 참고서가 차차 제일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깁분현상은 일반의 독서가 진실미(眞實味)를들 찌워오는 것임니다" 하더라
>
> 〈경성도서관에서 본 최근의 독서경향〉(《조선일보》, 1925. 10. 30)

[1]은 1923년도 기사로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별 열람자 수 중 학생이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열람자가 대부분이었다. 남자는 매월 평균 6,400여 명, 여자는 한 달에 많으면 24명, 적으면 7~8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책을 읽으러 오기보다

(6)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337.

도서관을 구경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기사 [2]는 경성도서관의 독서 통계로 1925년 10월 한 달 간 전체 독서자 수는 약 5,486명이었고, 성별로 보면 대부분 남자이며 여자는 6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1927년도에 게재된 〈문학 어학이 수위 녀자는 남자의 삼분의 일〉(《동아일보》, 1927. 5. 10)을 보면 1927년도 5월에 도서 열람자 총수가 3,497명인데 그 중에 일본인 60명을 제외하면 조선인이 3,471명,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3,322명, 여자 99명으로 나타났다. 전대에 비하여 여성 독서자의 수가 증가한 편이나 남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열세였다.

이렇듯 부진 현상을 보이는 여자 독서계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3] 우리 조선녀자들은 아즉도 독서의 열이 부족하다 서양이나 일본녀자들에게 비교하면 전연히 독서를 안한다(….) 그들은 긔차나 뎐차에 오르면 교실에 들어온 학생들과 가티 의례히 책을 펴드는 것이 한 습관가티 보힌다 조선녀자들은 소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루기 위하야 밤을 새여가며 교과서를 외우는 그런 독서외에야 별로히 글닑는 여자를 보지 못하겠다 혹 중학교 졸업 정도의 신녀자들 중에 간혹 독서하는자가 잇다 하여도 그반수는 소설이 아니면 한달에 한번식 발행하는 잡지권에 지나지 못할 쑨이요 적어도 계통적으로 전문뎍 연구를 하는 녀자들은 불과 몃명이 못되리라고 생각한다.
>
> 〈매우 개탄할 조선여자 독서열〉(《조선일보》, 1925. 1. 22)

[3]의 글에서는 일본 여자들에 비해 조선 여자들의 독서열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생일 경우는 시험을 위한 교과서 읽기에 그치고 졸업한 경우에는 잡지(《신여성(新女性)》, 《조선문단(朝鮮文壇)》) 정도나 읽는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7] 이 글에서는 도서관 통계에 나타난 독서경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남녀 비율로 보면 남자는 2,968명, 여자는 148명으로 남자 수의 1/30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며, 견지동(堅志洞)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매일 책

(7) 특별히 일제강점기 여성 잡지인《신여성(新女性)》(1923 9~1934.4)과《여성(女性)》(1936. 6~1940. 12) 등 두 여성지는 동아일보사의《신가정(新家庭)》과 함께 일제하에서 나온 3대 여성지로 꼽히기도 하며, 일제강점기 여타 여성 잡지로서 당대 식자층 여성이 애독했던 잡지로서 여기에 실린 설문, 논단, 독서 좌담회, 명사들의 도서 추천, 서적 광고 등에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여성 독서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주시되는 자료이다.

사는 사람들은 평균 남자 300여 명, 여자 108명 이내이며,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는 남자 200여 명, 여자 5명 내외라고 밝히면서 여자 독서계의 부진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 여성계의 독서열이 저조함을 개탄하면서, 여자 해방과 남녀평등을 말하기 전에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림2.《女性》창간호(1936.4)
[국립도서관 소장본]

그림3.《家庭之友》창간호(1937.1)
[국립도서관 소장본]

그림4.《新女性》창간호(1923.9)
[국립도서관 소장본]

[3]의 글 이외에도 여성 독서계의 현실과 독서를 촉구하는 저널의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여성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독서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는[8]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1920년대 중기를 벗어나면서 여성 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4] 본년 십일월 중 총독부도서관(總督府圖書館)의 열람 독자수는 이만팔천구배십사인으로서 작년 동긔에 비하야 약십할(十割)의 증가를 보이며 특히 녀자는 작년 십일월은 이백 삼십칠인이엇섯스나 본년은 칠백이십일인인 약 이십할여의 격증을 보이는바 이수자에 의하야도 미루어 알수가 잇스나 근년에 부인의 독서열이 더욱 왕성하야지는데
>
> 〈여자독서열격증〉(《조선일보》, 1926. 12. 4)

(8) 〈女子讀書熱의 激增과 吾人의 禁치 못할 歡喜〉(《조선일보》, 1926. 12. 5), 〈모르는 것도 죄악 독서는 지금부터〉(《조선일보》, 1929. 9. 25) 등.

女子讀書熱激增

도서관열독자수효로증명

작년동긔보다십할이증가

그림5. 〈女子讀書熱激增〉(《조선일보》, 1926. 12. 4)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여성 독서자 수는 217명으로 192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그 수치가 비교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1920년대 말 〈지식! 지식! 지식! 조선청년의 독서열〉(《조선일보》, 1928. 4. 10)를 보면, 당시 경성부 당국이 3월 한달 종로도서관 분관과 경성부립도서관의 열람자를 조사한 결과 조선인 7,858명 중 여자 독서 인구도 300명 정도에 이르렀다. 1930년대에도 여성 독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체 열람자 수를 고려할 때 상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대에 비하여 절대적인 수치는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도 한글이나 일어를 읽을 수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1.9%, 쓰기까지 할 수 있는 여성은 10.5%에 머물렀다. 우선 문맹률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객관적으로 특별히 잘 사는 부호의 부녀가 아닌 이상 일반 가정 부녀는 책 읽을 틈조차 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초의 여성 독서층은 극소수의 신여성, 여자 유학생을 의미했다.[9]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성 독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기를 맞고 50년대가 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혼란기와 전쟁기를 겪는 시기에 여성이 독서할 여지는 더더욱 희박하였던 것이다.

> [5] 독서의계절을맞은 서당 국립도서관은 어떠한가 지난九월중의 도서관이용 경향을 보면(…) 총열람자수는 二萬六百五十二명,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一萬九千百五十七명과 여자가 六百八十七명인데 해방 이후 녀자의 열람자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경향이라 한다
>
> 〈讀書와 逆行하는 女性〉(《동아일보》, 1946. 10. 15)

(9) 천정환(2003), 앞의 책, 339-340 참조.

[5]는 당시 국립도서관 이용자 통계로서 20,000여 명 중 여성은 단 600여 명이었다. 해방 직전의 여성 열람자 통계치는 제시되고 있지 않았으나 해방 직후에 오히려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서관 이용자가 곧 독서자로 규정되긴 어렵지만 당시 도서관 통계를 주요 지표로 삼았던 독서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성 독서 현상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50년대 말부터 여성 열람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참고로 아래 〈표 1〉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50년대에 이르는 주요 통계에서 성별 통계만을 제시해 보았다.

표-1 해방 직후-50년대 여성 열람자 주요 통계

연 도	출 처	제 목	열 람 자 수
1946. 1. 7.	≪조선일보≫	〈解放以後의 讀書傾向〉	총 212,199명 중 여자 937명
1947. 9. 10.	≪조선일보≫	〈讀書子二萬二千〉	남 23,769명 여 800명
1947. 5. 7.	≪조선일보≫	〈4월중 독서경향〉	총 21,219명 중 여자 937명
1947. 9. 10.	≪조선일보≫	〈8월중 도서관 통계〉	총 31,769명 중 여자 800명
1947. 10. 10	≪조선일보≫	〈國語圖書가 首位〉	9월 총 1,1804명 중 여자 484명
1957. 10. 21.	≪조선일보≫	〈册보는 習慣을 가지자〉	9월 총 열람자수 28,809명 중 여자 3,112명
1959. 10. 2.	≪조선일보≫	〈讀書의 季節맞은 中央圖書館〉	8월 남자 13,131명 여자 2,535명
1959. 10. 19.	≪조선일보≫	〈微弱한 우리 圖書施設〉	59년 한해 현재까지 통계, 종교 · 교육계(남 264명, 여 17명), 문학 · 예술인(남 94명), 관리 · 군인(남 480명), 학생(남 7,064명, 여 2,220명), 농업 · 수산계(4명), 상공계(104명), 은행 · 회사원(남 250명), 노동자(330명), 기타(29명), 무직(남 6,215명)

〈표 1〉을 보면 여성 열람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195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독서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독서계와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런데 근대계몽기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독서가 중시된 것은 여성 자신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 독서가 자녀 교육과 직결된다고 여긴 데서 강조된 바가 컸다.

> [6] 우리 가뎡주부는 자긔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라도 독서라는 것을 틈잇는대로 할것을충분히 생각하여야 하실것임니다
>
> 〈가뎡 녀자의 독서〉(≪조선일보≫, 1925. 9. 7).

> [7] 녀학생 여러분이시어! 또한 학교를 마치인 새로운 녀성이여? 당신들은 장래 혹은 현재에 잇어서 조선가정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되어잇는 분일겜니다(…) 한민족의 장래

> 한사회의 장래 발전에 크다한 짐을 가지신 미래의 조선의 어머니되신 당신들(..) 책을 읽으시나이까?
>
> 〈사색과 독서의 가을〉(《조선일보》, 1934. 9. 4)

> [8] 한 家政의 中心人物인 主婦가 册과 담을 쌓고 산다면 그 家政과 그 社會는 健康할수 없을 것이다(…) 특히 子女의 讀書指導는 어머니의 큰 關心事가 아닐수 없다. 물론 兒童의 讀書指導는 學校 先生님과 圖書館人과 父母님들이 다같이 協力하여야한 다. 그러나 어머니의 責任이 가장 크다고 보고싶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나는 時間이 제일 많고 따라서 그 아이의 實力이나 性格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 〈여성과 독서〉(《조선일보》, 1956. 11. 25)

위 인용문에서는 한결같이 여성의 독서가 그 무엇보다 자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며, 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사회의 장래를 책임질 만큼 중요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이미 1930년대 《조선일보》 '가정부인(家庭婦人)'란 등을 보면 여성 독서, 특히 주부 독서를 촉구하고 안내하는 기사가 다수 게재되고 있는데, 주부의 독서와 함께 자녀독서를 위한 양서 소개, 도서선택 방법 등이 함께 실려 있기도 하며[10] 해방 이후에도 '여성독서안내'나 '어머니학교' 란 등을 보면 여성 관련의 서적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읽을거리도 함께 소개되고, 한편으로는 자녀교육 상담란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독서 지도 방법론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성 독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성은 이미 미혼 때부터 예비 어머니로 인식되었던 존재이며 자녀 교육을 위한 자질을 갖추려면 독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를 보면 여성교육, 좁게는 여성 독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여성 자체의 지식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독서할 시간을 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10) 〈사랑하는 子女의 讀書材料는 무엇〉(《조선일보》, 1928. 10. 1), 〈학교교육만 믿지 말고 과외독서도 주의하자〉(《조선일보》, 1940. 3. 8), 〈년령에 따라서 경향이 다름니다〉(《조선일보》, 1933. 9. 12) 등.

[9] 우리 가뎡에는 주부되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일이 적은 듯함니다 문명한 다른 나라가뎡에서는 그 생활비 가운대에 신문이나 잡지가티 서적비가 의례히 들어감니다마는 우리가뎡에는 이러한 비용은 군비용처럼 알게됨니다 경제력도 부족할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재래 가뎡주부 여러분은 상당한 교육을 바들 긔회가 업서 책을 읽을힘이 업는것임니다. 또 하나는 (….) 일반 가뎡부녀는 책읽을 틈을 어들수 업슴니다 날마다 아침저녁밥을 지으며 아이 기르고 쌀래하기에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조곰도 편히 쉬일새가 업시 살림에 억매어 지냄니다 이러한 가뎡주부로는 특별한 열성과 취미를 도서에 가지지 안흐면 독서를 할수 업슴니다 그러나 형편이 이러하다고 반드시 하여야 할일을 아니 할수는 업는 것임니다

〈가뎡 녀자의 독서〉(《조선일보》, 1925 .9. 7)

[10] 상당히 교육을 바든 신여성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에 들어안끼만 하면 당최 책을 보려고 들지 않는군요….조선가정이란것도 책을 읽을수 잇는 분위기가 되어잇지 안코 또 책을 들만한 적당한 장소 하나도 업습니다…..시집을 가서 독서열이 업서지는건 혹시 시어머니가튼 이가 조지안케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잇는 때문이 아닐까요

〈조선의 가정주부는 웨 책을 읽지 안흘까?〉(《조선일보》, 1940. 1. 1)

[11] 정신적인 양식(良識)과 풍부한 지식은 역시 독서의 힘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학교를 나오고 한번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가사를 돌보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잡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연히 책과 종이는 멀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여성의 생각은 천박하고 실력이 남성에게 뒤떨어진다는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점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여성과 독서〉(《YWCA 월간》4, 1956. 11)

[9]~[11]까지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일관되게 여성 독서계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이다. 즉 여성의 독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력의 부족, 공부하는 주부에 대한 시집 식구의 눈치,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의 절대적 투자 등을 들고 있다. 이를 보면 여성 자체의 독서열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여성의 독서를 부진케 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인용문 중에 교육을 받고 독서를 열심히 하던 여성일지라도 가정을 갖게 되면 다시 무화된다고 한 내용은 바로 이것을 대변해 준다.

2.2. 일제강점기~1950년대 여성 독서경향

그러면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여성 독자들은 무엇을 읽었을까. 이에 대한 조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근년에 부인의 독서열이 더욱 왕성하야지는데 읽는 책은 여전히 소설(小說)이 제일위를 점령하고 다음으로 사회(社會) 종교(宗敎) 철학(哲學) 교육(敎育) 방면의 독자가 증가하는 중이라더라
>
> 〈여자독서열격증〉(《조선일보》, 1926. 12. 4)

조선녀성
의독서열은엇던가
문예서류가만습니다
여긔서녀류문예가가쏘다질모양

[그림6. 〈조선녀성의 독서열은 엇던가〉(《조선일보》, 1933. 1. 23)

> [13] 학교출신으로써 지식계급의 녀성은 일천만조선녀성 가운데 불과소수에 불과하다고 할것입니다(….) 도서관(圖書館)에 나타난 삼년간의 조선녀성의 독서열을 보게되면 첫재로 문학방면의 서적을 보는이가 절대다수이며 둘재로는 사회와 교육에 대한 문제인바 이것은 즉 가정문제 즉 육아문제라든가 의복체조법 등이며 또한 운동방면에 대한 지식이며 그 외사회적 상식 등이 포함되어 잇는 것입니다 그러고 셋재는 철학(哲學)과 종교(宗敎) 방면인바 이것은 조선녀성들이 녀성경제권 문제에 대하야 깁히 생각하는바가 잇는 까닭이라고 하겟습니다
>
> 〈조선녀성의 독서열은 엇던가〉(《조선일보》, 1933. 1. 23)

[12]는 여성 독서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1920년대 중반기의 기사로서 소설, 종교, 철학, 교육 서적 순으로 독서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3]은 1933년에 게재된 기사로서 3년간의 여성 독서경향을 보여주는 바, 1930년대 초기의 독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문학 방면이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일반 사회, 교육, 사회주의, 상식, 철학, 종교 순으로 드러나 사회주의 서적을 새롭게 읽는 것 외에 거의 비슷한 분야에서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기사 〈조선여성의 동향〉(《조선일보》, 1932. 3. 10)에서는 특히 〈조선 여학생의 독서

경향〉이라 하여 '모(某)여고보, 모기독교여고보, 모실업학교, 모보육학교' 등 몇몇의 여학교를 선택하여 조사한 독서 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여학생들의 독서 분야 총계를 보면 사회사상 219명, 문예방면 161명, 자연과학 56명, 종교방면 44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하던 시기여서 일시적으로 이 분야가 수위를 차지했지만 문예물은 꾸준히 읽히고 있었다.

1930년대 말 〈일반학생들의 독서하는 경향〉(《조선일보》 1938. 10. 31)에서도 "여학생들은 독서 유행에 휩쓸려 인기있는 소설을 읽는 경향(광고가 많이 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여성은 연애물탐독〉(《조선일보》, 1933. 1. 23)에서는 일반 부인의 애독서를 조사한 결과 "연애지상주의의 연애소설"이 최다수로 드러났다. 이러한 독서경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당시 이헌구는 《신여성》(1933. 10) 〈현대여학생과 독서〉에서 여학생들은 소위 연애소설, 그것도 값싼 국지판 등 소설 몇 권을 읽는 데 불과하고 명작을 심독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한 바 있다.[11] 이를 보면 여성들의 독서 범위가 문학 방면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독서 취미가 통속적인 연애물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학생들의 독서경향〉(《조선일보》, 1959. 10. 20)에는 여자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6년간 통계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여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당시 외국 잡지를 포함하여 매달 14종의 잡지가 있었고 그 중 제일 많이 읽히는 것이 《현대문학(現代文學)》, 다음이 《사상계(思想界)》 그리고 《여원(女苑)》이었다. 잡지의 경우 이전 시기에 비해 여학생들의 독서 수준이 다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은 김동리의 작품이고, 시집으로는 소월(素月)의 시집이 가장 애독되어 여전히 문학 위주의 독서가 지배적이었다.[12]

1950년대 말 〈학생들의 독서경향〉(《조선일보》, 1959. 10. 20)에는 다음과 같은 설문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독서경향이 제시되어 있다.

> [14] (선생님들에게) 1 학생들의 독서경향은? 2.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1. 어떤 책을 읽고 있나? 2. 친구들 간에 어떤 책을 돌려 보고 있나?
>
> 〈학생들의 독서경향〉(《조선일보》, 1959. 10. 20)

(11) 〈現代여성과 讀書〉〉(《新女性》, 1933. 10)

(12) 〈여학생의 독서경향〉(《YWCA 월간》6, 1958. 12)

대상 학교는 '서울대학교', '진명여중고(進明女中高)', '경기고등학교(京畿高等學校)', '보성고등학교(普成高等學校)', '덕성여자고등학교(德成女子高等學校)', '수송국민학교(壽松國民學校)'로서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고르게 설문 조사를 시행했는데, 이 중 (1) '여학생들의 독서경향'과 (2) '여고 교사들의 도서 추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명여중고의 경우 (1)은 문학 작품이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작품별로 보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토마스 하디의 『테스』, 펄벅의 『대지』를 많이 읽었다. 특히 진명여중 3학년의 한 교사는 (1)에서 모성애에 관한 책과 아기자기한 것, 그리고 대개 슬픈 책을 많이 읽으며 『호반의 각시』, 『목장의 소년』 등이 가장 많이 읽혔다고 밝혔다. (2)에서는 대개 문학 전집, 시집 등을 장려하고 있었다. 진명여고 3학년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1)에서는 순정을 엮은 작품을 많이 읽으며 특히 펄벅 작품을 좋아한다고 응답했으며, 펄벅의 『숨은 꽃』과 토마스 하디의 『테스』가 여학생들의 애독서라 제시했다. (2)는 정서도야에 도움이 되는 책과 교과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을 권하고 있으며 만화와 같이 자극이 강하여 도의적인 측면에서 염려되는 책은 금하고 있다고 했다. 덕성여고 여학생들은 (1)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이 이론적인 서적보다 정서적인 책을 좋아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문학 서적이 월등하게 읽혔다. 그러나 시집보다는 소설을 더 선호했다. (2)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서적은 되도록 읽도록 광범위하게 권유한다고 했으며, 비속한 오락 잡지나 만화 등을 금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문 결과에서 당시 여학생들은 대개 소설 분야의 문학을 가장 애독했으며, 주로 해외 명작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 여성이나 여학생의 독서 범주가 주로 문학 분야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3. 주체자로서의 여성독서 : 1960년대~1970년대

3.1. 경제 수준 및 여자 교육의 향상과 적극적인 여성독서 활동

(1) 사회적인 독서운동의 양상

1960년대는 사회 전반에서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로서 독서 현상이나 독서교육 현상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도서관 수도 급증하였고, 전 시기와 같이 도서 대출과 열람실 개방 등을 통한 독서운동은 물론 도서관 자체에서 독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개독운동(國民皆讀運動)이 활발했다. 학생 독서운동도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됐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상담은 물론 수준별 독서 도서를 일정 기간마다 제시했으며, 방학 시즌마다 독서학교를 운영하여 학년별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독서방법을 지도했다. 한편 대학 교양교육에서도 독서교육이 활발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마을문고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학교를 통한 고전읽기 운동도 활발하였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독서 캠페인이 펼쳐지고 《독서신문(讀書新聞)》이 발간되는가 하면 출판계에서도 독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독서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라 하겠다.(13)

1970년대는 사회, 경제, 정치면에서 지각변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계는 2차 교육과정기가 끝나가고 3차 교육과정기에 진입하던 때로서 읽기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던 시기이며 공교육 내에서도 독서 관련의 단행본, 논문들이 다수 출간되기도 했다.(14) 또한 이 시기는 독자층과 작가층이 '한글세대'로 세대 교체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해방 후 교육법을 제정(15)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한 결과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독자층의 저변도 급속도로 확대되어 한글세대가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독서운동이 전개되었기에 전대에 비해 확산력이 크기도 했다.(16)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여성 독서계도 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2)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여성독서 활동

근대 이후부터 50년대까지 여성의 독서는 자녀교육과 연결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60년대 이전까지는 교육의 수혜를 받은 여성도 적었을 뿐더러 독서를 여유롭게 할 상황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독서는 여전히 촉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60, 70년대에 이르러 여성 독서계의 지형도가 달라졌다. 전 시기까지 계몽 대상이었던 여성 독서자가 주체적인 입장의 독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여성 고등교육 수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새로운 경제 시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남성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았고, 그에 따라 가정주부들은 가정의 경제권과

(13) 윤금선(2008), "讀書 大衆化運動 硏究-1970년대 中 · 後半期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137,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46-247.

(14)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2), 서울대학교출판부, 324-325.

(15) 1949. 12. 31 법률 제86호.

(16) 오경복(2005),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비교한국학 13, 국제비교한국학회, 3.

자녀교육을 도맡게 되었다. 여기에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출산 시대가 열렸다. 이제 여성은 가정사에서 조금은 벗어나 비로소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고,[17] 그에 따라 여성 독서율도 상승하였다.

[15] 소비생활의 결정권은 압도적으로 주부 쪽에서 가지고 있으며.(…) ◇ 가정주부의 취미 = 「독서」가 38%로 수위 (…) ◇ 주부의 학력 = 고졸 16%. 중졸 6%, 대졸 16%, 대학원졸 0.1%. 이 「퍼센티지」는 취미를 「독서」라고 대답한 38%를 나눈 것으로 책을 읽는 주부들의 교육 수준이 고졸에서 대졸정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중앙'이 실시한 앙케트〉(《중앙일보》, 1971. 1. 23)

또한 이 시기에는 여성 단체를 통한 여성 독서클럽 활동이 활발했다. 가정주부들과 여대생들로 구성된 '여학사회독서 클럽', '여성독서클럽 YWCA' 등 여성 단체가 결성되었고 독서 클럽을 통한 양서 읽기와 독서 토론 등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독서클럽은 당대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독서 프로그램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18]

[16] 1. 독서클럽을 조직 1) 읽은 책의 내용을 발표 2) 주제를 내놓고 토의 3) 충분히 이해된 내용을 소재로 해서 즉흥적인 대화극 혹은 스킷을 시도 4) 신간 소개로 독서욕을 상승시킴. 2. 독서 포스터를 구상하여 전시. 예 : 〈하루에 20분씩 책읽기〉 〈책 읽는 습관 가지기〉 3. 독서장려를 위한 선전 라듸오, 신문, 텔레비죤을 통하여 일주일에 두번씩.

〈독서를 위한 푸로그람 제시〉(《YWCA 월간》14, 1966 5.)

(17) 〈본사조사 전국 '베스트 · 셀러'〉(《중앙일보》, 1966. 12. 27), 〈공부하는 주부들이 늘었다〉(《중앙일보》, 1977. 7. 14)

(18) 〈女學士會讀書 클럽〉(《조선일보》, 1962. 4. 6), 〈女性讀書클럽 꾸준한 活動展開 앞으론 新聞내고 道單位 클럽마련키로〉(《동아일보》, 1962. 10. 27) 〈독서를 위한 푸로그람 제시〉(《YWCA 월간》14, 1966. 5), 〈클럽을 위한 독서 (1)〉(《YWCA 월간》16, 1968. 4), 〈클럽을 위한 독서(2)〉(《YWCA 월간》16, 1968. 5)

이러한 풍토 속에서 책 읽는 여성이 많아졌고 심지어 독서계에서 남자보다 우세를 점하는 현상까지 보였다.

[17] 근년에 와서 책읽는 主婦들이 많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書店街에서도 실제로 책을 사러 오는 주부들이 몇해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책 읽는 주부가 많아졌다〉(《조선일보》, 1977. 8. 11)

책 읽는 主婦가 많아졌다

그림7. 〈책 읽는 主婦가 많아졌다〉(《조선일보》, 1977. 8. 11)

[18] 讀書에 관심있는 서울 시민들은 대체로 한달에 2-3권의 책을 읽고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사며, 국내 저작도서보다는 외국 명작 혹은 화제작들 위주로 읽고 男子보다는 女子 쪽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책을 더 많이 읽는다〉(《조선일보》 1977. 12. 10)

먼저 [17]에서는 여성 독서자들이 서점가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8]은 당시 서울에서 연 '전국도서전시회'에서 관람객 5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시민의 독서실험조사' 결과로서 남자보다 여자가 독서율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서율이 저조하여 늘 비난의 대상이었던 여성 독서계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측면이라 하겠다.

또한 여성들은 자녀를 위한 독서교육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도서관이나 '한국글짓기지도회'와

같은 모자 독서에도 참여하는가 하면,[19] 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머니 독서회'를 통해 불량만화 등의 '악서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20] 이와 함께 '한국여성단체협의회(韓國女性團體協議會)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양서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질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여 소개하였고,[21] 여기에 어머니들은 문교당국에 의견을 건의하여 전국어린이 독서경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기초 조사를 착수하게끔 유도하기도 했다.[22] 이제 여성들은 주체적인 읽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주체적인 독서 지도자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이다.

3.2. 1960년대~1970년대 여성 독서경향

근대적인 독서 현상이 시작되었던 1920년대의 독서경향은 주로 신문에 보도된 도서관 대출 통계에 의해 파악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이르면서 도서관 통계뿐만 아니라 출판계와 서점 등의 판매 부수를 통한 독서경향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후 해방 직후와 1960년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나 특별히 독서 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 출판계의 동향이나 베스트셀러의 파악, 설문 조사 등이 독서경향을 지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여론 조사를 통해 본 여성 독서경향

1960년대 말 〈외국신간에 인기〉(《중앙일보》, 1969. 1. 18)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독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성별 독서경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도서 구입비를 보면 대체로 남녀 월 500원을 소비하는 층이 압도적이었고 여자의 경우 월 600~1,000원의 도서비를 들이는 층이 남자에 비해 더 많았다.(남자 28%/여자 40%). 잡지는 남자의 경우 20~30세에서 월 3, 4종씩을 보는 사람이 가장 많고 31세 이상은 월 1, 2종을 보는 사람이 제일 많으며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달리 연령층을 불구하고 월 1, 2종을 구독하는 편이 수위를 차지했다. 책을 구입하는 동기와 방법은 남자의 경우는 신문 · 잡지의 서평 소개란과 광고를 보고 구입하는 편이 제일 많았고 여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추천을 통해 구입하는 편이 지배적이었다.

문학 작품의 독서경향을 보면 남자는 15세까지와 30세 이상이 국내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데

(19) 〈독서상담실 맡은 김경일씨〉(《중앙일보》, 1970. 9. 25), 〈어머니 · 어린이 책읽기 운동〉(《중앙일보》, 1971. 1. 4)

(20) 〈나쁜 만화를 몰아내자〉(《중앙일보》, 1971. 6. 30)

(21) 〈어린이용 양서 60권 선정 발표〉(《중앙일보》, 1968. 8. 6)

(22) 〈여성단체서 어린이 양서 읽히기 운동〉(《조선일보》 1969. 7. 29)

비해 여자는 일률적으로 외국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 앞으로 읽고 싶은 책에 대해서 남자는 ① 국내 문학(소설과 수필) ② 철학 ③ 역사 ③ 사회과학 ⑤ 순수 과학 순이었고, 여자는 ① 국문학 ② 국내 문학 ③ 철학 ④ 역사 순이었는데 여성은 순수 과학서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가장 감명을 받았던 책은 남녀 다 같이 외국 문학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 문학서 중에는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 등의 고전 작품도 들어 있지만 그 70%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간(新刊)들이었다.(23)

한편 학생들에 대한 독서 리서치도 자주 행해졌는데 이를 통해 여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앙교육연구소(中央敎育硏究所)'에서는 중고교생의 독서경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게재했다.(24) 남자 중학생들은 주로 순수문학과 만화를 가장 많이 읽었고 다음으로 탐정, 모험, 전쟁 등의 내용을 담은 소설과 순수소설을 애독했다. 여자 중학생도 역시 남학생과 비슷하지만 동화나 탐정 모험보다는 순정소설을 더 읽었다. 남자 고교생들도 역시 순수문학이 으뜸이고 다음에는 교양서적을 많이 읽는 편이었고 위인전 같은 전기물이 애독되었다. 그러나 남자 고교생이 되면 소년소녀용 서적 독서율이 결정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자 고교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자 고교생은 대부분 성인을 위한 문학 작품, 특히 애정소설에 집중되고 그밖에 교양서적에도 흥미를 보였다.

또한 《교육연구》 50호에는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이 제시되었는데,(25) 당시 대학생의 독서경향을 드러내는 통계가 드문 편이라 주목되는 바가 있다. 특별히 여자대학교(이대, 숙대, 3학년 문과, 이과 학생) 설문 결과만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2 《교육연구》제50호에 제시된 여대생들의 독서경향 〈大學生들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60. 1. 29) 참조

설문내용	문과여대생	이과여대생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적과 흑〉, 〈카라마조프의 형제〉, 〈팡세〉, 〈영원한 사랑〉 순	〈지성과 사랑〉, 〈적과 흙〉, 〈황혼의 이야기〉, 〈우정 연애 결혼〉, 〈북경에서 온 편지〉의 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테스〉, 〈죄와 벌〉, 〈부활〉, 〈좁은문〉, 〈숨은 꽃〉의 순	〈테스〉, 〈숨은 꽃〉, 〈주홍글씨〉, 〈제인에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순
베스트셀러는 어느 정도 읽는가	꼭 구해서 본다(40% 이상)	책 이름을 보고 읽고 싶은 것만을 본다(40%)
구독하는 월간 잡지는	〈여원〉, 〈사상계〉 순	〈여원〉, 〈사상계〉 순
전공 서적은 읽는가	〈많이 읽지 못한다〉(40%) 원서를 보는 학생보다 번역문을 읽는 학생이 그 4배	〈많이 읽지 못한다〉(50%) 원서를 보는 학생보다 번역문을 읽는 학생이 8배

(23) 또한 주부의 독서 실태를 드러내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女性과 讀書 書店에 비친 實態〉(《동일아보》, 1962. 10. 29), 〈여성과 독서〉(《조선일보》, 1962. 10. 24)에서는 서점가에 비친 주부의 독서경향을 보면 소설이나 스타일 북 등이 인기가 있었다.

(24) 〈中高校生들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62. 7. 10)

(25) 〈大學生들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60. 1. 29)

〈표 2〉의 결과를 보면 1960년대로 들어선 이 시기에도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책들은 주로 문학 서적이었고 대부분이 외국 소설을 탐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의사 지바고』, 『테스』, 『카라마조프의 형제』, 『죄와 벌』 등), 잡지로는 《여원》, 《사상계》, 《뉴스위크》, 《라이프》 등을 구독하는 반면 전공 분야 서적은 많이 읽지 않았다. 자신의 전공 분야보다 교양을 위한 독서에 치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1967년 7월 숙대 신문사는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의 독서경향을 조사했는데, 여대생 거의(97%)가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대부분이고 28%가 심심풀이로 본다고 답했다. 그런데 당시 여대생 잡지들은 교양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이며 사치한 편집의 여성 대중지들이었다. 즉 이들의 '베스트 리딩(Best Reading)' 잡지는 ① 《여원》 ② 《여상(女像)》 ③ 《주부생활(主婦生活)》 등의 순위를 보였다. 즐겨 읽는 기사는 ① 화보 ② 문예물 ③ 수기 ④ 가정기사 ⑤ 만화 등이고 논문이 제일 인기 없는 글이었다. 잡지 독서경향에서 당시 여대생들의 독서 취향이 흥미 위주였음을 엿볼 수 있다.[26] 이와 비교하여 1972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실태 조사[27]를 참조하면, 당시 대학생의 구독 잡지로 손꼽히는 것으로 남자는 《신동아(新東亞)》, 여자의 경우 중도시나 대도시에선 《여성동아(女性東亞)》를 소도시에선 《여성중앙(女性中央)》을 애독했다. 이를 보면 여학생들의 잡지 구독 성향이 오락물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여대생 독서와 연관되어 주목되는 것은 덕성여대의 독서 프로그램이다. 이 학교에서는 '여성교양'이란 이름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4년간 독서를 교양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있었다. 매달 1권의 고전이나 현대 명저를 읽고 독후감 및 세미나를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과목으로 학생들은 48권의 책을 졸업할 때까지 독파하는 게 필수였다. 72년 8월 당시 학년별 선정 도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 1학년: 『사랑』(이광수) 등 한국 문학작품 8권, 2학년: 펄벅의 『대지』 등 미국 문학작품 9권, 3학년: 『부활』(톨스토이) 등 러시아 문학작품 7권, 4학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등 동서 고전 8권 등 모두 32권, 이 가운데 1권씩을 선택
>
> 〈휴식 없는 캠퍼스〉(《중앙일보》, 1972. 8. 16)

(26) 〈여대생이 읽는 잡지〉(《중앙일보》1967. 4. 20)

(27) 〈무슨 冊을 얼마나 읽나〉(《조선일보》, 1972. 2. 13)

[19]의 목록 외에도 연간 계획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전체적인 선정 도서는 문학 · 철학 · 예술론 등 16개 분야로 나뉘어 있었다. 부문별로는 문학 33%, 철학 15%, 일반사상 15%, 종교 9%, 석사 7% 등의 순으로 배당되었다. 학생들에게 입학과 함께 월별, 학년별 필독서의 목록을 제시했고 매달 독후감이나 시험 등으로 평가했다.(28)

여대의 독서 프로그램과 상관하여 몇 개의 학교 커리큐럼을 들자면,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에서는 매 학기 각 교수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12권의 과제 도서를 선정하고,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었다. 서울대 교양학부에서도 캠퍼스 이전으로 무효화됐던 교양도서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계획했다.(29) 실제로 가벼운 읽을거리에 치중했던 당대 여성 독서계에 대해 대학 내에서 이를 쇄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 그 사이 소홀했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논의되고 독서와 토론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1970년도 중반기에 일었던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독서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여성 독서경향

讀書界의 異常氣流
女流의 上位시대
女性讀者많은데 큰原因
出版界서도 保證수표

그림8. 〈讀書界의 異常氣流 女流의 上位時代〉 (《중앙일보 》, 1971. 3. 12)

전 시기까지 독서계의 경향이 대개 도서관 열람자의 통계치를 통해 파악되었다면, 1960년대부터는 주로 베스트셀러를 통하여 그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이것은 본격적인 상업 출판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30) 그런데 당시 출판 시장에서는 여성 독자를 겨냥한 소설들이 잘 팔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출판계에서는 주로 여성 독자를 확보하는 기획물이면 성공하는 판도를 보였다. 〈본사가 조사 · 집계한 전국 베스트셀러〉(《중앙일보》, 1966. 12. 8), 〈생명의 향약〉(《중앙일보》,

(28) 〈휴식 없는 캠퍼스〉(《중앙일보》, 1972. 8. 16)

(29) 〈대학마다 독서권장 활발〉(《중앙일보》, 1975. 9. 8)

(30)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는 《동아일보》, 1959. 5. 22) '4.5월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백철의 논평을 게재하면서부터 쓰여졌다. 해방 직후 박계주의 《순애보》로 시작, 50년대 말엔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6만질 이상 팔려나가 역사적인 베스트셀러로 기록되었다. 그 뒤 60년대엔 《마음의 샘터》,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등 수필집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으며 70년대에 와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선두로 소설류가 베스트셀러의 주종을 차지했다. (〈베스트셀러의 正體〉, 《조선일보》, 1984. 9. 2)

1966. 12. 9) 등의 내용을 보면, 당시 전국의 3백여 지사 국망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532개소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일신문(朝日新聞)》 1천만 원(일화) 현상 당선작인 『빙점』(미우라 · 아야꼬) 등 일본 소설들이 한국 독서계를 석권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빙점』은 『원죄』, 『양치는 언덕』, 『사랑이 흘러가면』, 『언덕의의 양떼들』 등 출판사에 따라 제목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모두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은 적어도 10만 부는 팔렸으리라 추산되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의 주고객은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다. 〈본사조사 전국 베스트 · 셀러〉(《중앙일보》, 1966. 12. 27)에서는 소설에서의 순위는 여전히 큰 변동이 없고 비소설부문에서는 『기다리는 부안』(박경리), 『밤에 쓴 인생론』(박목월), 『물같이 와서 바람같이 가다』(오화섭)과 함께 전혜린 '붐'이 여성 독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잡지 부문에서도 여성지들이 단연 압도적으로 팔렸다. 5개의 '베스트' 가운데 3개가 여성지였다. 대중지가 이른바 교양종합지를 물리치고 있는 현실이었다. 당시 출판물 등은 주로 여성 독자를 확보하는 기획물이면 성공하는 판도를 보인 것이다.

1971~72년도 초반에 들어서서도 베스트셀러 톱 랭킹은 여류작가들의 작품이 모두 차지했다. 이 시기의 베스트셀러에서 톱을 장식한 작품은 정연희의 『고죄』,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박계경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아픔을』 등이었고, 이 책들은 당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물이었다. 대부분의 여류작가들은 사회고발적인 현실 문제보다 여성 문제 · 애정 문제 등을 섬세하게 다루어 여성 독자의 취향과 일치했다.(31) 여기에다 1975년도 이후에는 여성 관련 서적이 큰 붐을 일으켰는데, '세계 여성의 해'를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다룬 학술서적 뿐만 아니라 모험적인 여성들의 전기들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서적들의 주독자층은 젊은이들이었고 그 가운데 특히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32)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여성 대상 방송 프로가 활자화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이다. 1979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바구니에 가득찬 행복』으로서 당시 라디오 인기 프로였던 〈임국희예요〉를 활자화한 것이다. 1978년 12월에 출간돼 1년이 된 당시 판매 부수가 790,000부 선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출판사 측에서는 속편을 내기도 했는데 초판만 40,000부를 찍었다. 소설 · 비소설을 합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다. 이것은 당시 독자 인구의 70%대로 추산되는 여성 독자층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의 여파로 출판사들은

(31) 〈독서 부재 속의 여류독주〉(『중앙일보』, 1970. 12. 25), 〈독서계의 이상기류 여류의 상위시대〉(《중앙일보》, 1971. 3. 12)

(32) 이임자(1998),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6.

방송의 인기 프로를 책으로 내려고 저마다 방송국을 찾아다니는 이색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33)

한편 《독서》지에서는 '독자카드' 600장(남녀 각 3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집계 분석한 결과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독자층이 지나치게 얕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감각적 청춘물에 탐닉하는 20대 전반의 학생과 직장 여성이 그 두께의 전부라는 것이다. '책을 사는 동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항은 '필요를 느껴서'이다.(34) 구체적인 정보원을 들지 않고 막연히 '필요'라고 하는 말에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베스트셀러 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정작 '원하는 책'은 교양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보다는 오락 · 유희적 요소의 감각적 내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35)

4. 선도자로서의 여성독서 : 1980년대~2000년대

4.1. 평생교육의 정착과 선두에 선 여성독서 활동

(1) 사회적인 독서운동의 양상

1980년대 초기부터 문화공보부에서는 '80년대 문화정책'을 내세우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시키려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연차적으로 소규모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사회교육과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국민독서생활화' 운동을 펼쳐 양서 선정과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독서계층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기에는 '책의 해'가 설정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도서상품권의 부활 등 거국적인 독서 행사와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단순하게 책을 빌려 읽거나 공부하는 장소로만 이용돼 오던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단순한 도서정보 제공보다는

(33) 〈문학성과 재미를 함께 갖춘 작품들〉(《중앙일보》, 1979. 12. 24)

(34) 〈독서〉(《중앙일보》, 1975. 10. 8)

(35) 〈베스트셀러는 거의 청춘물〉(《중앙일보》, 1978. 8. 4)

교양학습,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36) 독서지도는 물론 문화행사로 주부,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을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독서 인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이 보다 첨단화되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 공간의 정보도서관으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도서실이 지역 주민에게 도서 대출과 독서토론회, 각종 강습반 등 소모임 활동을 유도하여 독서 풍토를 형성하는 데 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37)

또한 1980년대 이후부터 도서관 외에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문화 단체들이 각종 독서 프로그램과 책읽기 캠페인으로 독서 인구 개발에 힘썼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면 서점업계 매장의 복합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다양한 이벤트성 공간 배치로 독서자의 흥미를 끌었을 뿐 아니라 전산화, 인터넷 서점화 등으로 책의 구입도 보다 용이한 유통 구조로 변화되었다.(38) 여기에 대학가의 '북카페'(Book Cafe) 운동과 문인들의 '북클럽' 운동도 활발했으며,(39) 각종 독서클럽 붐이 일어 일반인, 학생, 공단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독서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특히 1984년 5월에 문을 연 흥사단의 '독서대학'은 곳곳에 지부를 두고 독서교육을 시행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40)

매체를 통한 독서운동도 보다 활성화되었다. 신문사의 경우 이전 시기부터 독서운동의 선두에 있었지만 각종 독서 관련 대회를 실시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NIE 교육, 양서 추천 활동 등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신문사별로 북리뷰 섹션을 통해 출판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정보와 신간 서평이 증면되기도 했다. 한편 TV 방송사가 출판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 독서특강, 독서토론, 독서진단, 도서전시회 및 독서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전대까지 독서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TV가 독서운동의 주자로 나서게 되면서 TV 독서 프로그램이 연달아 방영되기 시작했다.(41) 일례로 당시 독서 프로그램인 '!느낌표'의 '책을 읽읍시다'에서 소개한 『괭이부리말

(36)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장으로 탈바꿈〉(《중앙일보》, 1998. 6. 9)

(37) 〈지역도서실 문화공간으로 정착〉(《중앙일보》, 1992. 4. 10)

(38) 교보문고, 국내 처음으로 북마스터 9명 선발〉(《중앙일보》, 2000. 3. 10. 19)

(39) 〈공단 근로자 문화서클 활동 늘어간다〉(《중앙일보》, 1983. 3. 29), 〈미혼직장여성 '신애화' 독서클럽〉 (《중앙일보》, 1987. 7. 7)

(40) 〈직장인 · 주부들 책읽기 모임 활기〉(《중앙일보》, 1984. 7. 4), 〈오늘의 책 독서강좌〉(《중앙일보》, 1984. 9. 27), 〈독서대학 강좌 개설〉(《중앙일보》, 1985. 3. 26)

(41) 2001년도부터 시작된 KBS-1TV 'TV, 책을 말하다', '!느낌표'의 '책을 읽읍시다', 2002년도의 EBS '책과 함께 하는 세상'에 이어 MBC-TV '행복한 책읽기'가 가세했다. KBS1의 'TV, 책을 말하다'는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KBS '책을 말하다' 호평〉,《중앙일보》, 2001. 3. 7), 〈KBS 독서프로 재미 교양 동시에 노려〉,《중앙일보》, 2001. 4. 25)

아이들』, 『봉순이 언니』는 방영 당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제치고 나란히 베스트셀러 1, 2위(교보문고)를 차지했다. 그만큼 출판계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42)

한편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였다. 1980년대 초에는 소위 7 · 30 조치를 통한 과외 전면금지, 졸업정원제 채택, 1982년부터 개방대학 설치와 방송통신대학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폐지되고 과외수업이 금지되었다. 과목 중심의 교육에서 특별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독서교육이 강화되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읽힐 도서 선정을 협의하였고, 도서관 확충에 관심을 쏟았다. 1996년부터는 새로 시행된 고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에 '독서' 과목이 추가되고 입시 정책이 변화되자 독서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문고'를 운영하고 필독도서를 제공하며, 독서를 권장하는 한편 독서감상문 노트를 적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각 대학에서도 지도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고, 교양교육에서도 독서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 시기는 도서관, 출판계, 방송계, 교육계 등 독서운동이 전반적인 사회 무드로 확산된 시기라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리더로서의 여성독서 활동

1980년대에 들어 전 국민적인 독서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부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독서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작업을 적극 추진했다.(43) '주부교실', '주부도서실' 등 각종 독서클럽을 통한 '책읽기운동'도 활발했다.(44) 특히 1990년대에 보다 활성화된 '이동도서관'(45)은 주부 독서 인구를 보다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동도서관 대출자의 75%가 주부들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후반 40대 초반의 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46)

뿐만 아니라 도서관 외에서도 주부들의 '독서학교'나 '독서클럽' 등의 "책읽기운동"도 활발했다.

---

(42) 〈MBC '! 느낌표' 독서캠페인 말은 많지만 공정성 유지하며 오래 남길〉(《중앙일보》, 2002. 2. 26). 〈MBC '느낌표' 독서 아침밥 캠페인 화제〉(《중앙일보》, 2002. 1. 15)

(43) 도서관에서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자녀교육, 주부와 교양, 원고지 작성법, 독서강좌와 서예교실 등 다양했는데 오늘날 도서관이나 관공서, 구민회관 등에서 행해지는 주부 대상의 각종 문화강좌는 1980년대부터를 기점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도서관을 안방과 잇는다〉, 《중앙일보》, 1986. 7. 5))

(44) 〈직장인 · 주부들 책읽기 모임 활기〉(《중앙일보》, 1984. 7. 4)

(45) 이동도서관은 8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자동차 이동도서관(Book Mobile)'이라 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마을순회 자동차도서관이 는다〉(《중앙일보》, 1984. 8. 29)

(46) 〈주부들에 인기 높다〉, 《중앙일보》, 1990. 3. 21. 〈구별로 이동도서관 차량 3권까지 빌려줘〉(《중앙일보》, 1990. 5. 11)

그림9. 자동차 이동도서관
(《조선일보》, 1986. 4.12)

당시 주부 대상의 독서회는 수강생을 모집하여 독서지도를 하는 '독서학교'와 끼리끼리 모여 책을 읽고 느낌을 서로 주고 받는 '독서클럽'으로 구분된다.(47) 책을 읽고 토론회나 독후감 발표, 저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한편 1991년에 결성된 '한우리 독서 문화대학'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신풍토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내걸고 직장인 ·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회원을 모집하였다.(48)

특히 1990년대는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정착화된 시기이다. 소위 '사회교육원'이라 하여 대학교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내에 자리잡은 것이다. 사회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데, 각 학교마다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독서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즉 '독서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높았다.(49)

> [20] 독서지도사가 주부들 사이에 신종 직업으로 자리잡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독서지도사란 초 ·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4~7명의 소그룹을 만들어 토론과 책읽기, 글쓰기 등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독서지도사가 되려면 최소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고, 국가자격증은 없지만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 사회 단체에서 수료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독서지도사 주부 부업으로 각광〉(《중앙일보》, 1998. 4. 5)

특히 대학에서는 현직 대학교수나 강사의 지도 하에 심리, 교육학 등 이론 교육과 함께 독서지도 실습, 글쓰기 지도법, 논리 이해 등 실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인기가 높았다. 여기에다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는 교육 후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했다. 이것은 주부

(47) 〈직장인 · 주부들 책읽기 모임 활기〉(《중앙일보》, 1984. 7. 4), 〈오늘의 책 독서강좌〉(《중앙일보》, 1984. 9. 27), 〈독서대학 강좌 개설〉(《중앙일보》, 1985. 3. 26)

(48) 〈국내 첫 독서 전문교육기관 개설〉(《중앙일보》, 1991. 3. 10), 〈국민 필독도서 1차 50권 선정〉(《중앙일보》, 1990. 4. 10)

(49) 〈대학평생교육〉(《중앙일보》, 1995. 1. 22)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계된 것이지만, 이제 여성이 전문화된 독서 지도사로서 역할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 분위기에 따라 일찍부터 자녀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려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아지면서[50] 주부들의 어린이 독서지도 활동도 활발했다. 자녀 독서지도는 전 시기부터 여성들의 몫으로 인식되었고 그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 중 '어린이 도서연구회'와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 [21] '어린이 도서연구회'는 양서 추천에 앞장 선 단체로 주목된다. 이 단체에서는 부모나 교사들이 자녀 및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양서 목록을 연령에 맞게 정기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목록은 전국 각지의 어린이 전문 서점과 도서관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되기도 한다.
>
> 〈기자가 권하는 어린이책 목록 무료 배포〉(《중앙일보》, 1995. 3. 6)

> [22]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은 현재 경기도 수원, 성남, 시흥, 광명과 경북 안동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매일 오전과 오후에 '전래동화 연구', '창작동화 비평', '그림책 비평', '서양 어린이 동화 연구', '만화공부', '동화창작', '독서지도 연구', '어린이 문학사 연구' 등 8개의 분과별 모임을 갖고 동화책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책에서 읽은 내용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격월로 '독서기행'이라는 이채로운 행사도 열고 있다.
>
> 〈동화를 읽는 어른모임 전국 확산〉(《중앙일보》, 1995. 3. 18)

이 두 단체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자녀 독서 지도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앞장서서 동화책을 먼저 읽은 후, 좋은 책은 권장하고 나쁜 책은 가려내며, 정기적으로 독서 지도 방법은 물론 글쓰기 교육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독서지도에 앞장섰다.

한편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하이텔 주부 동호회 '좋은책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한 달에

(50) 〈공공도서관마다 어린이 독서열기〉(《중앙일보》, 1994. 8. 30)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외부 강사의 강연회나 세미나 등을 열었다. 자녀의 독서 지도와 육아도서에 관해 정보를 나누는 것이 주요 활동으로서, 동호인들은 평소에 통신으로 좋은 책을 서로 소개하고 독후감 등을 나누었다. 이 모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집으로 책을 사 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 가정에서 위인전, 명작 동화류의 전집을 일괄 구입하여 비치해 두고 있었지만, 비싼 돈을 들여 사놓은 책들이 아이들의 흥미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호인들은 "낱권의 좋은 책을 사보는 방향으로 책 문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계몽운동을 펼쳤다.(51) 이 외에도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건전한 청소년 독서분위기 형성을 위해 '주부 청소년 독서상담원'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했다.(52) 자녀들을 위한 독서운동이 여성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4.2. 1980년대~2000년대 여성 독서경향

1980년대 이후도 독서경향에 대한 조사 분석은 주로 출판계의 동향, 베스트셀러의 파악 등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지만 이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 통계청 등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일반 여성이나 여학생들의 독서 내용, 독서 시간, 독서 활동 등 독서경향의 구체적인 판도를 읽어낼 수 있다.

(1) 주요 통계로 본 여성 독서경향

1981년 1월 경희대 홍기선 교수(신방과)는 "한국인의 독서 형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주부, 공장 근로자, 대학생, 고교생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주간지, 사회, 어학, 예술, 문학, 기타 교양서적 등 9개 분야의 독서물에 대한 독자들의 취향을 리서치했다. 이 조사에서 독자층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정서물'이었고 그 독자 대부분이 여성과 노동자였다. 이에 반하여 직장인 · 대학생 · 고교생들은 승진, 취직, 시험, 실력향상 등을 위해 '기능물'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53)

1982년 〈최근 독자들의 잡지 구독 경향〉(《중앙일보》, 1982. 2. 10)에서는 당시 독자들의 잡지 구독 경향을 게재했다. 당시 잡지계에서는 순수 문예지, 일반 종합지의 판매 부수가 전대에

(51) 〈책 낱권으로 사주기 운동 펼쳐〉(《중앙일보》, 1996. 2. 29)

(52) 〈주부 독서상담원 모집〉(《중앙일보》, 1988. 10. 6)

(53) 〈직장 · 대학생에겐 기능물이 인기 여성들은 정서물을 애독〉(《중앙일보》, 1981. 1. 9)

비하여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 교양 잡지의 독자층은 그런대로 유지 내지 확산되고 있었다. 잡지계에서는 그 원인을 여성 독자 증가 추세와 대학생 독자의 구매력 감소, 독자들의 흥미 위주의 독서경향 등에서 찾았다.(54)

한편 〈공단주변〉(《중앙일보》, 1982. 10. 5)은 공단 주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이 주목된다. 80년대에 들어서 공단 주변의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높여야겠다는 의식이 유달리 강해졌다. 이에 따라 독서클럽을 결성하여 책을 돌려가며 읽고 독후 활동을 벌이는 등 독서에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당시 여성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이 일반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 현상은 여성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성취의 욕구가 강해진 데서 오는 결과로 분석되었다.(55) 이들이 읽는 책은 주로 에세이나 소설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당시 『그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사랑학 개론』 등과 『개인교수』 등이 인기였다. 또한 현장고발 또는 밑바닥 세계를 파헤친 소설류도 꾸준히 애독되고 있었는데, 독서 취향이 감상적이고 읽는데 부담이 적은 에세이나 소설류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서율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56)

한편 2000년대에 들어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남녀 독서량을 제시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3 월평균 독서량(일반도서: 2004~2007)(문화관광체육부(http://www.mcst.go.kr/main.jsp)의 통계 자료)

월평균 독서량 (일반도서)분류	2004		2006		2007	
	성별(남성)	성별(여성)	성별(남성)	성별(여성)	성별(남성)	성별(여성)
사례수_명	500	500	505	495	505	495
없다_%	49.20	41.80	33.90	36.40	37.80	36.60
1-2권_%	38.60	41.40	48.70	46.30	47.10	46.70
3-5권_%	8.60	13.20	13.30	12.90	9.90	12.30
6-10권_%	2.60	2.40	4	3.80	2.60	3
11-15권_%	0.20	0.80	0	0.60	1.20	0.60
16-20권_%	0.20	0.40			0.40	0.40
21권 이상_%	0.60	0	0.20	0	1	0.40
전체 평균_권	1.20	1.50	1.50	1.50	1.90	1.70
독서자 평균_권	2.40	2.50	2.30	2.30	3	2.70

(54) 〈최근 독자들의 잡지 구독 경향〉(《중앙일보》, 1982. 2. 10

(55) 〈여가 즐기는 생산업체 여성근로자 교양 · 취미클럽 늘고 있다〉(《조선일보》, 1981. 6. 7)

(56) 〈공단주변〉(《중앙일보》, 1982. 10. 5)

〈표 3〉의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중후반기의 남녀의 독서량은 거의 같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월별 읽은 독서량 중 많은 권수를 보이는 항에서는 여성이 다소 우세한 수치를 보인다. 이를 보면 2000대인 최근 독서계에서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수준, 혹은 좀 더 높은 수준의 독서량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초기 여성 독서를 촉구하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라 하겠는데, 이제 여성은 독서의 촉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남성보다 더 앞서서 책을 읽는 존재가 된 것이다.

(2)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여성 독서경향

30대 여성소설가 베스트셀러 장악

공지영씨 「고등어」 40만부 찍어

신경숙·김형경씨 작품도 인기

개인·가족문제 중시경향 반영

그림11. 〈30대 여성소설가 베스트셀러 장악〉 (《중앙일보》, 1995. 6. 6)

1980년대 이후에도 여성들의 독서경향이 전 시기와 같이 문학류와 가벼운 읽을거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의 〈독서경향〉(1984. 9. 20) 조사에 따르면 여성 독자 중 30대 이전의 미혼 여성들은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김혜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레로버스카 글리아저),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천경자), 『죽음보다 깊은 것』(미우라 아야코) 등 에세이집을 많이 읽고 있었다. 가정주부들은 일본소설 『오싱』(하시다 스가꼬) 등 멜로드라마적인 내용의 소설이나, 『지혜롭게 사는 여성』(이시형) 등 화제의 책이나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정원식), 『어머니 문좀 열어줘』(범서출판사) 등 육아-가정 교육에 대한 서적들을 꾸준히 찾았다. 보다시피 여성 독자들의 독서 수준은 감상적인 문학류나 에세이류 혹은 자녀교육 관련서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독서계는 '여성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문학계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문단에서도 여성 작가들이 장악하는 형편이었다.

> [23]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의 1년간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 공지영의 『고등어』와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이 소설 분야 1, 2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신경숙의 『깊은 숨을 쉴 때마다』, 김미진의 『모짜르트가 살아있다면』, 김형경의 『세월』 등이 10위 이내를 차지했으며,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신경숙의 『외딴 방』,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도 문단의 주목을 받는 화제작으로 꼽혔다.
>
> 〈문단의 여성화 세계화 뚜렷〉(《중앙일보》, 1995. 12. 16)

[23]에서 보다시피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30대 여성 소설가들의 작품들이다. 30대 초반의 동세대에 속하는 여류들은 단순히 잘 팔리는 작가로만 분류되지 않고, 문단에서 문학성도 평가받는 작가들이었다.(57) 이들 여성작가들은 자전적 성장소설이나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었는데 여성 독자층에 의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것은 여성 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58) 당시 여성소설 붐에 대하여 평자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권력과 이념 등 거대 담론이 지배적이었으나 90년대 들어 개인의 실존이나 그것을 결정하는 가족의 문제와 같은 작은 담론이 더 주목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59)

이와 함께 각종 문예지에서는 문단의 여성화 현상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소설과 사상》 1995년 가을호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문단의 여성화〉에서 김성곤은 "작가들의 관심이 외면적인 것에서부터 내면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에서 환상적인 것으로, 집단적인 것에서 개인적으로 침잠해 감에 따라 여성 작가들이 부상하고 문학 역시 심각하게 여성화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세계문학》1995년 가을호에서 배은경은 공지영, 최영미, 공선옥, 김형경 등 30대 여성 작가들의 책이 잘 팔리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980년대부터 강한 자기실현 욕구를 보여온 젊은 여성층, 즉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40~50대 전업주부들의 정체성 위기가 여성들로 하여금 글쓰기와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페미니즘 계열의 작품이 잘 팔리게 된 것은 소득 10,000 달러의 선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에 따른 여성 독자층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보기도 했다.(60)

한편 여성 독자가 우세인 독서계를 반영하듯 출판가에서는 20대 직장 여성을 공략하는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출판계에서는 이들의 정서를 염두에 두고 기획 단계부터 광고까지 일관되게 그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전략을 세웠다. 예컨대 모성애를 자극한다든가, 성공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든가, 적절한 수준의 교양을 보장한다는 것 등으로 다음과 같은 책들이었다.

(57) 신경숙은 올해 '현대문학상'을, 이혜경은 권위 있는 신인문학상으로 꼽히는 '오늘의 작가상'을 각각 차지했다. 김형경은 94년도에 국민일보 1억 원 고료 문학상을 받은 바 있고, 공지영은 해마다 주요 문학상의 강력한 후보자로 꼽히고 있었다.

(58) 김선남(2002), 『독서문화 베스트셀러』, 일진사, 150.

(59) 〈30대 여성소설가 베스트셀러 장악〉(《중앙일보》, 1995. 6. 6)

(60) 〈문단의 여성화 세계화 뚜렷〉(《중앙일보》, 1995. 12. 16)

[24]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 쥐스킨트의 「좀머씨 이야기」, 김정현의 「아버지」, 잭 캔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아키히로의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등.

〈20대 직장 여성이 베스트셀러 좌우〉(《조선일보》, 1998. 3. 19)

그런데 대형서점 중에서 20대 직장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영풍문고'와 '을지서적'이었다. 그래서 종합성이 강한 '교보문고'나 인문분야가 강세인 '종로서적'과 달리 위의 두 서점에서는 20대 직장 여성들의 취향에 맞는 책들이 순위에서 강세를 보였다. 다시 말해 당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들은 대개 이들 여성 독자들의 구매력과 상관된 것들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당시 온라인으로 20~30대 독자들의 도서 구입 상황을 세대별 또는 성별 특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독서시장의 주류라 할 수 있는 20, 30대의 책 선택은 전체 독서층의 주경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성별에 따라 구매 도서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표-3 20~30대 남녀 베스트셀러 분야 〈2030세대의 책 선택〉(《조선일보》, 2001. 9. 26) 참조

순위	20대 남자 베스트셀러 분야	20대 여자 베스트셀러 분야	30대 남자 베스트셀러분야	30대 여자 베스트셀러 분야
1	어학학습	경제 경영	경제 경영	아동
2	실용 상식	사진 에세이	실용 상식	아동
3	에세이	인문 교양	경제 경영	인문 교양
4	사진 에세이	수필	경제 경영	유아용 영어학습서
5	인문 교양	소설	에세이	아동
6	경제 경영	경제 경영	경제 경영	경제 경영
7	수험서	실용 상식	사진 에세이	아동 교양만화
8	어학학습	소설	경제 경영	사진 에세이
9	종교 월간지	아동	교양 월간지	아동 교양만화
10	어학학습	수험서	인문 교양	아동 교양만화

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대 남성들은 영어 단어 학습 교재인 『콜린스 코빌드 영어사전』을 가장 많이 사 본 반면, 여성들은 스펜서 존스의 베스트셀러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베스트셀러 1위였다. 20대 남성들이 외국어와 컴퓨터 서적을 주로 구입한 데 비해, 여성들은

『거울』, 『호밀밭의 파수꾼』 등 소설과 에세이류를 선호했다. 이를 보면 20대가 자기중심적인 책을 선택한 반면, 30대들은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이나 자녀를 위한 책을 많이 골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 남성의 경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경호』를 비롯하여 '베스트 10' 가운데 6권이 경제 · 경영서와 자기계발서로 나타났다. 30대 여성들은 20대 여성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등 무려 19권의 어린이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 30위 안에 있어 주로 자녀에게 읽힐 책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위권 안에 소설은 『바이올렛』 단 한 권밖에 되지 않았다.[61] 기혼 여성이 다수인 연령대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한편 김선남(2002)은 『독서문화 베스트셀러』(일진사, 2002)에서 성별 · 연령 · 학력별 독서 계층을 대상으로 베스트셀러에 대한 독자들의 취향을 조사 연구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여성 수용자들의 베스트셀러 추구 동기만을 선별하여 제시해 보면 [25]와 같다.

> [25] (1) 여사원 (26세) :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하며, 한편 독자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어야 한다. 주로 서점을 이용하여 베스트셀러를 접촉하며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선택하며, 한달 평균 2-3권의 책을 읽는다. 여자 대학원생(27세) : 베스트셀러가 복잡한 머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읽는다. 교양서적보다는 소설을 더 선호한다. 선택의 기준은 재미가 있는지의 여부. 한달 평균 3-4권의 책을 읽는다. (2) 여자 대학생(20세) : 작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정 베스트셀러를 읽는다. 여자 대학생(19세) :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을 선물 받는 것보다 최근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선물 받는 것이 좋으며 교양서나 비소설류보다 흥미위주의 베스트셀러를 즐겨 읽는다. (3) 여자 회사원(25세) : 베스트셀러는 그때의 기분이나 심리에 따라서 읽으며, 특히 기분이 우울할 때, 심리적으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효과적이다. 한달에 3-4권의 책을 읽는다. 여자 대학생(25세) : 베스트셀러는 심심풀이로 읽는 편이며 한달에 2-3권의 베스트셀러를 읽는다.
>
> 김선남(2002), 《독서문화 베스트셀러》, 일진사, 81-83 참조.

(61) 〈2030세대의 책 선택〉(《조선일보》, 2001. 9. 26)

[25]에 제시된 여성들의 베스트셀러 독서 동기에 대한 응답에서, 김선남은 (1)의 부류를 '낙천주의형' (2)의 부류를 '부화뇌동형' (3)의 부류를 '쾌락주의형'이라 분류한 바 있다. 즉 낙천주의형은 베스트셀러에서 재미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위 도구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이며, (2)는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주위의 반응에 따라 베스트셀러를 읽는 경우이며, (3)은 마음이 외롭거나 무료할 때, 지루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으로 대리만족이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경우라고 분류했다.(62) 이상의 독서 동기에서 베스트셀러의 주고객층인 20대 중반의 여성 독서경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전반적으로 깊이있는 책읽기보다는 가벼운 읽을거리를 선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92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근현대 여성 독서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한 바, 초기 일제강점기부터 여성 독서를 촉구하는 소리들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독서는 자녀 교육과 연결되어 그 필요성이 중시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여성 독자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일반 여성 대부분은 교육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는 책 읽을 틈조차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경향을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쳐 대개가 문예물에 편중되어 있어 독서 범위가 좁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0~70년대의 여성 독서의 양상을 보면 이전 시기와 그 지형도를 달리하고 있다. 전 시기까지 계몽 대상이었던 여성 독서자가 주체적인 입장의 독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성 독서클럽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자녀를 위한 독서교육에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상을 보였다. 이제 여성들은 주체적인 읽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주도적인 독서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출판 시장에서는 여성 독자를 겨냥한 소설들의 판매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당시에 여류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여성 문제 · 애정 문제 등을 다룬 소설들은 여성 독자들에 의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벅찬 현실 문제보다는 여성의 문제를 센서티브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류의 소설이 여성들에게 크게

(62) 김선남(2002), 앞의 책, 81-83 참조.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여성지들도 많이 팔렸다. 이러한 현상에서 1960~70년대의 여성 독서경향은 이전과 다름없이 감상적인 문학류에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공공도서관 및 각종 단체, 대학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회교육이 실시되었다.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의 무드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독서 프로그램 등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독서지도사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어린이 도서연구회'나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과 같은 자녀 독서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독서경향을 보면 전 시기에 이어 문단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주체도 여전히 여성 소비자였다. 앞 시기와 같이 여성들이 생산해내고 여성들이 만드는 독서시장의 베스트셀러는 대개 감성적인 여성문제, 애정문제 등을 다룬 소설류나 부담이 적은 에세이, 감각적인 여성지 등이 주류였다. 이를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독서 분야나 내용은 거의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고 하겠다. 하지만 독서량을 보면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수준, 혹은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상 근현대에 이르는 여성 독서의 흐름을 고찰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독서 활동은 계몽 대상에서 주체적인 대상으로, 주체적인 대상에서 주도적인 대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서량도 증가했고 독서 시장을 좌우하는 책 소비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서 내용면에서 본다면 문학이나 에세이, 잡지류 등 편파적인 읽기에 머물러 있어 그 깊이와 넓이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본고의 독서경향 분석은 도서관 통계와 출판 동향, 이와 연관된 베스트셀러 조사, 여론조사, 통계청 자료 등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실제로 과거로 갈수록 당대 독서 현상을 드러내는 자료는 일관성과 체계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런 중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여성 독서의 경향성에 주목하여 그 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보다 총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여성 독서계는 물론 전반적인 독서현상에 대한 방향성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新女性》(1923-1934)
- 《女性》(1936-1940)
- 《朝鮮日報》(1920-2000)
- 《東亞日報》(1920-2000)
- 《中央日報》(1960-2000)

- 김미지, 2005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 여학생과 연애』, 살림.
- 김봉희, 1999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선남, 2002 『독서문화 베스트셀러』, 일진사.
- 김영기, 1999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한울 아카데미.
- 김종성, 2000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 남산도서관, 2002 『80년사 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
- 양평, 2001 『베스트셀러로 본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 오경복, 2005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 1970년대 소비적 사랑의 대리체험적 독서", 비교한국학 13, 국제비교한국학회.
- 윤금선, 2009 『우리 책읽기의 역사』(1-2), 푸른역사.
- 윤여탁 외, 2006 『국어교육 100년사』(1-2),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은정, 2005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 -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시에 나타난 독자의 실천적 독서욕망", 한국시학연구 13, 한국시학회.
- 이임자, 1998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 이중환 외, 2001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 천정환, 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 한국교열기자회, 1998 『한국신문방송 말글백년사』, 한국프레스센터.

어린이책을 권장하는 사회

정 병 규 Jeong, Byeong-gyu
출판도시문화재단
jbk0518@yahoo.com

04

현재, 2012

2010년 겨울, 어느 방송사 TV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당시 꽃미남이라고 알려진 주연 배우가 극중에서 진동규 시인의 시집 '아무렇지도 않게 맑은 날'을 읽은 적이 있었다. 이 장면 뒤 시집은 느닷없이 날개 돋힌 듯 서점에서 팔려 나갔다. 드라마 제작진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시집은 이미 수많은 독자들 손으로 넘어가 한때 국민 애송시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에 특별히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인기 연예인이 드라마 배경에 책을 두고서 시청자 눈에 띄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독자가 생기는 현상, 일부 고급 독자층은 마땅찮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고 얕은 독서 문화의 현주소라고 보아야 한다.

이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 2001년 11월에 방송을 시작해서 중간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다시 2007년 11월까지 방영되었던 '느낌표'. 2003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능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 프로그램은 매우 특이한 구성으로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과 지역을 취재하면서 흥미를 끌었다. 특히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의 꼭지는 매달 1권의 선정 도서가 선정될 때마다 출판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서 소개하는 책은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열풍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어린이책 분야도 스무 종 남짓 되는 책 중에서 두 권이 선정되어 작가와 작품이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기의 여세를 몰아 도서관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러 도시를

선정. 이른바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앞장서기도 했다. 한마디로 독서열풍 그 자체였다. 비록 나중에는 시청률이 떨어져 폐지되기는 했으나 남긴 것도 많았다. 선정 도서의 종류가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전의 책 소개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었다.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방식은 그 시대 매체가 어떤 것이 주류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가 달라진다. 종이 활자가 지배하던 때에는 단연코 신문, 잡지, 등이 책읽기를 이끌어 갔던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물론 지금도 종이 신문, 잡지 등은 여전히 인쇄되어 나오지만 몇십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이 다른가? 지금과 같은 시기를 흔히 종이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시대 즉 과도기라고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활자 매체가 소개하는 것보다 연예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소개하는 책이 훨씬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다. 이미 일간지들은 주말(토요일)에 발행하는 소위 '북섹션' 지면이 예전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책을 소개해도 실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슈가 된 인물이 책을 출간했을 때는 특별히 지면에서의 소개가 없더라도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정치적 인물이 되기 이전에 무대 위에서 진행자와 관객이 대화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일부 인물들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있다. 이를 텔레비전이 소개하고 인터넷에서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내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파력과 파괴력이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로도 실시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다. 일간지와 주간, 월간지의 활자 지면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와 이미지 영상이 오늘 날의 젊은 세대를 압도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소설가 이외수도 인기 연예인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일간지 기자에게 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 그가 말한 유명 연예인이란 아이돌 그룹 멤버, 개그맨, 화제 프로그램 단골 명사, 토크쇼 진행자 등을 일컫는다. 일간지가 그들을 활용해서 취재 또는 글을 받아다 내 보내라는 것인데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를 얘기한다. 대체로 무대에서 오랫동안 진행하는 이들은 상당한 독서 편력이 있는 애서가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였다.

모두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독서 활동을 '학습'과 동일시하는 독특한 문화에선 앞서 얘기 했던 사례들이 오히려 책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인기 대중 문화인들이 권하거나 의도적으로 노출한 책에 접근이 왜 더 쉽고 좋은가.

독서 기관 단체, 학교, 도서관 등에서의 권장 도서나 목록은 비록 양서를 소개하는 면에서

양과 질적으로 풍부하지만 반대 급부, 즉 독후감이나 독서 이력철을 요구받을 때가 많다. 이에 비해 전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감성을 파고든다. 어른들은 이 점을 지나친다. 지금이 감성 사회라는 것을. 전통에 기반한 책 읽기, 독서 캠페인, 독서 권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1908년 '소년'지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어린이책이 거쳐 왔던 지난 흔적을 더듬어 보면 앞서 나타난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결의 답이 보인다.

100년 전 「소년」과 「어린이」의 탄생

우리나라에 처음 '소년'과 '어린이'의 언어를 사용하고 매체에 등장시킨 이는 육당 최남선과 소파 방정환이다. 당시 이들의 문화 운동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지만 적어도 어린이책 역사에서 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소년〉지 창간호 제 1권에서 이 잡지의 취지를 보면 당시의 절박함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잡지의 간행 취지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지 아니 하리다. 그러나 한마디 간단하게 할 것은 **「우리 大韓으로 하여금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면 能히 이 責任을 勘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이 雜誌가 비록 적으나 우리 同人은 이 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여 온갖 方法으로 힘쓰리라. 少年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라 아울러 소년을 訓導하는 父兄들에게도 이를 읽게 하라.'

위의 발행사에서 보듯 국한문 혼용의 최초 잡지인 〈소년〉은 그 때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소년들을 계몽, 교화 시키는 목적을 직접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 잡지의 목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비롯해, '이솝이야기', '거인국 표류기' 등의 문학 분야 외국 동화와 함께 문학 장르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 현상을 알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甲童伊와 乙男伊의 相從', 세계 역사 인물이야기와 '봉길이 지리공부' 등 잡지가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형식을 두루 담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투고를 요청하는 '소년문단'을 두어서 개인의 감회를 적은 글, 일기, 편지, 견문기, 고향 이야기, 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모든 원고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게 유일한 조건이다. 여기에 편집진은 마지막으로 덧붙이길 "또 한가지 말씀 할 것은 본지가 소년문학을 주장하여 발간함이 아니라 다만 독자의 글을 장려하고 구경도 할 겸 이 문단을 둠인즉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는 사정이 어려운즉 아무쪼록 단문을 환영할 수 밖에 없는지라 부득이 몇 가지 규정을 두어 제한하오니 이에 유념하여 어기지 말도록 하시오"라고 당부한다.

이런 지면의 성격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잡지로서 여러가지 시도를 한 점, 창작 작품이 당시에는 거의 없어서 외국 문학을 번역해 소년소설로 다듬어 소개한 점,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면이 창간호부터 나온 것으로 미루어 시사교양 보다는 오히려 문예지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면 구성을 보면 신문명을 소개하거나 이를 독자들에게 계몽, 전달하려는 목적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잡지 형식이야 일본 잡지들의 틀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과 전체 구성은 지극히 토속적이다. 마치 서양화법으로 조선의 풍경화를 보는 맛이랄까? 그렇기에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선 이 잡지의 출현이 놀란 만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하다. 특히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예능, 문장가들에게는 더 그랬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참 뒤 1923년에 나타난 「어린이」잡지는 「소년」보다도 훨씬 더 어린이에 가깝게 다가온 혁신적인 매체였다. 일본 동경 유학 시절,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하여 힘쓰기로 결심한 방정환은 고국에 돌아온 뒤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칠 때 까지 이 잡지에 힘을 쏟았다. 그림을 무척 잘 그렸던 선생은 이야기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가족들은 전한다.

"어렸을 때부터 옛날 이야기를 잘 하여서 동리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늘 하시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옛날 이야기를 잘 하였던지 하나 둘 모이던 아이들이 열 스물씩 모이고 밤마다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도 많아서 방에서는 도저히 다 들일수가 없어서 일가집

마당을 빌려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입장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동화 대회의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입장권이라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냥깨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 몰려드는 청중은 어린이들 뿐 아니라 부인들 노인들까지도 성냥깨비를 들고 줄을서서 들어 밀렸다고 하니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어린이」1949년 5월호. 17쪽〉

이런 이야기꾼이 만든 잡지는 다양한 구색을 갖춘 어린이 대중 매체로 자리 잡는다. 또한 오늘날의 어린이 잡지 편집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어린이〉지가 발행인이 바뀌면서 137호까지 펴낸 끈질긴 힘은 무엇보다도 많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였다. 물론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었던 때에 자신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춘 책이 무척 반갑기도 했지만 발행하는 곳 역시 그 어려운 시기에 제 때에 맞추어 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123호 편집 후기에는 발행한 지 1주일이 못되어 전부 팔려서 서울 시내 몇 몇 학교에도 책을 보내지 못했고 여러 지방에는 몇 천 권씩 주문한 책을 못 보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창간호부터 방정환은 여러 필명으로 지면을 채우기도 했고, 동요 작곡가인 윤극영의 새 곡보가 이 잡지를 통해 소개되는가 하면 마해송의 창작동화 「떡배단배」를 비롯해, 이영철, 최영희, 이원수, 어효선, 고한승 등의 당대 내노라하는 작가들의 창작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다.

이제 들려주고 듣는 직접 구연 방식에서 이야기가 활자화 되는 시대로, 그 중간 매개로 이른바 작가와 지면, 독자가 형성되는 어린이 문학의 근대가 시작 된다. 이 뿐 아니라 독자들의 투고란이 글솜씨의 발표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잡지를 보고 자란 청소년 어린이들 중 일부가 수 년이 지난 뒤 창간 7주년 기념호에 쓴 글을 보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나의 나이가 열 세 살 이었고 소학교 삼년 때 일이외다. 옛날이야기라면 밥도 안 먹고 잠조차 안 졸면서 쫓아다니며 듣는 성질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동무끼리 이야기 잘한다는 함해라는 아해가 우리 보기에는 퍽도 이상한 순 국문만으로 쓴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바로 방정환 선생께서 동경서 나오셔서 아동잡지라고는 조선서 처음인 〈어린이〉창간호를 발행하던 때입니다. 즉 그 책이 〈어린이〉 창간호였습니다. 그 책 첫 페이지의 이야기로서는 '성냥파리의 소녀'란 가장 애처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칠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가고 수많은 이야기를 읽었지만 아직껏 나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눈 나리는 밤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상냥 파는 애처로운 소녀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책 파는 곳과 그 책이 매달 두 번씩 나온다는 것을 듣고 곧 사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잡지라고 본 처음이었고 내가 예술이란 것에 마음깊이 취미를 갖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참으로 〈어린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것을 나는 열 번이라도 서점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내가 〈어린이〉를 사랑해 읽었는지는 그때 〈어린이〉, 〈개벽〉, 〈신여성〉을 팔던 이 곳 화신상회 주인이 이렇게 나를 보고 말한데 증명이라도 서줄줄 압니다. 〈어린이〉를 가장 일찍이 사러 온 아이도 너 뿐이고 일일 발행호를 사가지고 간 그 이틀 만에 또다시 십일호를 사러온 아해도 너 뿐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어린이〉를 애독하였나! 여기에는 현재 교육자들이 생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 들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학교 교과서보다도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어린이〉란 아동잡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반드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줄 압니다. 그 후 우리 학교 안에서 함해 동무와 내가 주동되어서 어린이 독자회를 조직 하였습니다. 이 회가 점점 자라나서 여러 가지 형태는 변하였을지언정 조선 사회에 있어서 적은 모델이었으나 지금까지 가장 충실한 일을 하여 왔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모임들이 어린이 독자회로 모여든 것이 성장한 지금에 있어서는 조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게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가장 꾸준히 일하여 간다는

것도 알아 주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우스운 일은 그 모둠이 모인 후에 〈신소년〉이란 잡지가 생겼을 적에 함해동무는 〈신소년〉을 보자하고 나는 〈어린이〉를 보자고 하고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겠지만 그 때는 꽤 열심히 싸웠습니다. 나중엔 또 서로 타협했지만... 또 한가지 우스운 것은 그 후 내가 방정환선생님의 「사랑의 선물」을 사서 읽었을 때입니다. 어찌나 재미가 있든지 할머님의 걱정하시는 것도 안 돌보고 하루밤을 세워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내 생각에는 제목이 사랑의...운운 한 책이면 모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책인줄

알고 할머님을 졸라서 큰돈을 들여서 서점에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눈물」이란 것을 사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무슨 뜻인지 의미도 모르겠고 아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읽어가니 조금씩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끝가지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책이 영국 문호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것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이 읽어서 재미있을 책이 그때 어린 나에게 아무 재미가 없었던 것은 정한 이치외다. 이것이 내가 소설을 읽은 맨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운운...제목만 붙으면 「사랑의선물」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인줄만 안 나의 어린시대의 순진한 생각이 퍽이나 우습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칠년 동안을 모든 고난과 싸우면서 조선의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가 이만큼이나 성장한 데 대해서 방선생과 리정호형 및 여러 기자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30년 1월 마지막 날 「1930년 3월호. 창간 7주년 독자 감상문 중에서」

이와 같이 〈어린이〉지의 영향으로 성장한 이들 중 몇 명만 특별히 뽑아서 글을 쓰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한 때 '주간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던 김영만 선생은 한국잡지 1백주년 기념 총서 '잡지예찬'에서 〈어린이〉를 예찬하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잡지를 대하게 된 것은 보통학교(초등학교)시절에 애독한 어린이 잡지 「어린이」다. 물론 당시에 나는 누가 〈어린이〉를 펴내는지도 모른 채 그저 탐독하고, 황홀한 꿈을 펼치곤 했다. 동요같은 것을 투고해서 내 이름이 잡지에 실리자 쾌재를 불렀던 기억도 난다. 달이 바뀔 때마다 새달치 〈어린이〉를 손에 쥐고 느꼈던 가슴 두근거림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다. 〈어린이〉는 나에게 있어 희망찬 내일을 밝혀줄 등불로 여겨졌다. 「어린이」를 생각하면 나의 소년 시절이 눈앞에 생생히 되살아나 펼쳐지는 것 같다. 독자인 나를 이토록 만족 시켜준 〈어린이〉는 틀림없이 훌륭한 잡지였다고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도 그렇듯,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으로 일생을 책과 함께 보내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정보와 책을 소개하는 저널의 직업에 종사하게 했던 원동력은 바로 당시의 어린이 잡지였음을 전하고 있다.

물론 잡지가 이 시기에 유일하게 〈어린이〉지만 존재 했었던 것은 아니다. 1920년대에만 20여 종의 어린이 잡지와 신문 등의 저널이 창간과 폐간을 거듭하며 오히려 요즘보다 더 전성기를 구가했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919년 3 · 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가 '무단정치'의 틀을 바꿔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신문지 법에 의한 신문 · 잡지의 발행을 일부 허용하였다. 이때로부터 1945년까지 30여 종 남짓 어린이 신문 · 잡지가 창간되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발행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기간행물은 거의 없다. 심지어 최남선의 경우 〈소년〉이 한일 강제 합방 뒤 일제에 의해 1911년 5월 발행 정지를 당한 뒤 1913년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 등을 연이어 발행하기도 했다. 이 간행물들의 창간과 폐간의 기간으로 볼 때 일제 총독부의 조치에 맞서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 하나가 폐간하기 전 이미 다른 간행물을 만들고 이에 대처하는 민첩성까지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뒤 이들 〈아이들보이〉등 현상문예 작품 공모에 응모한 독자들과 필진들은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문학과 언론 쪽에서 활동한다.

대부분의 어린이 잡지가 짧은 수명을 마쳐야 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조선총독부의 강제 폐간이었다. 잡지들의 성향이 민족의식 고취, 일본 제국주의 풍자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명분 삼아 아예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없애려 한 점. 그 다음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종교 기관이 직접 발간에 관여한 경우는 더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유가 없었다. 〈아희생활〉의 경우 당시 어린이 잡지에서 가장 오래 발행된 것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발행에 직접 참여해 18년간 통권 218호까지 발행했다. 그러나 〈아희생활〉역시 일본 제국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1944년 1월 강제 폐간 된다.

어린이 잡지의 전성 시대

1906 소년한반도	국판 50면 / 통권 6호
1908–11 소년	신문관 / 최창선 –1911.5 A5판 80면–국판 150면
1913–1 붉은저고리	신문관 / 최창선 –1913.6 타블로이드 8면 격주간
1913–4 새별	신문관 / 최창선 –1915.9 통권 16호, 문예중심지

1913–9 아이들보이 신문관 / 최창선 –1914,9

1920–1 새동무 새동무사 /한석원

1923–03 어린이 개벽사 /방정환 1934–12 타블로이드판→4 · 6판→국판 / 1934년 통권 122호로 정간 – 1948년 복간 – 1949,12 통권 137호 폐간

1923–10 신소년 이문당〈신소년사〉청소년 대상 /신명균 주재, 김갑제 이주홍 편집, 1928년, 국판

1923–11 샛별 (후에 '유년'으로 개칭 박홍근 주간 / 개성

1923–12 반도소년 반도소년사 /박준균 주간 1925–11

1925–05 신진소년 신진사 /박준균 주간 1926–06 4 · 6판

1925–08 소년시대 소년시대사 /김진태 주간 /격월간, 국판

1925–10 소년주보 김종 주간

1925–11 새벗 새벗사 /고병돈 주간 1933–03 4 · 6판

1926–03 아희생활 아희생활사(조선야소교서회)/ 한석원,정인과,임홍은,편집 1944–01 4 · 6판→국판 18년간 통권218호

1926–06 소년계 최호동 주간 /1929–06

1926–06 영데이 영데이사/ 최상현 주간 4 · 6판

1927–10 학창 학창사 /민대호 주간 4 · 6판

1927 아동낙원

1927 장미

1928–01 소년조선 소년조선사/ 최순정 주간 1929–06 4 · 6판

1929–01 소년세계 평양소년세계사 /이원규 편집

1929–03 학생 개벽사 /방정환 국판

1929–06 조선아동신보 조선아동신보사 /백대진 주간 국판→타블로이드 판

1933–02 소년중앙 조선중앙일보사 /김동성 편집 국판

1933–05 아이동무 윤산온 / 평양 1935–08 4 · 6판

1934–12 아동세계 조선아동교육회 /김소운 주간 1935–08

1935– 신아동 조선아동교육회/김소운 주간

1935–01 소년중앙 조선중앙일보사(여운형 대표) /김동성 편집 국판

신아동 1935–08

1936–01 동화 최인화 주간 1937–09 4 · 6판

1936–02 아동문예 아동문예사 /손완윤 주간 "한일문병용, 국판"

1936–02 카톨릭소년	간도 용정 카톨릭소년사 /원형근(프랑스인) 간 황덕영 편집
1936–02 목마	김소운 주간 1938–09
1937–02 빛	동경 /꼴랄 신부 주간 “격월간, 4 · 6판”
1937–04 소년	조선일보사 /윤석중 편집 1940–12
1937–09 유년	조선일보사
1940–09 성가정	(후에 ‘빛’으로 개제발행)
1943–01 소년	영창학교 /구자옥
1945–08 어린이 신문	고려문화사 /윤석중 간?김영수 편집
1945–12 참새	김상옥 주간
1945–12 새동무	김원용 편집
1945–12 별나라	(복간)

이런 와중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져 빛을 발하는 잡지들도 있었다.

1936년 가톨릭 만주 연길 교구에서 창간되었던 〈가톨릭 소년〉의 경우 1960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같은 제호로 태어난 것이 현재 〈소년〉 잡지의 출발이었다. 80쪽으로 된 1월 창간호에는 마해송의 동화, 오원석의 축하 만화, 부수언의 표지 그림이 매우 뛰어난 구성으로 그려져 있다. 오히려 인쇄 기술과 편집 시스템이 잘 갖춰진 2000년대의 사진 이미지보다 훨씬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화폐 개혁 전에 100환이었던 책값은 화폐개혁 후 1967년 1월호부터 15원이 되었다. 이 잡지도 지령 100호째인 1968년 4월에 ‘신인 작가 추천 제도’를 마련한 이 후 아동문학계의 역량있는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 냈다.

〈가톨릭 소년〉은 1968년 7월호부터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발행인이 되었고 1972년 4월 제호를 〈가톨릭 소년〉에서 〈소년〉으로 바꾸게 된다. 그동안 가톨릭계 중심의 독자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보는 잡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잡지 본문 구성을 보면 많은 잡지들이 그렇듯 화보가 들어가고 창작동화, 그 달의 특집, 연재동화(소년소설), 학습난, 과학, 어린이를 위한 시, 놀이방, 이야기주머니, 인기 만화 순으로 200여 쪽을 족히 넘긴다. 이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장르를 모두 지면 안에 넣어야 한다는 잡지 본연의 의무감을 충실히 따르는 기본 편집 방향이 있었다. 신문 매체의 장점, 도서 매체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잡지의 숙명이었고 독자들은 문학적 소양과 지식, 교양을 이런 잡지에서 충분히 섭취했다.

〈소년〉에 이어 1964년 5월 「새소년」이 창간호를 내놓았다. 1948년 '문화당'에서 냈던 〈소년〉을 되살려내자는 어효선의 제의를 대한교과서주식회사가 받아들여 따로 '새소년사'를 설립해 편집진이 꾸려졌다. 문화당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전신으로 창업주가 먼저 발행했던 이 잡지가 전쟁으로 중단 되었던 것을 다시 잇는다는 취지였다. (잡지예찬, 한국잡지협회, 150쪽)

아동 종합 교양지를 표방했던 「새소년」은 그 당시 도심의 초등학교에 50~60부씩 기증을 하고도 독자가 늘지 않아 만화잡지로의 전환론까지 나왔었다. 이에 1966년 1월 2대 조연현 주간 체재로 바뀌면서 혁신호를 발행했다. 판형을 4 · 6배판 300면으로 하고 만화 중심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 뒤 1972년 8월 100호 기념 특대호(500면)까지 발행하면서 어린이잡지 시장을 의욕적으로 개척해 나가기도 했다. 이때 이 잡지에 연재되었던 김형배의 〈20세기 기사단〉, 김수정의 〈홍실이〉, 이우정의 〈수리수리 마구단〉 등은 만화 열기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5월5일에는 독자 100명을 아카데미과학교재사로 초대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하면서 잡지 부흥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운영난은 이같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잡지 유통체계의 취약한 보급망, 만화 시장 생태계의 변화와 치열한 경쟁이 결국 더 이상의 생존을 어렵게 했다.

「새소년」의 등장과 퇴장은 이미 어린이 잡지의 시대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기로에 있었음을 보여준 사례다.

소위 새로운 매체에 의해 기존의 매체가 도태되는 일이 이 때부터 시작된다. 잡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록을 발행하지만 결국 이 부록에 의해 본지가 사라져야 하는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46–소학생
1946–소년운동
1946–새싹
1947–아동구락부
1948–소년 1950년 폐간
1949–어린이나라
1952–11 새벗 기독교서회

이 때 1960년대 후반의 〈어깨동무〉와 〈소년중앙〉의 등장은 당시 함께 경쟁했던 「새소년」과 더불어 본격적인 어린이잡지 대중화시대를 여는 한편 소위 '잡지세대'를 만들어냈다. 이전까지는 아동문학 관련 개인과 동인, 종교계가 주로 발간에 앞장서 왔다면 이때부터는 보다 규모가 있는 단체와 신문사가 상품으로서의 '잡지'를 선택한 경우다.

1967년 1월에 창간된 〈어깨동무〉는 처음에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의 개인 사업 형식으로 어깨동무사를 내세워 발행하다가 1969년 4월 육영재단이 설립되면서 남산 어린이회관과 합쳐졌다. 처음 취지는 섬마을과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산골 마을 어린이들에게까지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창간호를 보면 마치 특정 인물의 홍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

본문이 시작되는 첫 장에 대통령 박정희의 친필 휘호가 나오고 그 뒷장에서부터 4면에 걸쳐 대통령의 가족사진이 한 면을 차지한다. 그시절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던 장면 중의 하나다. '동심은 꽃처럼 별처럼'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박지만 군을 찾아서'라고 작은 제목을 따로 붙인 화보에는 박지만의 8살 무렵 청와대에서의 생활 모습과 학교 생활을 7컷의 사진과 설명글로 할애하고있다. 모두 "지만 군은 엄마의 알뜰하신 보살핌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공부에 노력하고있다." "정자명 담임 선생님도 지만군의 깜찍스런 말의 재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꿋꿋이 씩씩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이어가는 데에 놀라셨단다." 등으로 찬사의 말을 싣고있다. 또 이어지는 뒷면부터는 '아름다운 수도 자라나는 서울'의 화보를 4면에 걸쳐 싣고, 서울 시가지, 백화점, 빌딩 건축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구성은 동시, 만화, 화보, 생각하는 페이지, 만들기로 짜여졌지만 중요한 지면에는 특정인의 홍보와 통치의 치적을 어린이 잡지에 스스럼없이 내보이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잡지가 한창 전성기 때에는 발행부수 15만 부 이상의 독자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편집과 취재, 표지 인물의 선정까지 당시 육영수 여사가 직접 지시하고 최종 사인까지 했던 각별한 애정의 이 잡지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점차 빛을 잃기 시작한다. 그러나 1980년대 보급되기 시작한 컬러 TV로 인해 어린이 교양 종합잡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자매지로 발행했던 〈보물섬〉 만화 잡지가 처음 의도는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훗날 자신을 쇠락의 길로 몰아갔던 덫이 되어버린 것도 아이러니하다.

만화가들에게는 주요한 활동 무대이면서 어린이들에게는 우상이었던 만화 연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너였다. 김원빈의 '주먹대장', 박수동의 '소년 고인돌', 이상무의 '울지않는 소년'을 비롯한 많은 만화 작품이 이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고 만화가들은 지면을 빌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결국 이 여파로 1982년 10월 만화 전문지 〈보물섬〉이 창간되었다.

우리나라 만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 김수정의 '아기 공룡 둘리', 김동화의 '요정 핑크',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윤승운의 '맹꽁이 서당', 이희재의 '악동이' 작품들이 모두 〈보물섬〉에 연재되어 나왔다.

〈어깨동무〉 창간 두 해 뒤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소년중앙〉의 등장은 우리나라 월간 어린이잡지가 〈새소년〉과 더불어 트로이카 시대를 연 서막이었다. 판형은 4 · 6판으로 300면 내외의 분량으로 나온 이 잡지는 '아동의 건전한 인격과 정서교육을 위해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 등을 통해 각 분야의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잡지의 등장으로 이전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문예지면이 대폭 줄고 그 자리를 최신 유행 로봇 상품 소개와 광고, 미국 만화 영웅들 소개, 일본 소학관과 독점 연재 만화, 껌 회사와 제휴해 응모 당첨자 축구볼 증정 등 지면을 거의 오락과 과학 학습 코너로 이끌어갔다. 아울러 부록 경쟁을 이끌었던 잡지답게 보통 7 · 8종 안팎의 끼워주기 상품을 함께 내보내는 등 경쟁 잡지간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1971년 1월호의 경우 7대부록이라는 표지 광고와 함께 7종을 나열했다. '어린이중앙' '우주소년 아텀' '타이거 마스크' '소년중앙일기' '어린이수첩' '시간표' 들의 학습 교재와 완구, 만화 부록을 넣은 잡지는 그 부록의 양만큼 책값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 문학 현상 공모를 해 우수 작품을 발굴하는 일을 했으나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쪽은 만화였다. 앞서 두 잡지와 더불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명랑만화를 정착시켰고 이 만화 열풍은 1990년대로 이어지면서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중앙〉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유명해진 만화가들은 이두호, 노석규, 이상무, 이희재 등 한국 만화계의 중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이 잡지는 만화가들의 선망이기도 했고 또 작품 생산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렇지만 중앙 일간지의 탄탄한 배경을 두고 있던 〈소년중앙〉마저도 자신의 덫에 걸리고 만다. 계층과 장르의 세분화로 만화 잡지 전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미 어린이 독자들은 순수 문예잡지, 또는 교양 잡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1994년 9월호를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양 잡지 시대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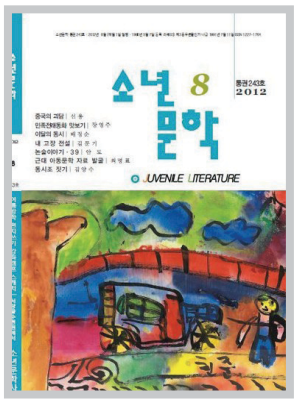
이들 잡지의 쇠락을 가져온 것은 만화 전문 잡지 〈아이큐 점프〉 〈소년 챔프〉 등과 〈윙크〉

〈이슈〉 등 순정 만화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만화 전문 잡지들도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등장으로 고전하기 시작해 2000년대 들어서 온라인 쪽에 자리를 넘겨주고 대부분 폐간되었다.

1985 –현재

1990년 5월 소년문학
1992년 3월 까치
1998년 12월 생각쟁이
2000년 8월 위즈키즈
2003년 9월 고래가 그랬어
2005년 10월 개똥이네 놀이터
2007년 5월 시사통

지난 1985년 이후 최근까지 어린이잡지의 명맥은 거의 끊어졌다. 더 이상의 창간은 주춤해졌고 기왕 발행중인 잡지들도 속속 폐간 또는 정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린이 문학 잡지 일부와 학습을 위한 보조 교재용 잡지, 그리고 단 두 세 종의 종교계 및 기관에서 발행한 잡지가 있을 뿐이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990년 전주에서 발행한 〈소년문학〉은 오히려 이채롭기까지 하다. 모두들 시대의 유행을 따르거나 새로운 흐름에 덜미가 잡혀 사라져 가는 와중에 과거 잡지 유형을 따르는 무척 소박한 편집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200여쪽의 많지 않은 지면에 컬러 도판이라고는 단 두 곳에 불과한(1991년 당시) 이 잡지는 그러나 형식과 내용은 모두 구색을 잘 갖추고 있다. '문학'을 표방한 잡지답게 동시, 동요, 연재 소년 소설, 창작 동화, 연재 만화, 글짓기 교실, 우리들의 글솜씨까지 과거 어린이 잡지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듯하다. 어린이 문학 관련 잡지가 대부분 문학가 및 평론가들의 등단과 발표 무대가 되는데 비해 이 잡지는 아직까지 어린이 글을 받아서 싣고 시상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 「소년문학」은

통권 230호를 내면서 창간 정신을 계속 지켜내고 있다. 더구나 이런 잡지가 작은 지역 사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40년 나이의 신아출판사가 단행본과는 별도로 정기 간행물 「문예연구」, 「수필과 비평」 등과 함께 내고있는 것, 소박하지만 더 빛이 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지만 「까치」의 탄생도 눈여겨 볼 잡지중의 하나다. 많은 잡지들이 대세에 떠밀려 힘을 못쓰고 사라져 갈 때 이 잡지는 당시 생소한 전문 분야였던 환경에 접근했었다. 창간 무렵 사회 분위기는 환경 문제가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만큼 자연에 대해 새삼스럽게 탐구하기 시작했다. 개발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 때는 거의 모든 정보가 활자 매체에 의존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마 다시는 이런 주제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정보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전송 또는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 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다큐멘터리나 책에서 확인하고 볼 수 있었던 희귀동물, 북유럽의 순록축제, 철새들의 낙원 순천만을 비롯 교과서에 없는 자연 풍광, 기후와 관련된 최신 정보까지 자연 생태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내 기사감으로 만들어냈다. 어찌보면 분야가 자연과학이었지 사실상 가장 잡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모범 사례였다. 잡지가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면 더욱이나 「까치」는 독자들이 현 시점에서 원하는 정보와 궁금증을 일정하게 해소해 준 것으로 보아야한다. 아쉬운 점은 이런 잡지가 태생적으로 전통화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개별적으로 잡지 발행사 철학의 존재 이전에 지나치게 지식 정보라는 언어와 이를 수용하는 당대 구성원들의 얄팍함에 있다. 잠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다가 효용성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탓에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일은 자본과 사람의 힘만으로 벅찰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생각쟁이〉, 〈위즈키즈〉, 〈시사통〉 셋의 유형도 비슷한 경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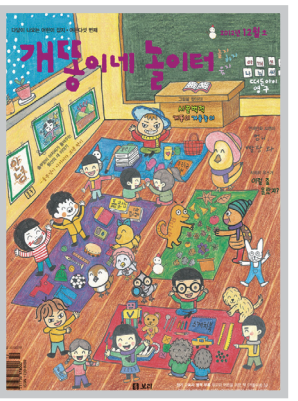
가장 최근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나온 이들은 모두 뚜렷한 목적성을 지닌채 태어났다. 공통적으로 세 잡지는 학습지와 교육출판을 하고 있는 곳에서 발행된다. 1998년 창간되어 2012년 9월 현재, 통권 166호를 발행중인 〈생각쟁이〉는 '생각'과 '쟁이'의 합성어를 쓰면서 '21세기의 위인은 생각하는 쟁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우리나라 최초로 인물을 다룬 잡지로 성격을 규정했다. 처음 이 잡지의 창간 당시 일부에서는 '소위' 성공한 인물들만 부각되어 어린이들에게 사고의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사탐구 영역을 파고들었다. 인물 중심에서 시사 종합 '주니어 매거진'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한편 종합 정보지의 역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음 의도한 바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독자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독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매거진의 변화가 읽혀진다.

〈시사통〉은 '미래 지구인재를 위한 테마 시사 잡지'를 모토로 가장 최근의 관심 문제를 다룬다. 이 잡지는 시사통이라는 말에 걸맞게 논쟁 거리를 슬며시 다루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테마 특집' 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으로 찬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대화 형식으로 함께 실었다. 이 밖에도 '싱싱뉴스', '잡학사전'. '갤러리', '캠페인' 등 성격에 맞는 주제들을 지면에 넣고 있지만 대부분 짤막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다.

〈위즈키즈〉역시 시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여기에 독서와 논술이 따라 붙으면서 현재 최대 관심사인 이 분야에 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려 한다. 매 호마다 쟁점을 끌어내 논쟁 형식으로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게 한다. 이 점에서는 「시사통」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지면 할애와 깊이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당연히 자사의 독립된 유통망과 방문 판매 망을 적극 활용해 유통을 하면서도 독자층의 확충은 이들 모두에게도 과제였다. 잡지가 제공하는 정보가 독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향 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의 물음이 필요하다. 이미 셋 중에서 〈시사통〉은 사라졌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록이나 외적 요인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차라리 없었음에도 폐간의 결정은 처음부터 정체성을 의심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잡지를 열독하는 독자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느냐의 문제였다. 영상매체 특히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소비하는 속성을 지녔지만 잡지는 오히려 인적 자원을 키우고 배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기에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들 잡지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등단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또한 기록성과 깊이는 일간지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와 함께 흥미있는 요소도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충분한 인적 자원과 유통 네트워크, 자본력이 뒷받침될

수 있음에도 일정한 목표에 미달하면 손쉽게 폐간시키는 일이 최근의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2012년 8월 현재 통권 81호를 발행중인 〈개똥이네 놀이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종합 교양' 어린이 매거진이다. 〈개똥이네 놀이터〉의 특징은 거의 모든 지면의 시각 이미지화이다. 어쩌면 만화잡지로도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그림 중심으로 구성되어 책 속으로 접근이 편하다. 또한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의 진화를 구현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꾸미는 중심 개념은 '자연', '이야기', '책'과 '놀이'로 나뉘어지지만 여기에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잘 놀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집진의 의도가 깔려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우리들이 이미 얼마 전에 놓아 버렸던 자연 세계를 되살리려 하는 것이 이 잡지가 지향하는 길이다. 첫 번째 '산 들 바다랑 놀자' 코너에서는 직접 산과 들로 나가 계절별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강과 산에서 어떤 동물들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식물로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를, 두 번째 '이야기 속에 풍덩'코너는 연재 동화, 옛이야기, 연재만화, 등 매달 이어지는 아홉 가지 테마를 싣는다. 옛이야기도 그냥 옛이야기가 아닌 참새 잡는 이야기며, 거짓말, 허풍, 체면치레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인상깊은 이야기가 매달 실린다. 세 번째 코너 '놀고 일하고 배우고'는 직접 놀이판에 들어와서 그리고, 글쓰고, 만들고 노는 놀잇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별책 부록으로 '개똥이네 집'이 어른용으로 함께 나간다. 어린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똥이네'는 부록이 아닌 독립된 교양서로 손색없을 만큼 교육과 일상생활, 문화 정보를 전한다.

〈개똥이네 놀이터〉가 향하는 지향점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영상과 이미지 세대와의 소통에 있는 듯 보인다. 즉 여전히 유효한 방식인 손그림과 자연놀이를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존재감을 확인 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드러나는 취약 점들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판매와 유통의 문제에서 이 매체의 성격상 다른 경로를 생각할 수 있고, 정기 독자와 비정기 독자를 유지시키는 방법의 문제이다, 또한 지면에서 정체성의 뚜렷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있다. 종합지인가 아니면 전문지인가, 지금과 같은 지면의 성격처럼 혼합형으로 유지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종이책의 단순 변환 전자책 또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는 도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콘텐츠 개발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두지 않으면 변화가 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다. 멀티미디어 단말기와 기능에 익숙한 어린이와

어른 지식 소비자들은 이미 종이책 활자와의 경계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매체가 멀티미디어로 인해 사멸된다는 것도 성급한 인식이다. 오히려 종이책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마치 매거진에 여러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동반 생존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과거 수 십년 간은 매거진이 독자 대중을 이끌며 선도 했다면, 지금은 독자가 변화를 주도해 간다는 것이다. 지난 100여년 기간 동안 어린이 매거진의 흥망사에서 나온 화두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묻고 답한다. 일제 강점기 때의 유산 용어인 '잡지'대신 우리식의 공용 언어를 만들고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잡지'가 늙고 사라져 가는 올드 매체가 아니라 여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중심 문화인 것을, 그리고 잡지라는 매체는 말 그대로 책읽는 환경에 없어서는 안 될 교량 구실을 한다.

학생 저널《학원(學園)》과 독서 진흥운동

박 몽 구 Park, Mong-gu
한양대학교 교수, 시인
poetpark@lycos.co.kr

05

들어가는 말

1950년대는 한국 근 · 현대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6 · 25로 불리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고 국토는 초토화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50년대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사적 명제는 전쟁에 의한 참혹한 파괴와 이것의 복구로 규정지어진다. 전쟁이 끝나자, 일제로부터 막 해방된 조국은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분할 점령한다. 이것은 한반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에서 강대국들의 세력 쟁탈전의 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동족상잔으로 인하여 수백만이 희생되었고,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두 체제의 민족 분단은 돌이킬 수 없이 고착화되었다. 이 고착화는 우리 민족사의 전후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최대의 쟁점으로 머물러 있다.

1950년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분은 6 · 25가 진행되는 1950 1953년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1953년 이후 전후 회복기에서 산업화 시대의 초입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첫 시기는 6 · 25로 인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착, 강화되었고 냉전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53년 이후는 전쟁 기간의 산업 시설 파괴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졌고, 피난민의 급증으로 인해 실업 문제 등이 대두되어 사회적 불안이 더욱 심화되었다. 전후의 불안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무주의,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대두되었다. 특히 6 · 25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의 본격적인 유입이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큰 것이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 불어 닥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었다. 즉 주로 미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문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욕구를 발동시켰다. 영어 교육 붐이 일었고, 전후에 크게 팽창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새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갈망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은 학교의 증설을 불러왔고, 이에 필요한 교과서 출판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크게 진작시켰다. 초등교육의 경우 해방 당시 2,884개 교에 학생 수 136만 6,024명이던 것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 학교 수 3,443개에 학생 수 242만 6,115명으로 증가했다. 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학교 수는 165개 교에서 564개 교로, 학생 수는 13만 3,857명에서 39만 7,567명으로 증가했다.(1)

휴전 후에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 대상 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1956년 9월 현재 초등학교는 4,260개 교에 학생 수는 49,076명으로 증가했고, 중 · 고등학교 수는 1,789개로 늘어났다.(2) 도서관 수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특수도서관을 포함하여 휴전 2년 후인 1955년에는 70개에 불과하던 것이 1959년에는 133개 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장서량은 196만 1,252권에서 335만 5,879권으로 늘어났다.(3) 8 · 15 해방 이전 남한에 존재했던 41개의 도서관이 전후 복구기인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회 문화적 변동은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빈약한 공교육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교양과 여가의 필요성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당시 독서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한 지식과 교양에의 갈증을 달래는 수단이었고, 나아가 무료한 도시 생활을 활기로 채워 주는 오락의 방편이기도 했다. 제반 문화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학원》에 실린 영상미 좋은

(1)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p.263 참조.

(2) 4290 출판연감』, 대한연감사, 1957, pp.413~4 참조.

(3) 『한국출판연감 1963』, 대한출판문화협회, p.629.

만화와 명랑소설 읽기는 오늘날 학생들이 몰두하는 컴퓨터 게임 이상으로 매력적인 오락 도구였다.

이 같은 학생들의 지식 교양과 의미 있는 여가 활용에의 욕구를 비집고 등장한 것이 학생 잡지 《학원》이었다. 나라 전체가 전란에 휩싸여 있던 1952년 11월에 대구에서 창간된 《학원》은 우리나라 잡지 문화의 처음을 여는 고리였다. 전쟁으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대구로 피난 온 서울 출판업자들이 감히 출판 같은 것은 생각조차 못하던 시절, 피난지 대구의 한 지방 서적상이자 군소 출판인이었던 김익달(金益達)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잡지이다. 1952년 11월 잡지 《20세기》를 게재하여 11월호로 창간하였다. 가격 500환의 국판 114쪽의 월간지로, 발행인은 대구에 임시사무소를 둔 대양출판사 사장 김익달, 편집인은 서울에서 내려와 몸을 피하고 있던 저명 시인 장만영이었다. 6 · 25전쟁과 그 뒤의 혼란한 시기에 대중매체가 거의 없을 당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학습활동, 여가 선용 등에 크게 이바지한 이 잡지는 장안의 종이 가격을 올릴 정도로 크게 환영을 받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부수(10만 부)로 확장되었다.

그림1. 학원 창간호

그림2. 학원 창간호 목차

그림3. 학원 창간호 목차

그림4. 학원 창업자 김익달

《학원》의 창간과 발전

《학원》이 창간된 1952년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 측과 남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어지던 시기였다. 부산에 임시 수도가 있었고, 서울에 가까우면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대구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명맥을 겨우 이어가던 시기였다. 출판계에서는 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제대로 된 출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참고서, 사전, 소설류와 아동문화 등의 재고 출판물이 겨우 유통되던 시대였다. 전시연합대학 등 천막 교실 등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는

변변한 교과서도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등사본 등으로 겨우 교재를 마련하던 시기였다. 전쟁이 지리한 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국 문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고, 새 시대에 걸맞은 교양에 대한 갈증이 크게 일어난 시기였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 따른 저자의 기근 현상과 번역의 어려움 등으로 단행본 출판은 난관에 부딪쳐 있었다. 당시의 출판 잡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교양 잡지《희망》의 발행인으로 유명한 김종완의 회상으로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 "피난 시절에 잡지를 만든다는 일은 기적을 낳는 일이었다. 인쇄시설이라고는 타브로이드판 4페이지짜리 신문을 발행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한 인쇄시설에서 오전에는 A신문이 오후에는 B신문이 같은 편집실을 갖고 발행하는 판국이었다. 그러니 잡지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잡지를 만드는 사람은 다방이 사무실이었고, 공장에는 밤에나 가서 20여 페이지를 만들어 조판 교정 현판 인쇄를 끝내고, 쓴 활자는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신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 꽂아 놓고서야 귀가하는 고생을 했던 것이다."(4)

이같이 인쇄시설과 저자, 용지의 삼박자 모두가 부족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단행본 출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선 이가 김익달이었다. 그는 당시 대구에서 귀경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장만영 등의 시인, 조흔파 등의 소설가 및 만화가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 찾고 있던 것에 착안하여 이들에게 잡지의 짤막한 꼭지 글과 만화 등을 맡기는 방법으로 잡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김익달(1916~1985)은 1937년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상업과를 2년 수료하고 귀국하여 황해도 해주에서 '낙동서관'이라는 서점을 경영하다가 해방과 함께 고향 인근인 대구로 내려왔다. 그는 해방 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과 함께 대구에서 책과 신문 등을 파는 노점상을 열어서 성공하였다. 노점이기는 하였지만 지식과 교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노점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게 된 그는 대구 중앙로에 위치한 삼중정백화점 터에서 '대양출판사'라는 상호로 본격적인 출판에 뛰어들었다. 피난지 대구에서 지식과 교양의 갈증에

(4) 김종완, 「난중출판잡기」,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1986. 6, pp.10~11.

시달리는 학생 대중들을 보면서 1945년 대양출판사를 설립, 1952년 학원사로 개칭하고 학생 잡지《학원》을 창간한 것이다.

《학원》 창간호는 장만영 시인을 주간으로 하여 1952년 11월에 피난지 대구에서 창간되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면서 서울로 돌아온 이 잡지는 필자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기라성 같은 문화인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김용환 화백의 만화 「코주부 삼국지」, 정비석씨의 소설 「소년홍길동전」, 김내성씨의 추리소설 「검은별」, 김성환 화백의 명랑만화 「꺼꾸리군 장다리군」, 조흔파의 명랑소설 「얄개전」 등 인기 연재물을 확보하면서 판매에도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5. 김용환_코주부 삼국지 첫장면

당시《학원》의 영향력은 발행부수나 회고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3월호는 5만 5천부가 발간되었다. 다음 달인 4월호는 6만부, 6월호는 6만 5천 부, 7월호 7만부를 찍었다고 한다. 매달 5천부씩 발행부수를 늘이는 일은 현재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성공이었다. 이어 8월호에는 8만부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10만 부에 조금 못 미치는 발간 부수를 꾸준히 유지했다고 한다. 이는 동시대 일간 신문의 발행 부수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발행 기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월간지로 발행되었다는 점도 이 잡지의 평범하지 않은 성공을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1954년 8월호는 8만부를 발행했는데, 한국전쟁 직후 8만부는 엄청난 부수였다. 그 무렵 학원사 주간으로 있던 최덕교 씨는 당시 최대의 일간지 편집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오늘로써 우리 신문이 드디어 5만부를 넘었어."

국내 최대의 일간지가 독자 5만부를 확보했다고 기뻐할 무렵에 학생 월간지《학원》은 8만부의 판매를 이룬 것이다.

《학원》이 그처럼 인기를 끈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베스트셀러라면 누구나 단행본을 떠올린다. 그러나 중학생 잡지 「學園」을 우리 베스트셀러 역사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 1952년 11월호로 시작해 몇 차례 중단됐다가 1979년 3월호로 끝난 이 잡지가 내내 베스트셀러였다는 것은 아니다. 초기의 약 3년간 전성기 시절의《학원》을 말한다. 따라서 한동안 유행했던 '학원세대'라는 말도 그 무렵에 중 · 고를 다니던 세대를 말한다.

실은《학원》자체가 우리 잡지사의 새로운 세대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피난지 대구에서 창간한 이 잡지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전쟁 상황으로 따로 읽을거리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광복 후 7년 간 자라난 우리말 독서 세대가 넘쳤고 그 물결이《학원》으로 흘러간 것이다.

미디어로서 《학원》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이었다. 우선 전쟁으로 할 일이 없어진 수많은 고급 인력을 총동원 할 수 있었다. 만화가들의 경우 「코주부 삼국지」를 그린 김용환을 비롯해 김성환, 안의섭, 신동헌 등 정상급들을 총동원 할 수 있었다. 요즘은 학생 잡지가 아닌 성인 잡지에서도 힘든 일이었다. 조지훈, 박두진 등 정상급 시인들이 학생들의 시에 심사평을 했다.
그런 잡지가 인기를 끈 것은 너무 당연했다. 특히 1954년 5월 조흔파의 명랑소설 「얄개전」이 연재된 지 두 달 뒤인 7월호가 절정으로 8만 부가 나갔다. 유력한 일간신문이 5만 부를 돌파했다고 떠들썩하게 자축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학원》의 인기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유경환의 증언에서 잘 드러난다.

> "6 · 25가 터졌을 때 나는 중학생이었다. 낯선 피난지에서 천막학교가 파하면 소년소녀들은 강가로 거리로 쏘다니는 일이나 과일밭에 숨어 들어가는 일 등으로 소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거리에는 상이군인들이 넘쳤으며, 술안주도 없이 술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하였다. 어느날 학생 월간 교양지가 창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점으로 달려가 선 채로 기다려가며 《학원》을 사서 읽었다. 그리고 시와 산문을 써서 투고하여 활자화된 나의 글을 접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었다."(5)

그의 말처럼 《학원》은 국내의 제작 인력을 총동원하듯 모든 세대를 독자로 동원하기도 했다. 읽을거리가 별로 없던 당시에 《학원》은 기성세대도 즐겨 읽었다. 특히 「얄개전」은 기성세대도 즐겨 읽었는데 훗날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됐다. 물론 베스트셀러 《학원》은 시대의 산물만은 아니다. 《학원》을 본떠 많은 잡지가 생겨났으나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컴퓨터나 텔레비전은 물론 라디오도 드물었고, 단행본 출판도 부진했던 그 시절에 《학원》은 거의 유일한 읽을거리였다. 별다른 레저 활동도 없고, 아직 입시 지옥을 몰랐던 그 무렵의 학생들에게 《학원》은 교양과 정서를 가꾸는 교사이자, 즐거운 오락이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였던 것이다. 《학원》에 이어 1954년 3월 20일 《학생계》(대구 문성당 발행)가 김내성의 「철가면」, 박계주의 「애꾸눈」, 김용환의 「수호전」 등 비슷한 내용을 담아 경쟁을 시도하다 3호로 막을 내린 바 있다. 이어 1966년 1월 《소년》지가 창간되기까지 학생 저널은 《학원》의 독주시대였다. 그만큼 이 잡지가 당시의 중 · 고등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을 절대적인 것이었다.

(5) 유경환, 「김익달적 사상」, 『학원 세대와 김익달』, 1990, pp.203~205.

또한 《학원》은 당시 우리 문화계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정수였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다른 문예지도 없었으므로 정비석, 김내성, 윤백남, 김광주, 최정희 등 당대의 소설가들이 《학원》에 작품을 실었다. 또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같은 청록파 시인들과 장만영씨 등 교과서에서 친숙한 시인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친절하게 평해주었다. 그러므로 《학원》 초창기의 독자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구독을 하기도 했다.

《학원》은 창간 때부터 독자투고와 학원문학상을 통하여 많은 학생 문인을 배출시켰다. 「별들의 고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인호 씨도 《학원》에 시를 발표하였으며, 문학평론가 김병익, 수필가 유경환, 시인 정공채, 마종기, 황동규, 이승훈 등 많은 문인들이 《학원》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60대 전후의 세대를 학원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원》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국민의식에 끼친 영향 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원》이 창간되고 정착될 무렵은 6 · 25 동족상잔의 결과로 문화적으로도 허무주의적 경향이 팽배해지고, 냉전의식과 분단 의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지게 되고, 미국식 자유주의를 내세운 반공주의가 전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내세워지는 자유주의 체제가 실상은 자유주의 정권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문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반독재운동이 전개되는바, 이 과정에서 지적 풍토도 변화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자각도 싹트게 되었다.[(6)] 이 같은 환경 하에서 학생 청년 세대들이 《학원》을 탐독하면서 민주적 교양을 익히게 된 것은 이들 세대들이 4월혁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데 밑거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학원》을 탐독하던 독자들은 당시 지성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던 《사상계》의 독자로 옮겨갔다. 학원문단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시인 김영태, 소설가 이청준 등이 《사상계》 신인문학상을 받고 문단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사정을 잘 말해준다. 매체로서 《학원》이 갖는 의미는 동시대 어떤 잡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사상계》가 동시대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력 정도가 《학원》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을 뿐이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학원 세대', '학원 문단'이라는 말은 일개 잡지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당시 '학원 세대'로 불리던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의 중견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6) 『한국사회연구』3, 1985. 3., p.33.

1950년대 학생 저널과 독서 운동

《학원》이 창간될 무렵에는 몇몇 잡지가 있긴 하였지만 엄혹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다. 김익달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잡지를 펴내는 일뿐만 아니라, 해방 전의 서적상 운영과 해방 후의 노점상 경험 등으로 실천적인 유통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여기에도 쓸 만한 읽을거리를 갖고 있지 못하던 전시 상황에 맞춘 기획이 당시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으로서 《학원》을 열독하지 않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유행어까지 널리 퍼질 정도였다고 한다.

'중학생 종합 잡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보인 《학원》 창간호를 살펴보면, '명화 소개' 난에 밀레의 「장작 패는 사나이」를 싣고, 나중에 고바우로 알려진 김성환의 만화 「학생의 이모저모」, 김요섭의 동화 「신문 파는 박사」, 나중에 「자유부인」으로 알려진 소설가 정비석의 연재소설 「홍길동전」이 실려 있다. 또한 박목월, 조병화, 김용호, 이원수의 신작시와 마해송의 수필 등이 실렸다. 또한 창간호부터 독자 문예 글을 공모하고, '학원 장학생' 선발 공고를 내는 등 실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기획과 당대의 유명 필자들이 망라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대체로 매호 50여 쪽 분량의 인기 연재물을 고정적으로 실었으며, 외국소설과 영시 대역(對譯) 등 학습과 연결되는 교양 및 시원스런 화보, 유명 문인들의 시와 수필 등 문예물, 그리고 독자 문예 난으로 꾸며지고 있었다.

학업에 바쁜 학생 독자들이 갈급해 하는 교양물을 지속적으로 편집하고, 인기 있는 연재물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다음호를 손꼽아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학원》은 처음에는 얇은 분량으로 시작하였지만, 인기 상승과 부수 증가에 힘입어 대폭 증면을 하게 된다. 책에서만 보던 유명 작가들의 문예 작품과, 만화, 명랑소설들이 독자들을 매월 손꼽아 기다리게 했다. 예컨대 김용환의 「삼국지」는 그때까지 역사만화에서 흔히 사용하던 사실적 그림체가 아닌 과장된 만화체 그림을 구사하면서도, 그림을 배치하는 구도에서는 투시도법을 응용하여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입체감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김성환의 「꺼꾸리군과 장다리군」은 4쪽짜리 명랑만화로 간략화로 선 묘사된 단편 연속 만화였다. 장신과 단신의 두 주인공 콤비를 과장된 기법으로 대립적으로 묘사한 학원 명랑만화의 효시가 되었다. 뒷날 이 만화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극장에서도 상영되면서 만화가 지망생들에게도 좋은 교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당시 이화여고 교사로 몸담고 있던 조흔파(1918~1980)는 1950년대의 청소년 명랑소설 대표작품 「얄개전」을 1954년에서 1955년까지 청소년 잡지 《학원》에 연재했다. 1970년대에는

고교얄개 시리즈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는데, '얄개'라는 악동의 캐릭터로 당시 소년소녀들 지금의 중년층 이상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작가 조흔파의 작품은 당시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서도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중심에 두었다. 조흔파는 소년소설 청소년작품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소설 수필, 방송작가로서도 다양한 집필 활동을 했다. 그와 함께 활동한 명랑소설 작가로는『쌍무지재 뜨는 언덕』을 발표한 김내성과,『억만이의 미소』,『남궁동자』 등을 발표한 최요안 등이 있다. 이들 명랑소설은 학생 세대에게 밝은 태도와 낙관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데 일조하기는 하였지만, 1970년대 들어 값싼 연애 감정이 주조를 이루는 이른바 '하이틴 소설'로 변질되어 지나치게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출판으로 나아가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최래옥 한양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유쾌한 삶과 작품은 조흔파 선생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 "조흔파 선생님은 소년시절에 큰 영향을 준 위인이며 성현과 같고, 그의 작품 얄개전은 세계명작과 같았다. 나도 얄개전에 나오는 얄개 나두수처럼 살아야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지. 나도 얄개전 같은 재미있는 책을 훗날 써야지…"

이 같은 명랑소설 붐은 당시 힘들고 전망이 불투명한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밝고 명랑한 가운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대적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1950년대 전후 상황을 반영한 실존주의적 경향의 소설인 장용학의「요한시집」등 일련의 작품들과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손창섭의 작품들이 큰 흐름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학생 세대에게 절망에서 벗어나 밝은 세계관을 펼쳐 나가도록 하는 데 조흔파가 중심이 된 1950년대 명랑소설은 한 몫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학원》등 잡지에 연재되어 많은 독자들을 갖고 있던 조흔파의 작품『얄개전』,『주유천하』등 16편이나 영화화되었는데, 당시《학원》등 학생 저널이 문화 콘텐츠의 1차 제공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말해준다.

해방 이전부터 연재소설 등은 흔했지만 매호 10쪽 분량의 장편만화를 몇 년에 걸쳐 연재한 것은《학원》이 최초였다. 그만큼 역량 있는 작가를 확보하고 흥미롭게 내용을 끌고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로만 듣는 라디오가 전부이던 시절에 TV에 버금가는 영상물을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 오락거리라고는 전무하였던 1950년대의 척박한 현실에서 이런 기획들은 심신이 날로 커가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오락 역할을 해주었음은 물론이다.

또한《학원》에 실린 연재 필자들은 나중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하는 일이 많았다.《학원》에「홍길동전」을 연재했던 정비석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1954년 정음사에서 정비석이 지은

장편소설 『자유부인』이 출간되자마자 초판 3천부가 하루 만에 매진된 것을 시작으로 10만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자유부인'이 모 대학교수 부인을 모델로 한 작품이라는 소문이 항간에 유포되면서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고 한다. 그만큼 출판이 정부의 입김에 의존하는 교과서나 참고서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로 사회적 관심과 시장 기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쪽으로 발전해 갔음을 의미한다. 《학원》은 그 같은 출판 경향을 견인하는 한 거점이었다.

이 해에 국문학 관계 도서인 양주동 저작 『고가연구』와 역사서인 『국사대관』이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것 역시 전후 회복 국면에서 국민들이 국가적 정체성과 신교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7) 이를 계기로 우리 출판은 독자들의 선호도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한 기획물과 문예물이 중심으로 이루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컴퓨터나 텔레비전은 물론 라디오도 드물었고, 악화된 출판 사정으로 인해 단행본 출판도 부진했던 그 시절에 《학원》은 거의 유일한 읽을거리였다. 별다른 레저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고, 입시 지옥을 몰랐던 그 무렵의 학생들에게 《학원》은 새 교양을 심어주고 정서를 가꿔주는 제2의 교사이자 즐거운 오락의 제공자였고, 스스럼없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다.

뒷날 이화여대 교수가 된 진덕규는 "전쟁의 폐허가 밀어닥친 폐허 위에서, 우리 중학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은 참 행복했다. 그 행복은 《학원》이라는 우리들의 잡지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전쟁터의 소년소녀들이었던 우리는 《학원》 때문에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했다. 그때 우리들을 가르쳐준 선생님께는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학원》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다"(8)고 밝힌 바 있는데, 그만큼 《학원》은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했던 교양과 신지식에의 욕구를 채워주는 샘이었다.

이 같은 《학원》의 흥미로운 기획은 당시 학생들에게 장편만화 붐과 명랑소설 붐을 일으키는 발판이 되었다. 《학원》 등 잡지에 연재되기 시작한 만화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연재물이 단행본 만화로 엮어지고 만화 전문 출판사도 등장하였다. 김용환 화백의 「코주부 삼국지」 등이 《학원》에 연재되었다가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당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 시기의 만화내용은 고전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7) 황종수, 『나의 출판 소화』, 1990, pp.114~117 참조.

(8) 진덕규, 「아침 논단」, 《조선일보》, 1983. 7. 29.

학생 잡지의 만화 연재 면에 갈증을 느낀 독자들을 겨냥해 1956년에 발행된 《만화세계》같은 만화 전문잡지가 생겨나면서 대중의 만화 수요는 나날이 확대되었다. 또한 1955년을 전후로 만화전문 출판사인 광문당이 설립되면서 우리 만화출판계는 일대 혁신을 맞았다. 이때 발행됐던 만화책들은 대부분 서점 판매용으로 만들어져 만화가 우리 출판의 한 분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초 만화 전문 출판사는 '부엉이 문고', '제일 문고', '크로바 문고' 등 25개나 되어 만화가와 만화 전문 출판사가 출판의 한 분야를 당당하게 담당하게 되었다.

새 시대의 교양 담은 전집물 붐을 촉발하다

이와 함께 《학원》이 매호 빠뜨리지 않고 싣던 외국 소설과 신화, 위인전기 등은 당시 교과서로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었던 학생 세대에게 풍부한 교양을 공급하는 샘이 되었다.

《학원》은 이처럼 이후 학생들 사이에 교양 독서 붐을 일으키는 데 진원지가 되었다. 급속하게 밀려드는 외래 문물에 접하고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학생들은 《학원》, 《학생계》 등 잡지를 탐독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잡지에 실린 연재물들이 단행본으로 발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양에 대한 갈증은 을유문화사의 『세계문학접집』(전 100권), 신구문화사의 『세계 위인전기』, 학원사의 『생활총서』(전 7권) 등 새 시대의 정신에 맞는 서구 문학 고전과 교양을 담은 출판을 촉발시켰다. 이후 1970대까지 도시 가정의 소장품으로 이 같은 전집물을 장만하는 사회적 풍조를 낳았다. 그 일환으로 1958년 이후에는 학원사, 을유문화사, 정음사, 동아출판사 등이 국어사전, 백과사전,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등의 대형 기획물들을 속속 내놓음으로써, 우리 출판계의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 이와 아울러 박영문고, 양문문고, 교양사상문고, 현대문고 등이 나오면서 문고판 도서의 붐을 이루었다. 광복 직후 및 전쟁 직후와 비교하면 1950년대 후반 우리 출판계 및 인쇄업계의 기획 및 제작 역량은 크게 발전하였다.

1960년대는 정치 · 사회적으로 격변과 혼란의 시기였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상업적 대중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기본 교양 함양을 목표로 저명한 집필진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각종 대형 기획 시리즈물이 출간되었다. 을유문화사, 신구문화사, 정음사, 동아출판사, 민중서관 등 문학전집을 필두로 한 다양한 전집류 출판과 대형 기획

출판이 196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를테면 을유문화사(대표 정진숙)는 1959년부터 자체 기획으로 『세계문학전집』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당시 관행이던 일본어 중역(重譯)이 아닌 원작의 완역(完譯)과 높은 수준의 번역료(원고 1매당 300환)의 일시지불제로 탄생한 을유문화사판 세계문학전집은 꼼꼼한 편집 · 제작 과정을 거쳐 매달 한 권씩 출간되며 5년간 60권을 발행했고, 이후 40권을 채워 무려 총 100권짜리 전집이 탄생했다. 이를 가져다 쓴 해적판들이 성행하였는데, 1960년대 전집 붐이 한창일 때 유수의 세계문학전집들은 사실상 을유에서 번역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9)

또한 을유문화사는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출범한 제3공화국의 첫 해이던 1963년부터 『세계사상교양전집』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해 1975년까지 무려 13년간에 걸쳐 총 40권의 대작을 완간하였다.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났던 신구문화사 설립자 이종익은 『한국전후문제작품집』(1960년)을 시작으로 1962년 3월까지 전10권으로 『세계전후문학전집』을 발행했다. 이 전집에 대해 이어령은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4 · 19 이후 1960년대 한글세대들에게 외국문학을 접하는 출구이자 바이블이었다"는 평가를 할 만큼 사회적 반향이 컸고 출판사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당시 영업 담당자였던 허창성(현 평화출판사 대표)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문학의 밤'에 『세계전후문학전집』을 트럭으로 싣고 가서 수백 질을 팔았다고 회고했다.

또한 신구문화사는 『한국시인전집』(1957년), 『영미어문학총서』(1959년부터 5년간, 전10권), 세계 위인 48명을 수록한 『세계의 인간상』(1962년)과 『한국의 인간상』(1965년), 국내 최초의 노벨상 전집인 『노오벨상문학전집』(전13권, 1964년부터 발행), 『현대한국문학전집』(전18권, 1965년부터 2년간), 『대똘스또이전집』(전9권, 1970년), 『한국현대사』(전9권, 1970년 완간), 『소년소녀 한국의 문학』(전13권, 1972년), 『한용운전집』(전6권, 1973년) 등을 발행하며 1970년대까지 대형 기획물 출판을 주도했다.(10)

(9) 정진숙,『출판인 정진숙』(서울 : 을유문화사, 2007), 242~255쪽.

(10) 우촌기념사업회, 『우촌 이종익』(성남 : 신구대학, 2000), 166~171쪽 및 우촌기념사업회,『우촌과 함께한 시간들』(성남 : 신구대학, 2010), 30~48쪽 참조.

교양 기획이 문고본으로 발전하다

한편으로 출판인들은 학생들이 값싸고 알차게 새 시대의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게 되었다. 어른들이 고가의 전집물을 거실을 그럴듯하게 채워주는 장식물로 여기고 사들이는 데 반하여, 주머니가 얄팍한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출판물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반짝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문고본의 기획 발간이었다. 크기는 교과서류에 즐겨 채용되던 국판(菊判) 크기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활자의 크기를 줄여서 내용은 튼실하게 담은 것이 문고판이다. 이러한 문고판은 1950년대 후반 들어 붐을 이루었는데, 그 콘텐츠는 《학원》 등 교양 잡지에 실린 것들을 모으거나, 좀더 확장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것들이 적지 않았다. 서양의 철학 서적들과 동서양의 문학 고전 및 새 시대에 걸맞은 대화법과 처세술 등의 새 교양을 담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당시 기획 발간된 대형 문고들을 살펴보면, '양문문고'(양문사), '교양신서'(신양사), '박영문고'(박영사), '위성문고'(법문사), '경지문고'(경지사), '교양사상문고'(상구문화사), '현대문고'(여원사), '세계명작문고'(동국문화사) 등이 앞다투어 문고 붐을 조성하여 잠재 독자층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고자 애썼다.[11] 이들 의욕적으로 속간된 문고들은 해방공간인 1946년 들어 발행되기 시작한 을유문화사, 정음사, 민중서관의 문고본들과 함께 전후 복구기에 지식에 목말라하던 젊은 지성들에게 교양의 샘물이 되었다. 또한 값싸고 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찬 이들 문고본은 《학원》 등 교양지와 함께 독서층을 확대함은 물론, 빈사의 출판계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분야도 다양해졌으며 전집물 붐이 퇴조하고 문고본과 단행본이 붐을 이루게 되어 도서 발행량도 대폭 증가했다. 호화판 대형 전집의 가격과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자 출판계는 단행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새로 등장한 문예출판사, 민음사, 범우사 등이 단행본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연달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삼중당은 소설과 비소설을 구분한 '라이온 노벨스' '라이온 북스'라는 신서판 출판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더니 197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중당문고'를 간행하며 문고본 붐을 조성했다. 을유문화사는 1969년부터 '을유문고'를 선보여 한 번에 10권씩 첫 해에만 50권을 발행했다.

이처럼 문고본 출판이 활기를 되찾아 1972년에만 6종의 새로운 문고본 시리즈가 문고 시장에

(11) 이중한, 이두영 외,『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p.116.

선보였고, 1976년에는 무려 30여 개 출판사에서 약 1천 종을 발행할 정도로 문고본 출판이 활기를 띄었다. 그 중 300종을 돌파한 삼중당문고는 연간 판매 부수가 250만 부를 돌파할 만큼 성장하였다. 또한 '전파과학신서', '미술문고'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문고가 성공사례로 등장했다. 종전의 문고본들이 고전적 가치를 중시했다면, 이때 새롭게 등장한 문고본들은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전달과 염가 제공을 모토로 삼았다.(12)

이러한 교양서의 등장과 함께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책을 선물하는 게 일반적인 풍토로 자리 잡았고,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는 인구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좌석 수는 580석이었고, 195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열람석을 다 합해도 3,116석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열악한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를 주간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야간으로 나누어 열람자를 받아들이는 등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또한 '독서는 사고(思考)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무엇보다도 전국 방방곡곡에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는 '도서관법제정법(圖書館法制定法)'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부르짖어지기도 했다.(13)

1960년대 들어서는 독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지식의 창고이자 학습 장소로서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독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나아가 정기적 도서관 통계로 독서 경향을 제시하는 등 바람직한 독서 풍토 진작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독서 주간' 행사에 내실을 기하여, 귀중본 전시회, 출판 유공자 및 독서감상문 입상자, 모범 장서가 표창 외에 독서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 독서 풍토 진작 운동을 벌여 나갔다. 사회 전반에서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학문적이며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독서 관련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도서관 당국의 자각도 한 몫을 하였겠지만, 그와 함께 저변에서 학생 저널을 통한 교양 습득 움직임이 긴밀해지고, 문고본 등 학생 대중을 겨냥한 출판물이 대거 출판되면서 독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2) 이중한 · 이두영 · 양문길 · 양평, 앞의 책, 130~131쪽.

(13) 윤금선, 『우리 책읽기의 역사 1』, 월인, 2009, p.144 참조.

변질된 교양과 고전 읽기 운동

이러한 교양 도서 발간 붐은 6, 70년대 들어 고전 읽기 붐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대저서(大著書) 읽기 운동'이 그것인데, 당시 정부에서는 '자유교양대회'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고전 읽기를 통해 예지와 덕성을 길러 창조적인 민족이 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당시 중앙일보에 보도된 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교양추진위원회에서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운동으로서 동서고전인 대저술 읽기를 전개하고 있다. 학계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고전을 번역, 간행하여 염가로 보급하는 한편 강연회, 토론회, 강좌, 독서회를 통해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그 실천 방법으로서는 중 · 고 및 대학 2년 수료까지 5~8년을 기간으로 잡고 현행 교육제도 안에서 '대저술 강좌' 및 과외 독서 계획을 따라 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저술은 쉬운 것으로부터 힘든 것으로 분류, 미리 선정된 1백 권을 독파하도록 되었다.(14)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유교양 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한 동서양 고전을 읽고, 그 실력을 겨루는 시험을 치렀으며 각 수준별 최고 점수 획득자에게 수상을 하기도 했다. 초 · 중 · 고등학교별로 '사단법인 대한자유교육협회'가 선정한 도서목록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남궁억傳」, 「삼국유사」, 「삼국사기」 중학교 때는 「소크라테스」, 「구운몽」, 「박씨전」, 「유충열전」, 「난중일기」 고등학교 때는 「십팔사략」, 「사기」 등을 읽었고 학교 대표로 선발되면 방과 후 한두 시간씩 학교에 남아 집중 독서를 하기도 하였다.
1966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동아일보의 후원하에,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 운동에서는 고전 읽히기와 고전 번역 사업을 동시에 벌이고 이를 전 계층의 국민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인데, "빨리, 바르게, 쉽게" 고전을 번역하기 위해 "올부터 70년 안에 1백 권의 번역사업을 끝내도록"하는 신속 대단한 계획도 수립했다. "출판된 서적은 영구판으로 「자유교양전서」에 묶는 한편 문고판으로 염가 · 대량 보급할" 계획이었다. 또한 고전 읽기를 학교 교육 과정에 인입하여 "구미처럼 「대저술강좌」를 설치하는 것과 자유중국처럼 과외수업에 학년별로 고전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 학교에 권장할 방침"도 세웠다.(15)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전'을 선정했다.

(14) 중앙일보, 1966. 8. 23.
(15) 「고전독파운동 자유교양추진회」, 『동아일보』 1966.8.16

제1년 ①삼국유사 ②징비록 ③대동야승선 ④불교성전 ⑤논어 ⑥소크라테스의 변명 · 크리톤 · 향연 ⑦명심보감 · 효경 ⑧맹자 ⑨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⑩플루타크 영웅전 ⑪신약의 마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⑫노자도덕경 ⑬시경 ⑭안씨가훈 ⑮몽테뉴에세이선집 ⑯카라마조프형제 ⑰갈리버 여행기 ⑱한국고전문학선 ⑲동국명현언행록

제2년 ①삼국사기 ②고려사열전 ③동문선 ④목민심서 ⑤대학 ⑥중용 ⑦십팔사략 ⑧묵자 ⑨순자 ⑩플라톤 국가론 ⑪열자 ⑫서경 ⑬아울레류스 자성록 ⑭구약의 창세기 · 출애급기 · 신명기 ⑮제임스 심리학 ⑯코란 ⑰듀이 인간성과 행위 ⑱로마제국멸망사⑲한국명시선 ⑳한국시조선

제3년 ①퇴계사상문선 ②한국고전문학선 ③서산대사선가귀감 ④전국책 ⑤장자 ⑥근사록 ⑦강유위 대동록 ⑧사기 ⑨마키아벨리 군주론 ⑩루소 사회계약론 ⑪국부론 ⑫밀톤 언론의 자유 ⑬전습록 ⑭당송팔가문선 ⑮갈리레오 신과학강좌 ⑯데칼트 방법론 ⑰파스칼 명상록 ⑱스피노자 윤리학 ⑲로크 인간지성론 ⑳화담집.

제4년 ①율곡사상문선 ②대동야승선 ③동문선 ④한국사상명문선1 ⑤인구론 ⑥헤겔 법철학 ⑦콩뜨 실증정신론 ⑧스펜서 교육론 ⑨삼민주의 ⑩벨그송 도덕과 종교의 원천 ⑪주역 ⑫좌씨춘추 ⑬염철론 ⑭좌구명국어 ⑮통치론 ⑯아리스토텔레스 시학 · 수사학 ⑰칸트 도덕적 형이상학의 기초 ⑱종의기원 ⑲한국사상명문문선2 ⑳니체 비극의 탄생

제5년 ①동문선 ②매월당집 ③이충무공전서 ④동양병서 ⑤세종사실 ⑥논형 ⑦프리아트 ⑧법화경 ⑨고대과학사상 ⑩파우스트 ⑪아퀴나스 신학대전 ⑫아베이 동물발생론 ⑬한국야사선 ⑭법의 정신 ⑮프로이드 문화의 우울 · 정신분석입문 ⑯한국사상명문선3 ⑰헤겔 역사철학 ⑱칸트 실천이성비판 · 판단력비판 · 심미적비판 ⑲현대의 과학사상 ⑳현대의 사상[16]

(16) 「자유교육을 위한 독서계획(시안)」, 『동아일보』 1966.08.16.

이 목록은 허친스가 유명한 교육철학자이며 동료인 모티머 애들러와 함께 서구의 고전 100권을 "Great Books"[17]로 선정한 것을 모델로 하는데, 1960~70년대 '교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대에 꼽힌 초역사적 '정전'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몇몇 출판사에서는 이 목록에 따라 '자유 교양문고'를 출판하기도 했다. 1960~70년대에는 문교부나 공립 도서관이 벌인 독서운동 외에도 '국민독서연맹', '한국독서인구개발공사', '독서장려협회', '자유교양협회' 등이 관변 또는 민간에 조직되어 마을문고 · 직장문고 운동, '국민독서경진대회' 등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들 운동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거나 교양의 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민족주의의적 성향을 의도적으로 가미함으로서 박정희 정권이 중점을 두어온 '민족중흥 운동'적 시각에 편향된 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눈앞의 입시만이 아닌 교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국민 독서 풍토를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는 《학원》 등 학생 저널에서 촉발된 교양과 신지식 얻기 움직임 및 산업화 시기에 맞춰 일기 시작한 교양 문고 붐을 수렴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자발성을 좀더 부여하고, 선정 목록도 서구와 일본에서 형성된 것들을 회피하여 주체성을 강화했더라면 '대저서 읽기 운동'은 오늘날에도 커다란 생명력을 갖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문학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다

《학원》은 교양과 취미를 강조했는데, 마땅히 접할 매체를 갖지 못한 전후 청소년들은 《학원》을 통해 새로운 교양과 지식을 쌓아갔다. 무엇보다 《학원》은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학원》의 문학은 다양한 문학 작품의 소개와 함께 독자 투고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독자들의 투고작을 선별하여 실어주는 "학원 문단"과 경연의 성격을 띤 "학원 문학상"은 문학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17) 이는 1920-30년대 콜롬비아 대학의 핵심 교양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교양 필독 '고전'들에서 비롯하여 허친스와 애들러 등이 브리태니커사에서 간행한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로 이어진 책들이다. http://en.wikipedia.org/wiki/Great_Books 등 참고.

하였다. 《학원》을 통해 문학을 접한 많은 청소년들은 이후 성인 문단에 진출하여 한국 문학을 이끌어 갔다.

《학원》의 교양은 문학과 예술, 지식을 포함한다. 잡지 관계자들은 다양한 영역의 교양과 지식을 소개하고 그를 통해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장학생 선발이나 문학상, 미술상 등은 모두 이런 의지의 산물이었다. 교양과 계몽의 의지는 잡지의 내용 뿐 아니라 독자를 대하는 《학원》의 교육자적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원》은 당시 우리 문화계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정수였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다른 문예지도 없었으므로 정비석, 김내성, 윤백남, 김광주, 최정희 등 당대의 소설가들이 《학원》에 작품을 실었다. 또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같은 청록파 시인들과 장만영씨 등 교과서에서 친숙한 시인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친절하게 평해주었다. 그러므로《학원》초창기의 독자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구독을 하기도 했다.

'학원 세대'라는 것이 있다. 컴퓨터는 물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발간되었던 학생 잡지 學園(학원)! 당시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던 매체였다. 해방이후 많은 잡지가 이 땅에서 발간되었다. 그러나 잡지의 제호를 따서 '00세대'라는 칭호를 선사받은 책은 《학원》뿐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잡지도 자신의 이름을 딴 세대를 만들지 못했는데, 오직 《학원》만이 그것을 이룬 것이다.

당시 《학원》에는 독자문단이 있어서 매월 학생들의 시와 산문을 소개했고, 당대의 시인과 작가들이 친절하게 평가를 해주면서 문학의 길을 알려주었다. 나는 청록파 시인들을 《학원》에서 만났고, 문화와 시사 등 각종 읽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학원》에서 느꼈다. 한국 전쟁 이후 이렇다 할 매체가 많지 않았던 당시 《학원》은 이 땅의 모든 문화계가 총동원되어서 학생들에게 선사했던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60대 전후의 세대를 학원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원》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던 것이다.

《학원》을 거점으로 학생 문단이 형성되면서, 당시 실력 있는 문학 지망생들은 앞다투어 《학원》에 모여들었다. 1954년 1월호에 첫 번째 '학원문학상'이 발표되었는데, 당시 응모작이 2천여 편이 넘어 심사위원들은 일주일에 걸쳐 심사를 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는 서정주, 조지훈, 조병화 등이 참여하였다. 이 제도는 1967년까지 계속되면서 유경환, 이제하, 황동규, 정공채 등 시인 84명과 송기숙, 유현종, 이청준, 김주영, 김원일, 최인호, 황석영 등 소설가 44명, 평론가 김병익, 희곡 부문에서 20명을 학원 문단 주역들을 배출해냈다. 종간 때까지 줄잡아 300여명의 시인, 소설가 지망생들이 《학원》을 통해서 문학의 꿈을 키웠다.

그림6. 1954년 제1회 학원문학상 심사위원들
앞줄 왼쪽부터 정비석, 마해송, 조지훈, 최정희, 서정주 선생. 뒷줄 왼쪽부터 김동리, 최인욱, 김용호, 조병화, 장만영 선생의 모습이 보인다. 앞으로 선 이가 김익달 선생

이들 학생 문단의 주역들은 문학 청년으로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되면서, 새해 첫날 일간지의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신춘문예의 주인공이 되거나 현대문학, 문학예술, 자유문학, 《사상계》등 문예지와 종합지를 거쳐 문단의 새별이 되었다.

가령 1967년 2월호를 살펴보면, '제11회 학원문학상 발표'와 함께 '1967년 세계의 전망'이 실려 있고, '고교 입시 모의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붉은 색 바탕에 어린 소녀가 노란 빵모자를 쓰고 스케이트를 어깨에 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넣었으며 좌측 상단에 잡지명과 우측 하단에 발행 월을 적어놓았다. 1960년대 들어 학생들의 진학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혀간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아무튼 《학원》은 입시지옥에서 시달리지 않는 당시 문학 지망생들의 요람이 된 '학생 문단' 난을 통하여 1960년대의 한국문단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잖은 기반이 되었다. 《학원》이 촉발한 학생대중 사이의 문학열은 1970년대 들어 문학평론가 이어령이 주재한 《문학사상》이 등장하기까지 학생들 사이에 문학 잡지와 문학서적이 독서의 주대상이 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맺는 말

이제까지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학생 저널이 학생층에 어떻게 독서 붐을 촉발시켰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여 갔는가를 《학원》지의 활동과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원》은

1950년대 6 · 25의 혼란 중에 지식과 교양을 갈망하는 학생 세대의 염원을 업고 등장하였다. 고답적인 내용보다는 당시 학생층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만화와 명랑소설, 위인전기 등으로 교과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새 교양과 지식을 담아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텔레비전이 등장하기까지 교양 만화가 영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바탕으로 크게 유행하는 거점이 되었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한 잡지의 성공과 함께 우리 사회에 교양 도서 붐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정음문고, 서문문고, 양문문고 등 대형 기획 문고본이 속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유명 문인들의 시와 소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편, 독자 문예 난의 마련과 《학원》문학상 제도의 실시를 통해 수많은 문학청년들의 요람이 되어 주었다. 이들 학생 문단의 주역들이 뒷날 우리 문단의 주역으로 떠올랐음은 물론, 우리 사회에 문학 독서 붐이 널리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동력을 제공했다.

《학원》을 비롯한 학생 저널은 단순히 읽을거리에서 벗어나 출판의 발전 방향을 견인하고, 나아가 학생 교양과 국민 교육의 주요한 거점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학생 저널은 그 발간 취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잘 다듬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2012년 도서관 제386호 기획대담

2012년 도서관 제386호 기획대담

독서운동의 현재와 미래(2012.11.5.)

06

2012년은 '독서의 해'로 지정되어 책 읽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부에서는 '독서의 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독서의 해'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12월 13~14일 양일간 '독서의 해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독서문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영국, 일본, 호주 등 '독서의 해'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독서단체, 도서관, 출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독서, 출판,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 등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의 해'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문화부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라는 모토 아래 독서량 5% 증진을 목표로 '전 국민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읽기', '책으로 선물하기', '주 5일제 수업제와 연계한 도서관가기', '서점가기'등 다양한 생활 속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독서의 해'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3월 9일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생활 속 독서 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2 독서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출판, 도서 관계자 및 문화예술계 인사 200여 명,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외수 작가가 강사로 나서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밖에 도서 기증 행사와 독서의 해 상징 티셔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1. 독서의 해 선포식 사진

두 번째, 4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책 다모아'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국 16개 지역 266개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판계 인사, 문인 등 사회 저명인사와 일반시민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공연과 시상식,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행사를 통해 모아진 책은 소외지역 작은도서관과 병영도서관에 재기증하였다.

세 번째, 전국으로 뻗어 있는 철로처럼 함께 읽고 나눠 읽는 독서 나눔 환경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레일이 협력하여 '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는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구, 대전, 부산 등 지역 역사 등을 활용하여 독서 나눔 콘서트 및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2. 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 사진

네 번째,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정서함양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군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병영 독서진흥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50개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독서코칭 파견 및 독서콘서트를 개최하였고, 도서 25,000권을 지원하였다.

다섯 번째,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 21일 양일간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독서의 해 대토론회'와 '제18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첫날 진행된 대토론회에서는 독서, 출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대의 책 읽기와 생각하기의 의미'라는 기조 강연을 필두로 '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한 출판발전방향',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 책, 독서, 도서관'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제 18회 독서문화상을 개최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와 개인 유공자(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35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책으로 하나 되는 울산 북 페스티벌' 등 총 8,332건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제1회 전국 독서 동아리 축제(10월 27일, 파주출판도시), 지역 대표 독서 프로그램 선정 · 지원(14개시도 16개 프로그램), 대학생 독서토론대회(8.20-22, KT&G 상상마당 논산)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독서의 해' 추진을 통하여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 예로 '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좋은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각 지역의 독서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책과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이라는 행사취지에 감명 받은 코레일 측에서 승객들을 위한 독서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실행방안으로 KTX 객차 안에 도서를 비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독서코칭 파견 및 책 읽는 병영도서 지원 등 병영 독서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장병들에게 책 읽는 독서습관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노력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실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독서 문화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회 각 층에서 활발히 독서 문화 진흥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획대담을 개최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다.

그림3. 대담사진

사회 : 윤세민(경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패널 :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 사무처장), **한상수**(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한윤옥(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세민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획대담 사회를 맡게 된 윤세민입니다. 올해는 독서의 해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관 제386호에서는 「독서운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획대담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히, 최근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그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한윤옥 국제비교에 따르면 국민독서율과 국가경쟁력이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우리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율(67%)은 스웨덴(87%), 네덜란드(84%), 덴마크(83%), 영국(82%), 독일(81%)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최근 국가재정파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59%), 그리스(59%), 포르투갈(5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각국 국민들은 연령증가에 따른 독서율 감소가 완만한데 비하여, 한국인은 55세 이상 독서율이 41%로 15-24세 독서율(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독서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국민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가장 높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독서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조사시점(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1.7%이고, 성인의 과반수(56%)가 '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매체의 증가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읽기범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지만, 시청각적이고 양방향적인 독서로 인하여 독서 후에도 기억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불안정한 독서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독서 관련 교육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3.4%나 되어 학교 독서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고, 소외계층인 장애인, 다문화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문해적 독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독서운동에서는 독서의 가치개념과 독자의 유형구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독서습관 형성부족으로 책을 읽지 않는 독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하는 독자를 구분한 독서진흥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수 국민독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근 1년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성인의 독서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1)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1.4%가 증가해서 하락세가 멈추었지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치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쁜 일상, 독서 습관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독서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긴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독서진흥정책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율도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스마트 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인한 독서율의 감소(2)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좀 더 세밀하게 독서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한 학기 독서율이고, 2011년에는 1년 독서율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기 독서율보다 1년 독서율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큰 폭으로 떨어져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제고사 강화로 대표되는 주입식 · 암기식 경쟁교육에 치중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생의 독서량도 조사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 한 학기 14권,

(1) 연도별 독서율 현황 1994년(86.8%) → 1999년(77.8%) → 2004년(76.3%) → 2008년(72.2%) → 2009년(71.7%) → 2010년(65.4%) → 2011년(66.8%)

(2) 스마트폰으로 인한 독서율 감소 현황 2008년(89.1%) → 2009년(93.7%) → 2010년(92.3%) → 2011년(83.8%)

2009년 한 학기 16권, 2010년 한 학기 16.5권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1년에는 한 학기 12권, 1년 24.3권으로 감소 했습니다.

안찬수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양적인 지표인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독서행태와 독서활동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 즉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국민독서실태조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는 현재 국가 통계입니다. 통계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한 통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설문조사의 내용이 시대에 맞게 변해오긴 했지만 질적인 독서진흥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질을 강구해야 앞으로 전개해야 할 독서진흥운동 방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독서와 관련한 일본의 독서율 통계(3)를 보면 각종 독서진흥활동이 국민독서에 영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독서진흥활동이 국민독서실태조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세민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그 시사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가 기본적인 통계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양적 · 질적 문제의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한상수 국민독서실태조사는 국민들의 독서실태 변화추이를 조사하여 독서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표준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하던 국민독서실태조사를 격년제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바꾸기가 어렵다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는 표본수를 늘려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표본수가 성인 2,000명, 학생 3,000명으로 적어서 통계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수 미국 예술기금(NEA)은 지난 2007년 11월 각 정부 기관과 대학에서 실시한 독서

(3) 3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사회교육조사의 2011년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1인당 26.0권으로 최다이며, 성인도 0.5권 증가한 5.4권으로, 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린이독서활동추진법이 제정된 이후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음, 지지통신 2012년 10월 31일자 기사 참조

부문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예술기금은 책 읽는 문화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책 읽는 문화의 후퇴는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 기부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4]를 들어 시민생활과 정치 · 경제 · 사회적 문제와 독서문화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서문화활동은 책읽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독서실태조사는 아직 양적인 조사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도 질적인 연구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질적인 독서문화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세민 그렇다면 과연 독서운동이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하시는 독서운동이란 무엇입니까?

한상수 독서운동은 "사람들을 책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펼치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좋은 책이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출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찬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리터러시(literacy)'를 문해력, 정보조직력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 · 자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은 단지 시민들로 하여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옥 글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문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문해적 차원의 독서란 글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과 연관시켜 성찰할 수 있는 차원의 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책을 읽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독서운동에서는 스마트폰 등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잘 찾을 줄 알지만 정의적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함양이나 사고력, 삶에 대한 성찰 등을 제대로

(4) NEA, To Read or Not To Read : A Question of National Consequence, 2007.11

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진정한 독자로 이끌 수 있는 독서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세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윤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을 '독서진흥의 원년',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삼고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서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추진단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전북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파주시가 대표적이며 조례의 내용에는 독서의 날 지정,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독서의 달 행사, 독서문화진흥 행사 개최, 독서정보 DB시스템 활용, 민 · 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위원회 ·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독서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대부분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독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 홈페이지의 조직도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의 대부분이 세부 추진과제만을 취합하여 작성돼 있을 뿐, 지역단위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단기 행사 위주의 독서 관련 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행정력과 재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독서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독서문화진흥 사업간/지역간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추진 주체별 독서 사업 중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이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에 비해 그 대상이나 해당 범위가 훨씬 넓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이 많고, 그 영향력도 가장 큰 편이만 지자체에서 독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고른 독서 관련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찬수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놓고 봤을 때, 독서문화활동은 이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국가'라는 말, 혹은 '문화복지국가'라는 말을 쓸 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영역이 바로 독서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북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만들어 한 지역사회의 도서관 및 독서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정책이 나온다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유기적으로 만들어 지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한상수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영역 부문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전문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는 독서진흥이라는 것이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독서진흥사업을 총괄하는 문화부만 하더라도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공무원 순환근무제도 때문인데 한 나라의 지적 발달을 총괄하는 독서진흥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중앙부처의 독서진흥사업 담당자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배치하여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펼쳐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안찬수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발전은 현재 '확충기'의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독서문화의 발전을 위해 '확충기'에 걸 맞는 인력문제를 법적 · 제도적 · 행정적으로 완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수 이러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자체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독서진흥부서를 두고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도 파주시처럼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들이 꾸준히 사업을 펼치는 곳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는 아직 소수라서 지자체간 편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 때 독서진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임을 정책담당자들이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윤세민 전문인력 배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다음은 독서 관련 단체 운영현황에 대해 들었으면 합니다. 직접 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수 저희는 유아 및 아동 ·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들과 함께 독서운동을 하는 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의지입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기관장이나 교사가 있는 교육기관과 없는 교육기관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각급 교육기관에서 좋은 독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원장의 관심이나 인식에 따라 좋은 그림책이 수천 권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할 때 학교처럼 유치원 운영비의 일정 부분은 도서구입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사서 배치 부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서 식상한 감마저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매년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사적영역으로 보고 개인의 선택에 무조건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독서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대세인 요즘에는 더욱더 그럴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아침에 10분이라도 책 읽는 시간을 주는 아침독서운동이 스마트폰 시대에 더 절실해졌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한 시간 내내 자유롭게 책만 읽는 몰입독서시간을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도 관심을 가질만한 일입니다. 직장에 직원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도서관 운영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찬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독서문화진흥법〉이 규정해 놓은 '독서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깊지 않습니다. (법 제2조 3항) 법적으로는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만, 사회운동적으로는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독서운동은 그 전에 포함하지 못했던 계층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군부대 병사, 어르신 등 책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영역까지 이 용어의 정의를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범위에 미치지 못했던 독서 대상을 세분화하여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대상별 독서에서 가장 치중되었던 영역이 어린이와 주부였고,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본격적인 독서진흥활동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독서진흥계획에서 '생애주기'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생애에 따른 맞춤형 독서를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운동, 초중고등학교의 아침독서시간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더 본격화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윤옥 독서교육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디지털 환경에 따른 독서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선택권을 주지 않으니 독서를 '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읽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생 독자가 되는 길을 안내해야 하는데 오히려 평생 독자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찬수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독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매우 강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가 책을 매개로 독서동아리나 독서캠프를 만들어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초기적 단계의 독서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독서교육의 큰 변화가 일어나 스스로 읽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세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펼쳐지는 각종 독서행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수 현재 진행되는 독서행사는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안찬수 대표적인 독서 관련 행사 가운데 하나가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이 도서전은 1995년부터 '국제' 도서전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전에는 프랑크푸르트처럼 저작권 거래를 중심에 놓는 산업적인 도서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프치히 모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낭독회, 작가와의 만남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밑으로부터 엮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바로 라이프치히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세민 반짝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군요. 독서동아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찬수 민간영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지역매체에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울산의 평범한 시민들이 10년 동안 문학, 역사, 철학 저서를 읽자는 독서모임운동으로 '문사철 600'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새벽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인 독서모임입니다. 또한 대전에는 '100권 독서클럽'(이른바 백북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전 지역의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과학책을 열심히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 단위로 확산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루어지는 독서동아리 조사는 공적인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풀뿌리 독서동아리의 실태나 활동은 잘 조사되지 않을 듯싶습니다.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동아리 활동도 조사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윤세민 좋은 동아리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도 좋은 독서운동이라 생각됩니다.

안찬수 좋은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선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수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독서동아리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책 읽는 교사'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책을 읽고 독서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반가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사 책읽기 모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세민 그렇다면 독서 관련 단체의 운영 현황, 장애요인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찬수 독서문화운동의 본질은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본질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세한 사례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독서문화운동의 공공성, 공익성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상수 독서운동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의 경우 유지를 일차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후원금도 많지 않고 지자체의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선 수익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인건비를 지원받긴 하나 한시적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서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수익창출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미약한 편이라 힘겨움이 있는데 시민단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수 올해 2012년은 '독서의 해'입니다. 앞에 연도가 붙어있긴 하지만 독서의 해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올해 우리가 과제로 삼았던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서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교사와 사서, 여러 독서문화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확충기를 지나 내실을 기해야 할 단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실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양성과정에 있는 분들이 시대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옥 현재 국내 독서 및 도서관문화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은 매우 많은 실정이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독서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독서 및 도서관 문화 관련단체 (21개관)	• 느티나무 도서관재단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 도서관친구들 • 독서문화연구소 •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 (사)새마을문고중앙회 • 서울독서교육연구회 · 책고리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인표어린이도서관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도서관협회 • (사)한국사립문고협회 •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 (사)한국출판인회의 •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 (사)행복한 아침독서

독서운동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독서 관련 업무가 본분이란 점에서, 민간 사회단체는 공익적 봉사활동이란 설립목적과 직접 책을 접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체란 점에서, 출판 · 서점계는 도서판매를 통한 생존확보라는 점에서 주된 활동을 해 왔으며, 기업과 언론계, 정부는 각 주체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 단체의 독서운동의 내용별 공통 활동은 도서관 설립, 독서행사, 도서전시회, 독서지도 교실 운영, 독서정보 제공, 독후감 모집 등을 통한 독서 장려, 독서모임의 조직과 운영 등인데 그 목적과 추진 방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단체 간에 격차가 심하고, 연계가 부족하여 독서 및 도서관운동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독서 및 도서관문화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신뢰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 '따로 또 같이' 진행하는 범국민독서문화운동이 필요하고 아울러 독서 사업 추진 시 도서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민간단체, 학교 등 다양한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세민 다음으로 독서운동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상수 독서운동의 기본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출판사가 양서를 만들었을 때 도서관 구매만으로도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지속적인 양서 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독서운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독서운동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을 독서의 주체가 아닌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될 것입니다.

윤세민 지금까지 독서운동의 현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독서운동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상수 디지털 시대,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은 독서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책 읽을 시간뿐만 아니라 책을 살 돈도 빼앗아 갔습니다. 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도서구입비 하락으로 이어져 출판계에 불황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각급 교육기관과 직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복한아침독서도 매월 발간하는 독서교육 정보지들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했는데 과월호부터 최신호까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도 기사 게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이로 발간해서 보급하는 데는 저희 역량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훨씬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어 유용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독서운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면서 더불어 종이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윤옥 인류문화는 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 글로벌 문화체 형성 등에 의해 질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매체환경은 각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시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인간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세대의 독자는 독서의 목적과 방식, 독서의 선호도가 기존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전제로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찬수 더 이상 책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책은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지만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를 완전히 대체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디지털 문명과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책을 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다른 형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매체환경이 열리면서 지금껏 책과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SNS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세민 우리나라의 독서와 독서운동의 미래와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상수 저희는 일의 성격상 출판계와 관계를 맺고 일하는데 현재 출판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신간을 내면 재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책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그림책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작그림책을 제대로 내려면 수년 동안 애를 써야하는데 판매되는 분량은 고작 수백 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앞으로 국내 창작그림책을 내는 출판사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내 창작그림책을 지원하는 방법을 시급히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은 큰 위기입니다. 좋은 책이 많이 나와야 그 책을 읽는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출판계에서는 현재 출판진흥을 위한 3대 정책 과제(완전한 도서정가제 보장, 출판진흥기금 5천억 원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의 획기적 증액)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출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출판문화 자체가 고사될 지도 모릅니다.

한윤옥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북돋우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 행위의 범위를 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은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라는 소박한 4원칙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확장된 독서프로그램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20분간 반드시 책, 사설을 읽고 마지막 주에는 글로 표현을 하는 운동입니다.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날개는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나누어주는데 이는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홍보 가이드북 등이 포함된 가방이고 그 외 내용물로는 손수건, 크레파스, 연습장, 퍼즐 등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생애 최초의 책읽기를 격려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북크로싱(book-crossing)운동은 책을 읽은 후, 책과 함께 메시지를 적어 공공장소에 놔두면 다음에 습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음 사람에게 책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일명 책 돌려 읽기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책 재활운동으로 독서환경 가꾸기라고 할까요?

이상 여러 가지 독서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특히 책의 날(4월 23일, 10월 11일), 가정의 달(5월), 독서의 달(9월)에 전국적인 독서관련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기별 독서행사 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행사 성격의 단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 등을 살린 독서문화진흥 운동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겁니다.

윤세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해외 독서운동의 우수사례와 국내 활용방안은 없는지요.

한상수 외국에서 이루어진 독서운동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입견을 갖고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진행된 독서운동 중에서 북스타트 운동이나 아침독서운동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전개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퍼스트북(First Book/미국)과 뉴질랜드의 책의 바다에 빠뜨리기(Book Flood) 운동입니다. 퍼스트북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운동인데 독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북 플러드는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교실마다 400~500권의 양서를 제공하고 도서의 대량공급이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관심, 그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6개월 후에 조사를 해보니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책을 25% 이상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취력도 놀랄만큼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행복한아침독서는 아침독서운동 초창기부터 학급문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실에 좋은 책을 마련하는 학급문고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좋은 책을 제공하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안찬수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가르쳐야 할 기술은 무엇일까요? 소통, 즉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책읽기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한국의 독서문화를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다음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는가를 생각했을 때, 급격하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독서운동이 단순히 단체나 기관에서 펼치는 작은 영역의 활동이 아니라 전 사회적 · 국가적인 활동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서관 및 독서문화정책에 관한 결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1단계 내용이 독서환경 조성, 독서습관 생활화,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접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독서를 매개로 교사, 사서, 학부모 등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즉 인재양성시스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큰 패러다임 속에서 독서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한다면 이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상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요령과 암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을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에 독서교육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틀을 바꿔 아이들의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데 독서운동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독서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한윤옥 제도적 보완과 독서시간의 확충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사회가 결국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나를 위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의 품성교육차원의 독서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세민 두 시간 동안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대담을 진행해 보았는데,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한상수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에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설치 규정 대신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건설회사가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지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도서관을 선택할 아파트단지가 과연 얼마나 될 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도서관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가뜩이나 불황인 출판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신설 아파트도서관에 최소 1,000권 이상 책이 들어갔고, 이후로도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꾸준히 신간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수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3년 1월에 개정 · 공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개정 · 공포 후 1년으로 정했으므로 2014년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도록 문화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고, 도서관계와 출판계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안찬수 독서문화운동은 책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미미하기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분야에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책의 중요성과 도서관의 중요성을 환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를 국민 독서의 해로 지정했지만 내년, 내 후년에도 계속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윤세민 오늘 대담은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검토하는 가운데, 책의 중요성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출판과 독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 맞게 출판과 독서의 영역을 넓혀 디지털 시대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독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날이 갈수록 독서 환경과 조건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럴수록 독서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서 독서운동에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연구현황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07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2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연구책임자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박호상(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2011년도 독서문화진흥 추진실적 및 2012년 시행계획 등

2012년도 전자책 독서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윤종욱(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장기영(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
  윤치호(현대리서치연구소 부장)
  박호상(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자책 관련 생태계 조사, 전자책 독서행태 조사, 독서정책 방향 제시 등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종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구원 : 백원근(도서관출판소 책임연구원)
  조용민(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정아(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도서구입비 조세지원 관계법령 현황 분석, 세제감면 효과, 도서구입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제 · 개정안 제시 등

미래 도서관 정보화 정책과제 수립연구

- 연구책임자 : 남영준(중앙대학교 교수)
- 참여연구원 : 김은정(중앙대학교 박사)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 도서관 정보화 정책 발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 연구책임자 : 변현주(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 참여연구원 : 한윤옥(경기대학교 교수)
  조미나(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보일(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연구조사를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운영규모와 시설유형 및 보유형태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컨설팅 대상 도서관의 현장 진단 및 도서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작은도서관 육성 정책 수립에 활용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화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곽철완(강남대학교 교수)
- 참여연구원 : 임종덕(문화정보센터 연구원)
  김동훈(문화정보센터 연구원)
  류지민(문화정보센터 연구원)
  김근우(문화정보센터 연구원)
  강정훈(문화정보센터 연구원)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화 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정보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정보화 정책 제안

07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안인자(동원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부교수)
- 공동연구원 : 박미영(서울여자대학교 강의 초빙교수)
- 보조연구원 : 김혜주(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이강산다정(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조영성(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총괄 현황 및 문제점, 유형별 현황통계 등 계량적 지표와 질적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 연구책임자 : 이상복(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조현양(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홍렬(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배경재(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재황(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관종별 평가지표 개선안 및 평가 프로세스 등 개선 방안 제시

전국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이용준(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김원제(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한은주(로이스컨설팅 이사)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독서동아리 활동 현황 파악 및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

- 연구책임자 : 윤희윤(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김신영(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
  김지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 기획정보부 정보봉사과장)
  오선경(Florid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김지홍(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재민(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일영(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 사서)
  최은종(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이경희(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박금화(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주요 선진국 및 국내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출판.유통적, 법리적, 정책적, 논리적, 인식적, 현실적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과 모형 제안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발간 현황분석과 납본수집개선 방안연구

- 연구책임자 : 윤희윤(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이영숙(전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사무관)

국내 출판물의 정확한 유통규모 파악을 통한 수집범위의 설정과 망라적 수집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수집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납본 및 수집정책 정비를 위한 자료 제공

07

국립중앙도서관과 인터넷포탈의 정보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연구

- 연구책임자 : 정광훈(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원)
- 공동연구자 : 김은정(KT 그룹컨설팅지원실 부장)
  유수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상우(연세대학교도서관 사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과 외부 연계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업용 인터넷포탈과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연계협력 가능한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콘텐츠 발굴을 위한 방안 제시

기초 자치단체 도서관조례운영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현태(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관)
- 공동연구자 : 윤명희(파주시도서관정책팀 팀장)
  이정수(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정미연(서울시립정독도서관 과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법제적 기반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치문화시설로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로 발전해 가기 위한 바람직한 도서관조례 운영모델을 제안

도서관이용자 응대서비스 매뉴얼

- 편집위원장 : 황금숙(대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 편 집 위 원 : 이영숙(전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사무관)
  이경애(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장)
  성경신(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계장)
  김선희(서울시립도봉도서관 관장)
  서성남(안양시립만안도서관 사서)
  정현태(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관)

도서관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별 문제 이용자에 대한 응대지침을 제시하고, 서비스 실무자 고객응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자료로의 활용 방안 제시

디지털자료의 국내외 서비스 사례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

- 연구책임자 : 고경대(동국대 출판학과 교수),
  박행웅((사)출판유통진흥원 고문)
- 공동연구자 : 박종찬(그레파트너스(주) 선임 컨설던트)
  박호상(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디지털자료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와 국내 이해당사자간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관외서비스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교과과정 표준모형 개발연구

- 연구책임자 : 노영희(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안인자(동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상기(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표준화를 통한 국내 사서자격교육 과정의 재정립과 국내 문헌정보학 설치 교육기관의 전공과목 표준화 마련 방안 제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곽승진(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최재황(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옥남(상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정택(배재대학교 사서)

디지털자료 납보 체계 및 납본 요소별 지침 수립과 납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도출

온라인자료 개발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지연(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온라인자료의 유형별, 매체별 수집기준 및 범위 정비를 통해 온라인자료 수집과 서비스의 정책적 근거 수립 방안 제시

07

정보활용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배경재(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박희진(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정보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도서관에 적용가능한 교육모델 개발 및 연계방안을 제시

주요국 도서관정보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연구책임자 : 정은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정우섭(밀워키 위스콘신대학교)
  송경진(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회의 전문가그룹이 향후 국가도서관정보정책(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NILP)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실제적인 정책과제들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 정세형
- 공동연구원 : 박호진, 정준호

부서별 업무량 및 인력배분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수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5~10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 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여연구원 : 이용훈(도서관문화비평가, 전 한국도서관협회 총괄부장)
  김수연(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호상(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윤치호(현대리서치연구소 부장)

전국 어린이(5~10세)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독서문화 환경 조사와 어린이의 독서와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지역별, 연령별, 대상별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로 독서환경, 미디어 이용 실태, 독서정보원, 독서율 및 독서량, 도서관 이용 실태, 보호자의 독서 태도와 행동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아와 어린이의 독서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한다.

어린이 · 청소년의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목록개발 및 독서지도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윤옥(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조미아(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
- 보조연구원 : 백진환(정자초등학교 사서)
  고정원(연신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이보라(오금초등학교 사서교사)
  장해숙(박달초등학교 사서)

전년도의 연구인 「성격유형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발달적 독서지도 연구」는 독서수업 과정상에서 보이는 성격유형별 특징이 있는지를 설문조사와 관찰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격유형별 독서성향 및 태도를 찾아내었다. 그 후속 연구로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험관찰을 통해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책을 조사하고, 그 책들의 내용적 요소를 분석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제시한다. 또한 성격유형별 지향점의 도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지도하면서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목록개발 및 효과를 제시한다.

07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적 ·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해외사례조사 및 국내 적용모델 개발

- 연구책임자 : 이정은(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 박현옥(이화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서선진(중부대학교 건양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손지영(청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송경진((사) 포럼 문화와 도서관 사무국장)

지적 ·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례와 초점그룹면담(도서관 사서, 특수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부모)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 ·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국내 적용 모델을 제시한다.

지체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 연구책임자 : 표윤희(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 공동연구자 :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이명희(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김정연(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지체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사례와 국내 도서관서비스 실태 및 욕구 분석(도서관 사서, 지체장애인 및 부모)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한다.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 연구책임자 : 강창욱(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자 :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김호연(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이정자(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사무국장)
  한기열(강남대학교)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사례와 국내 도서관서비스 실태 및 욕구 분석(청각장애인 및 전문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한다.

도서관

통권 제 386 호
2012

비매품

기획 · 편집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인쇄 | 2012년 12월 20일

발행 | 2012년 12월 21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90-0797

팩스 | (02)590-0502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주)계문사

DOSEOGWAN

vol. 386
December 2012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daero 201,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90-0797 Fax | (02)590-0502